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241-01

2022. 12.

농식품 ODA 등을 활용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기여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황윤재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박성진 | 연구위원 | UN 및 해외 주요국 동향 집필

최재현 | 전문연구위원 | 푸드시스템 개념과 국내 현황 집필

이효정 | E&S컨설팅 | 국제협력사업 추진 실태 및 기여 방안 집필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식품 ODA 등을 활용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기여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윤재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박성진 (연구위원)
최재현 (전문연구원)
공동참여자: 이효정 (E&S컨설팅대표)

연구 목적

-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UN은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그간의 농업·농식품 분야 정책 추진과 국제협력 및 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UN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푸드시스템 개념 및 관련 동향,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대응 현황, 국제개발협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기관의 통계 및 정책 자료와 관련 연구·문헌 등을 검토함.
- 정부 및 민간 부문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방문 조사하고,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푸드시스템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한 국내외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기여 방향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실태를 검토하고,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연계·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원고 위탁을 실시함.

연구 결과

-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푸

드시스템 개념과 국내외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경로 수립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현황과 국제사회 협력 가능 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여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함.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대응은 ① 국내외 논의 및 정책 간 일관성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지원 ③ 다층적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 방안과 과제는 ① UN 실천연합 단계적 참여 확대와 차별적 대응 ②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③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④ 국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보 등임.

○ 첫째, 우리나라 정책과 국내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연합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가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식품손실, 농업생태, 지속가능한 생산성, 글로벌 지속가능축산, 지역식품 공급사슬, 기후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등 8개 실천연합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중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등 2개 실천연합에 우선 참여하고, 기타 실천연합의 경우 이행체계와 운영계획이 마련된 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참여를 결정·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실천연합별로 추진체계와 세부적인 운영 방식·내용 등은 다소 차이가 있어, 각각의 실천연합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국가 간 분쟁, COVID-19 팬데믹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식품 관련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식량원조와 농업 생산

성 제고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다수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사업과 연계할 경우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개발도상국이 ODA 지원을 통해 구축된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반(계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 단계별·영역별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수준·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제, 국가 및 지역 단위별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논의와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과 푸드시스템에 관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푸드시스템 대응·기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의 광범위한 연계·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푸드시스템 정책의 일관적 추진, UN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넷째, UN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비전·목표를 담아서 국내외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정책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푸드시스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국제사회 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제2장 푸드시스템 개념과 국내외 관련 동향

1. 푸드시스템에 관한 개념적 접근	9
2.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16
3.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현황 및 후속 조치	35

제3장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경로 수립 현황과 내용 분석

1. 우리나라 국가경로 수립 현황	59
2.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수립 현황	63
3.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분석	74

제4장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현황과 국제사회 협력 가능 분야 진단

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수립 현황	83
2.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내용 분석	91
3. 국제사회 협력 분야와 참여 가능 실천연합 진단	105
3. 주요 실천연합 세부 추진 현황과 국내 관련 정책	118

제5장 국내외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1. 국제기구 현황과 사례	163
----------------------	-----

2. 해외 주요국 현황과 사례	174
3. 국내 현황과 사례	181

제6장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 방안

1. 정책 방향	193
2. 글로벌 푸드시스템 기여 방안과 과제	195

참고문헌	219
-------------------	------------

제2장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번 및 12번 세부 목표와 측정지표	21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푸드시스템 연관 사례	28
〈표 2-3〉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푸드시스템 관련 목표	33
〈표 2-4〉 UN 사전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논의 주제	35
〈표 2-5〉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주요 일정	36
〈표 2-6〉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제1~5차 국내 논의 참석자 요약	38
〈표 2-7〉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실천경로별 실천분야	43
〈표 2-8〉 실천경로1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45
〈표 2-9〉 실천경로2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47
〈표 2-10〉 실천경로3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50
〈표 2-11〉 실천경로4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52
〈표 2-12〉 실천경로5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55
〈표 2-13〉 교차영역(거버넌스) 관련 실천분야 주요 내용	57

제3장

〈표 3-1〉 일본 국가경로 우선순위 주요 내용	70
〈표 3-2〉 폴란드 국가경로 우선순위	73
〈표 3-3〉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실천경로 및 실천영역과 연관성	75
〈표 3-4〉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실천연합과의 연관성	76
〈표 3-5〉 우리나라와 OECD DAC 회원국 국가경로 주요 내용 비교 분석	79
〈표 3-6〉 ODA 중점협력국 국가경로 주요 내용 비교 분석	81

제4장

〈표 4-1〉 UN 푸드시스템 실천분야별 실천연합 개요	85
〈표 4-2〉 ‘Nurish All People’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와 내용	87

〈표 4-3〉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88
〈표 4-4〉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89
〈표 4-5〉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90
〈표 4-6〉 ‘Means of Implementation’ 관련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91
〈표 4-7〉 ‘Nurish All People’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92
〈표 4-8〉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93
〈표 4-9〉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94
〈표 4-10〉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94
〈표 4-11〉 OECD DAC 주요 회원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98
〈표 4-12〉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101
〈표 4-13〉 ‘Nurish All People’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102
〈표 4-14〉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103
〈표 4-15〉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104
〈표 4-16〉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105
〈표 4-17〉 ‘Means of Implementation’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105
〈표 4-18〉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108
〈표 4-19〉 OECD DAC 회원국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109
〈표 4-20〉 ODA 중점협력국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110
〈표 4-2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과 SDGs와의 연관성	112
〈표 4-22〉 OECD 주요국와 ODA 중점협력국의 주된 참여 실천연합 현황	114
〈표 4-23〉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천연합	115
〈표 4-24〉 기준별 참여 가능 실천연합과 종합진단 결과	117

〈표 4-25〉 회원국의 학교급식 실천연합 참여 방법(참고 예시)	128
〈표 4-26〉 학교급식 관련 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	135
〈표 4-27〉 농업 및 농업생산성 관련 정책 주요 내용	155

제5장

〈표 5-1〉 FAO의 4 Better 전략 개요	168
〈표 5-2〉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식량안보 전략	176
〈표 5-3〉 식량원조협약(FAC) 국가별 지원 약정액(2018년 기준)	184
〈표 5-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조 사업 현황 및 국가별 식량위기 현황	186
〈표 5-5〉 농식품부의 쌀 식량원조 지원 실적	186
〈표 5-6〉 KOICA의 농촌개발 중기전략(2021-2025) 개요	188
〈표 5-7〉 KOICA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개요	188
〈표 5-8〉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189
〈표 5-9〉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의 주요 성과	190

제6장

〈표 6-1〉 OECD DAC 주요 회원국의 실천연합 참여 규모	196
〈표 6-2〉 실천연합 목표 이행 수단과 방식	201
〈표 6-3〉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중 신규사업	205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8

제2장

〈그림 2-1〉 푸드시스템 구성 요소 12
 〈그림 2-2〉 푸드시스템과 연관 시스템 상관관계 13
 〈그림 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19
 〈그림 2-4〉 전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FIES) 변화추이(2000~2020) 23
 〈그림 2-5〉 전 세계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수준 변화추이 24
 〈그림 2-6〉 수확 후 소매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식량손실 비율 25
 〈그림 2-7〉 SDGs와 푸드시스템의 상호 연관관계 26
 〈그림 2-8〉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추진 체계와 과학그룹 위상 40

제3장

〈그림 3-1〉 우리나라 국가경로(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9월 발표) · 61

제5장

〈그림 5-1〉 OECD의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 164
 〈그림 5-2〉 OECD/DAC 국가별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 165
 〈그림 5-3〉 국제기구의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 166
 〈그림 5-4〉 OECD의 농업부문(311) 세부분야별 지원현황(2016-2020) 167
 〈그림 5-5〉 OECD/DAC 회원국가별 FAO의 농림수산분야 지원현황(2016-2020) · 168
 〈그림 5-6〉 HGSF 프로그램의 SDGs와의 연관성 및 부문별 파급 영향 172
 〈그림 5-7〉 미국국제개발처(USAID) 조직도 175
 〈그림 5-8〉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전략적 목표 178

〈그림 5-9〉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안보 프레임워크	178
〈그림 5-10〉 농식품부의 ODA 추진 체계	181
〈그림 5-11〉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예산 변화 추이(2006-2022)	182
〈그림 5-12〉 농식품부 양자사업의 유형별·지역별 지원현황(2022년)	183
〈그림 5-1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농림수산분야 지원액 변화추이	187
〈그림 5-14〉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의 시범가공센터	190

제6장

〈그림 6-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단계적 참여 및 검토 로드맵	197
--	-----

1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세계 각국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및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환경오염 등 각종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그간 경제 성장,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별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유인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 그러나 경제 및 산업 발전이 각국이 직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독자적인 노력도 한계에 직면함.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빈곤과 기아, 건강·영양, 위생,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공동 관심사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옴. 2015년에는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SDGs는 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이행 목표를 담고 있음.

○ 그러나 이행 현황 점검 결과,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UN과 회원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밑바탕이 되어야하며, 전 세계의 공동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이에 UN은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이슈를 논의·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할 것을 촉구함.

○ UN은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회원국과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를 개최함.

- UN은 정상회의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국제기구와 회원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각각의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함.

○ 우리 정부는 그간 UN을 중심으로 한 SDGs의 달성과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에 적극 동참해 옴. 2021년에는 UN의 요청을 받아들여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국내 논의를 개최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또한 그간의 정책 경험과 국내 논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푸드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함.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의 ‘국가경로(National Pathway)’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¹⁾²⁾³⁾

○ 우리나라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연계·협력을 촉구하는 UN의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협력 과제에 동참하겠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전환됨. 국가 위상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커지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을 실시하고 있음.⁴⁾

- 1950년~60년대에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 1960~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루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성공 모델이 되고 있음.

○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여 공식공여국

1) UN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상의 여러 분야·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전까지 총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함.

2) '국가식량계획'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3대 전략으로 하여 2021년 9월에 수립됨.

3)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각국의 푸드시스템에 관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함. UN에서는 이를 국가경로(National Pathway)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식량계획'이 국가경로의 역할을 함.

4)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임.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은 ODA를 포괄하는 개념임.

으로 자리매김함.⁵⁾

- 최근에는 UN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을 위한 개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020년 이후 COVID-19(코로나19), 기후변화,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고, UN이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농업·농식품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UN이 SDGs의 달성에 있어서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COVID-19 이후 식량에 기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참여를 촉구함에 따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가 국내 농업·농식품 정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그간의 정책 경험과 성과 그리고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연계·협력 및 지원 노력에 동참한다면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과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일 수 있음. 또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그간의 농업·농식품 분야 정책 추진과 국제협력 및 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UN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체계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글로벌 푸드시스템

⁵⁾ DAC는 1961년에 출범한 ODA 주요 공여국 간 회의체로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 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됨.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임(대한민국 ODA 통합 웹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 검색일: 2022. 10. 1.).

의 전환과 UN SDGs 달성에 기여함.

-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여 COVID-19,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문제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아울러 국제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얻은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함.

- 첫째, 푸드시스템 개념과 국내외 푸드시스템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현황,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내용과 후속 조치 등의 관련 현황을 파악함.
- 둘째,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분석함.
- 셋째,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협력 가능한 분야와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천연합을 진단함.
- 넷째, 국내외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협력 및 기여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주요 연구 내용

■ 푸드시스템 개념과 국내외 관련 동향

- 푸드시스템에 관한 개념적 접근
-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현황 및 후속 조치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경로 수립 현황과 내용 분석

- 우리나라 국가경로 수립 현황

-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수립 현황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분석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현황과 국제사회 협력 가능 분야 진단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추진 현황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내용 분석
- 국제사회 협력 분야와 참여 가능 실천연합 진단
- 주요 실천연합 세부 추진 현황과 국내 관련 정책

■ 국내외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 국제기구 현황과 사례
- 해외 주요국 현황과 사례
- 국내 현황과 사례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 방안

- 정책 방향
- 글로벌 푸드시스템 기여 방안과 과제

3.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 및 문헌 조사·분석

- 푸드시스템 개념 및 관련 동향,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대응 현황, 국제 개발협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자료 및 문헌 검토
 - UN,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통계 및 정책 자료, 연구·문헌 자료 수집 및 조사

- 기타 기존 정책 자료, 연구 및 문헌자료 등 수집 및 조사

■ 관련인 의견 교환·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 및 민간 부문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주요 기여·연계·협력 가능 분야 관련 현황과 국제개발협력 현황 파악
 - 국제사회 기여 가능 및 연계·협력 분야 진단과 기여 방향 및 실천 방안 논의

○ 기관 방문(면담) 조사

- 관련 기관, 정책·사업 담당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방문(면담) 조사
 - 푸드시스템 관련 국내 대응 현황과 기여·연계·협력 가능분야 국내 관련 현황 검토
 - 농업·농식품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파악

■ 전문가 원고 위탁

○ 국내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실태를 검토하고,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원고 위탁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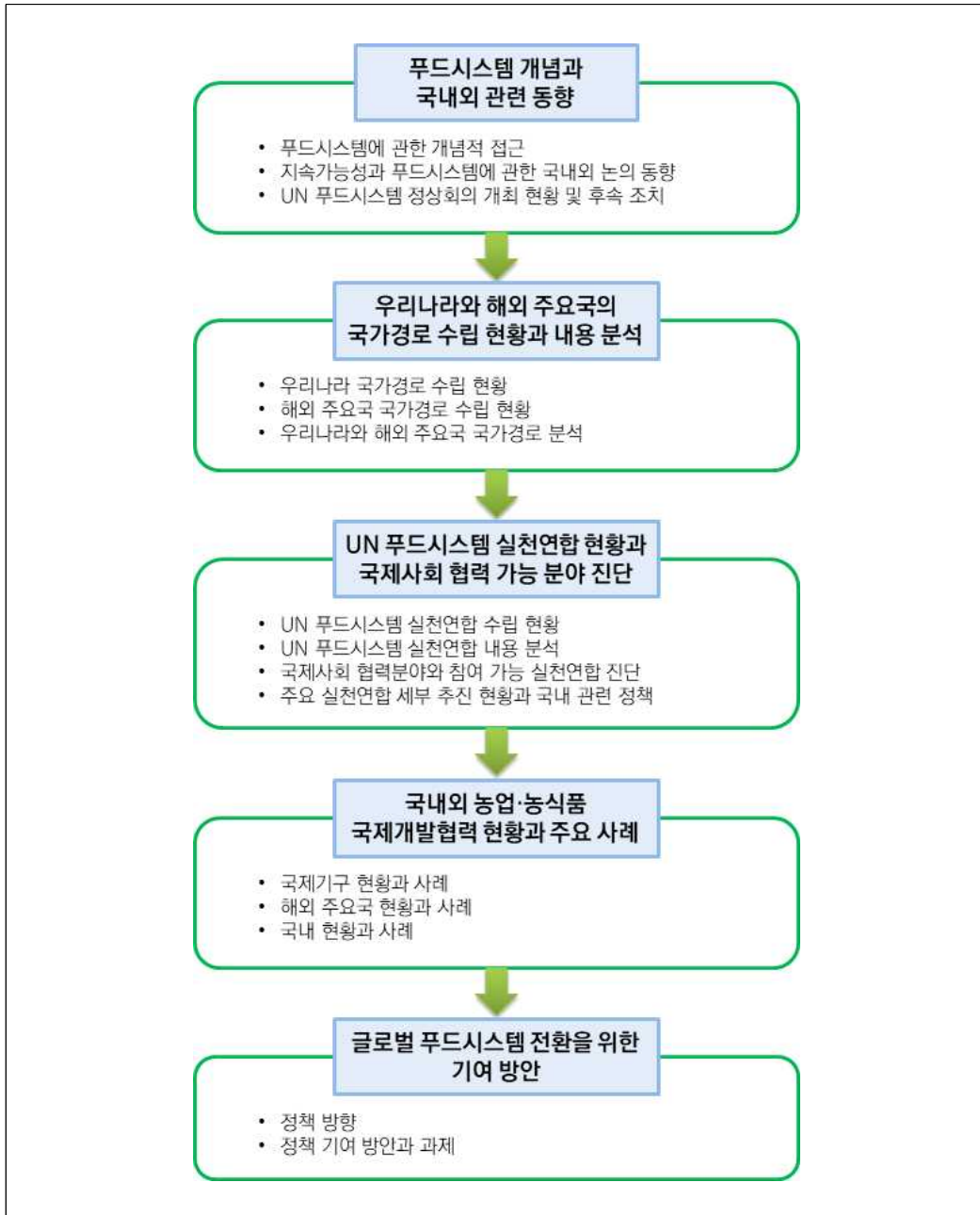
-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인 이효정 박사(E&S 컨설팅 대표) 원고 위탁

■ 발주처와 협업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과제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2

푸드시스템 개념과 국내외 관련 동향

○ 이 장에서는 푸드시스템에 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 관련한 UN과 우리나라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UN이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 세계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등을 살펴봄.

1. 푸드시스템에 관한 개념적 접근⁶⁾

1.1. 푸드시스템의 기본적 개념

○ 푸드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생산단계로부터 가공단계 및 분배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조직적 틀’ 또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⁶⁾ Braun et al.(2021), 김병률 외(2009), 황영모 외(2015), 미국 USDA 웹페이지 자료(<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definitions>, 검색일: 2022. 9. 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활동들'로 정의됨(김병률 외 2009). 황영모(2015)도 보편적인 푸드시스템의 개념은 농장(생산자)으로부터 식탁(소비자)에 이르는 먹거리의 이동을 포괄한다고 제시함.⁷⁾ 푸드시스템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들은 식품의 취급단계별 유기적 연계성에 주목하고,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흐름(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푸드시스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먹거리 이슈에 대한 푸드시스템적 접근이 강조됨. 즉 과거에는 먹거리 문제를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 등 단계별·부문별로 분절적으로 접근하였으나, 푸드시스템 개념이 등장하면서 식품 생산에서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됨.

○ 그러나 식품을 둘러싼 여건 변화 속에서 식품이 생산 이후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요인·요소들이 결부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됨. 이로 인해 먹거리 문제가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짐. 이에 따라 기존의 먹거리의 이동(흐름)에 초점을 맞춘 푸드시스템적 접근만으로는 먹거리 관련한 이슈·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됨.

- 급속한 경제, 사회 및 산업적 변화와 식품산업 발달, 유통망 확장 등 식품을 둘러싼 여건 변화 속에서 식품이 농장에서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폐기가 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짐.

○ 김병률 외(2009)는 최근의 식품 관련 이슈들은 푸드시스템 내부 주체들이 시장경제에 입각한 활동들을 넘어서 환경,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이슈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푸드시스템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예컨대, 식량안보 문제는 식품의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환경,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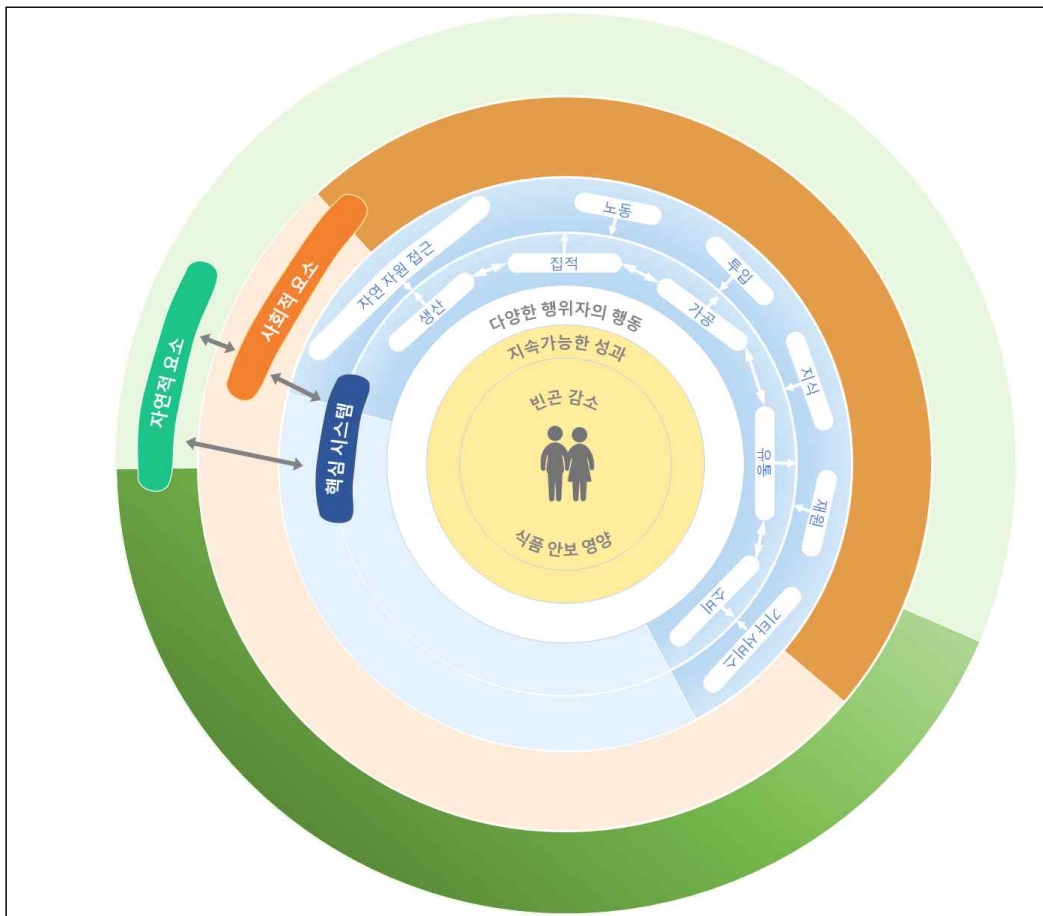
⁷⁾ 황영모 외(2015) 참조.

- 기존의 푸드시스템의 개념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식품 관련 이슈·문제들에 대한 접근하는데서 발생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는 푸드시스템의 개념이 식품의 이동(흐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이해관계자)들, 환경 및 사회적 상호관계,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요인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대표적으로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수산업 및 식품산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생산, 집하, 가공, 유통, 소비, 폐기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참여자와 상호 연결된 부가가치 활동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광범위한 경제, 사회 및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푸드시스템을 정의함.⁸⁾
 - FAO(2018)는 푸드시스템이 농업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투입재공급시스템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에너지시스템, 무역시스템, 보건시스템과 같은 다른 핵심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함.
- Braun et al.(2021)은 푸드시스템의 개념화는 시스템의 경계와 구성요소, 그리고 이들 간 상호 연관 관계와 건강, 생태, 경제 및 거버넌스, 과학 및 혁신 시스템과 같은 인접 시스템과의 상호 연관 관계도 포함한다고 제시함.
 - Braun et al.(2021)은 푸드시스템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과학과 R&D가 푸드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요소 내에서 그리고 그 요소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학과 혁신 시스템이 시스템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함.
- 이러한 푸드시스템은 특정 지역 범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글로벌, 지역권역(regional), 국가, 지역(local, 로컬) 등 다양한 지역적 범위(단위)별로 존재함. 이들 지역 범위별 푸드시스템은 푸드시스템으로서의 일부 주요 기능·특성을 공유하지만, 푸드시스템을 둘러싼 여건·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지님.⁹⁾

⁸⁾ FAO(2018) 참조.

- 특히 가장 작은 지역적 범위에 기초한 지역(local, 로컬) 푸드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입지별로 특화되어 있음.
- 예컨대, 아프리카의 농식품 순수입국의 푸드시스템과 유럽의 농식품 순수출국의 푸드시스템은 동일하지 않음. 마을 중심의 유통시스템에 기반한 서남아시아 농촌지역과 슈퍼마켓이 산재한 유럽 농촌지역의 푸드시스템이 같지 않으며, 특정 국가 내에 산재한 지역별 푸드시스템도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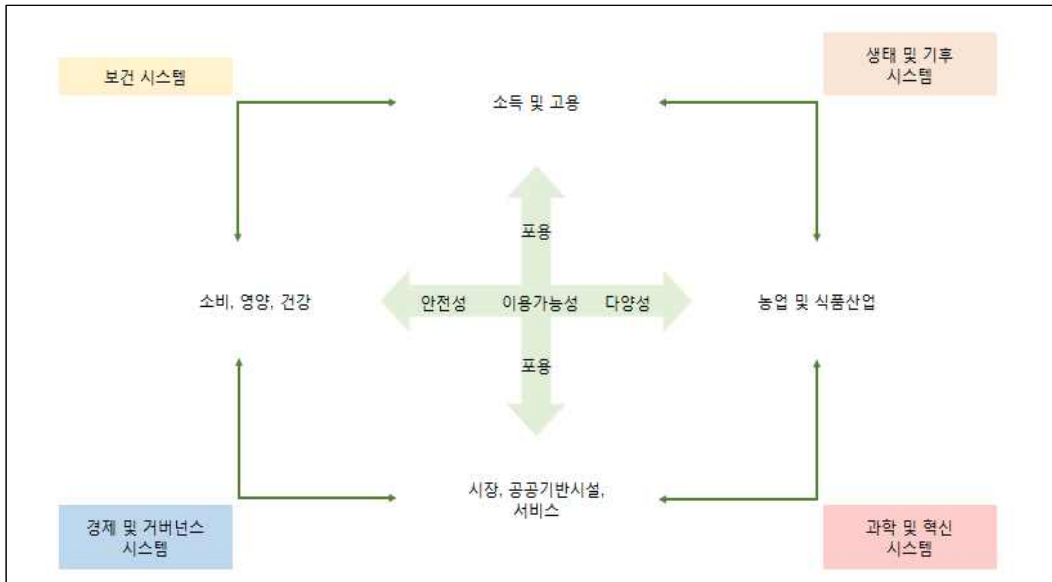
〈그림 2-1〉 푸드시스템 구성 요소



자료: FAO(2018)에서 인용.

9) 'region'과 'local'은 모두 지역으로 번역됨. 그러나 푸드시스템에 관한 UN 및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서 'regional'은 일반적으로 1개 국가를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예컨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 서유럽지역 등), 'local'은 1개 국가 내의 보다 협소한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예컨대, 완주군, 서울지역 등).

〈그림 2-2〉 푸드시스템과 연관 시스템 상관관계



자료: Braun et al.(2021) 인용.

1.2.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유지 가능성으로 요약되며 국제 비영리 연구기관인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언급된 이후 사회, 경제, 환경, 국가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¹⁰⁾¹¹⁾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발전(development)’을 결합한 개념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나, 이들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경제·사회 및 환경적 차원에서의 균형이 유지되는 발전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음.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경제성장, 사회 안전·통합, 환경보전의 균형·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¹⁰⁾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2. 9. 10.) 참조.

¹¹⁾ ‘로마클럽’은 1968년에 결성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균형, 성장에 대한 근본적 고찰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함 (황윤재 외 2018).

을 지향하는 발전의 의미로 사용됨.¹²⁾

○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적인 개념은 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1987년에 제시한 정의에 기초함. WCED는 지속가능발전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함.

○ FAO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푸드시스템에 접목하면서 지속가능성(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푸드시스템으로 확장함. FAO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이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 및 영양을 보장하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기반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제공하는 푸드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제시함.

- FAO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개념에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접목하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시함. 이밖에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사회적 지속가능성), 자연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푸드시스템에서의 사회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

○ 글로벌, 국가, 지역 등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절대적 수준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또는 정의할 수 없으며), 절대적 수준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는 않음. Braun et al.(2021)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개념에서 지속가능성이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에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으로의 상대적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전환)와 관련된 세 가지 개념-변환(transformation), 이전(transition), 진화(evolution)-이 모두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Braun et al.(2021)에 의하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들도 일반적으로 절대적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음.

¹²⁾ 지속가능발전포탈 웹사이트(<http://ncsd.go.kr>, 검색일: 2022. 9. 2.) 참조. .

- 푸드시스템에서 '변환'은 끝이 없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전'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 '진화'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함.

○ 푸드시스템이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 관련 시스템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포괄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내외부 동인(drivers)들 그리고 이러한 동인들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피드백 메커니즘, feedback mechanism)을 통해서 이루어짐.

- 외부 동인은 기후 또는 건강시스템과 같이 푸드시스템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으로, 인구 증가, 도시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습관 변화 등이 대표적임. 생물학적 변화 과정과 같은 자연적 및 진화적 측면에서의 장기간의 변화도 푸드시스템 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동인임.

- 내부 동인은 혁신의 결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같이 푸드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작용하는 힘임.

- 시장, 거래, 인프라 등은 푸드시스템 전환의 내외부 동인을 관통하는 요소이며, 정책들은 이러한 동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재정립되기도 함.

- 내외부 동인들은 농업, 식품산업, 유통업, 소비자의 수요 등에 대한 관심 및 요구와 결과물 등에 따라 움직이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내외부 동인들과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책개입이 이루어짐.

○ Braun et al.(2021)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에서 글로벌, 지역권역(regional), 국가, 지역(local) 등 지역 범위에 따른 푸드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접근 방식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상충적인 문제들 중 일부는 혁신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과 혁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함.

2.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동향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 이행 현황

2.1.1. 국제사회 논의와 SDGs 수립

○ UN은 2000년 제55차 정기총회에서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함. 이듬해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였으며, 개발 재원의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 원조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회의(high-level forum)를 개최함.¹³⁾

- MDGs는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8개의 전략목표와 21개 세부목표를 마련함.
- MDGs 8개 목표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임.¹⁴⁾
- 2011년에 제4차 고위급회의가 우리나라(부산)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서는 파리선언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함.

¹³⁾ UN의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고위급 회의: 200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원조효과성에 대한 5가지 원칙 선언
- 제2차 고위급 회의: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조효과성과 상호 책임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채택
- 제3차 고위급 회의: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원조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발표
- 제4차 고위급 회의: 2011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 정부·의회·시민사회·민간 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공식 출범

¹⁴⁾ HIV/AIDS(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d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는 감염성 질환임(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2. 10. 23.).

- MDGs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과 기아종식에 관심을 기울임.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폭 넓은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미흡하였음. UN은 이러한 MDGs의 한계를 자각하여, 개발도상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UN은 2015년에 MDGs의 목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함. UN 시스템작업반(system working group)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 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13차례의 회의 끝에 2014년에 17개의 목표가 담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보고서(이하 ‘지속가능개발의제 보고서’)를 발간함.
- UN의 지속가능개발의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됨. UN은 SDGs를 달성함으로써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고자 함.
 - SDGs는 인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으며, 193개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됨.

〈글상자 1-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1. 빈곤퇴치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종식 -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과 복지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 평등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물과 위생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지속가능한 에너지 -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불평등 완화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 생태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 육상생태계 지속가능 보호·복원 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방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평화, 정의와 제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자료: UN 웹페이지(<https://www.un.org>, 검색일: 2022. 8. 2.), 황윤재 외(2021) 참조.

2.1.2. UN의 SDGs 이행 현황 점검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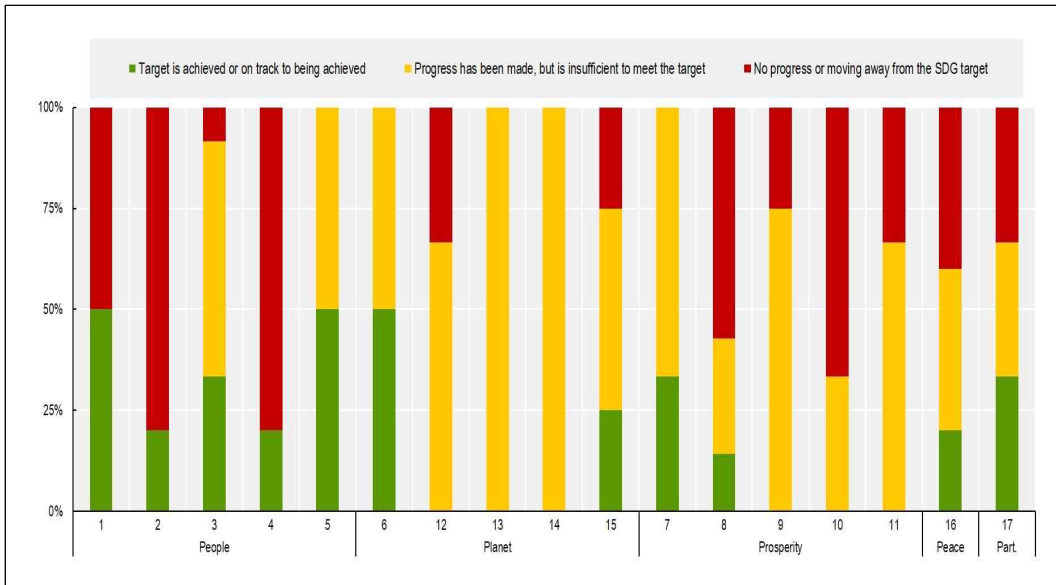
○ UN은 SDGs의 목표 연한인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SDGs 지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함(OECD, 2022).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일부 SDGs 지표는 진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표가 이행 목표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빈곤퇴치(SDG1), 기아종식(SDG2), 양질의 교육(SDG4),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불평등 감소(SDG10) 등의 지표들은 목표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었음.

- 인간의 생명유지와 존엄성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빈곤퇴치(SDG1)와 기아종식(SDG2)은 개별 SDG 목표치에서 각각 50%, 80%가 미달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단위: %



자료: OECD(2022) 참조.

○ 기후변화 대응(SDG 13), 해양생태계 보존(SDG 14)은 다른 지표에 비해 비교적 진전이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도 목표치의 약 70%를 달성하여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 12)에서 향후 달성해야 할 30%는 2030년까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UN의 SDGs 이행 현황 점검 결과는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경우 SDGs 이행 수준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농식품 관련 지표 세부 이행 현황

○ SDGs는 푸드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SDG2(‘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와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됨. UN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 SDG2는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DG12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향후 남은 목표치까지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SDG2는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8개의 세부목표와 13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이행 현황을 조사함.

- 세부목표 2.1은 식량안보 중에서도 영양결핍과 식량의 접근성을 측정함. 세부 측정 지표는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과 식량불안정 지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임. 세부목표 2.2는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과 영양불량, 세부목표 2.3은 농업의 생산성(노동 단위당 생산량)과 농가 단위의 평균 소득으로 조사됨.
- 세부목표 2.4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 면적의 비율로 정의됨. 농업이 경제활동, 생계 수단, 환경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로서 인류 발전에 기여함에 따라 2030 의제에서는 농업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부목표 2.4는 이런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의미함. 이 지표는 국가, 국제기구, 국가 통계청,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통계학자 및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됨.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생산성, 수익성, 회복력, 토지와 물, 양질의 노동 및 웰빙을 측정함.¹⁵⁾
- 이밖에 세부목표 2.5, 2.a, 2.b, 2.c 등이 생물다양성, 농업분야 생산역량 강화, 농산물 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 개선,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하여 이행 현황을 조사함.

¹⁵⁾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확정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FAO SDG 웹사이트, <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 검색일: 2022.8.25.)

○ SDG12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이중 세부목표인 SDG12.3은 식품손실 및 낭비를 감축하여 식량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SDG12.3의 세부측정지표는 식품손실지수(food loss index)와 식품낭비지수(food waste index)임.

- 식량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식량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양을 줄이는 것으로도 식량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음. 즉, 식품의 수확 후 소비자에게까지 도달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loss)과 유통과정 또는 가정 내에서 저장하는 중에 발생하는 식품의 낭비(waste)를 줄이는 것임.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번 및 12번 세부 목표와 측정지표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1.1. 영양결핍 유병률(PoU) 2.1.2. 식량불안정지수(FIES)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없앤다.	2.2.1. 5세 미만 아동 발육 부진 2.2.2. 5세 미만 영양 불량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농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 2.3.2. 소농의 평균 소득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a.1. 정부 지출의 농업 지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ODA와 다른 공식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b.1. 농업수출 보조금
2.c	식품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보장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3.a. 식품손실지수 12.3.b. 식품낭비지수

자료: UN 웹페이지(검색일: 2022.7.20.)

■ SDG2 점검 결과¹⁶⁾

○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식량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COVID-19 팬데믹과 기후변화, 경기 침체, 세계의 곡물창고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식량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전 세계 식량안보 수준이 악화됨.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는 SDG2의 달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COVID-19 팬데믹 이후 2021년에 기아에 직면한 인구가 2019년 대비 1억 5천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식량불안정 상태에 처한 인구도 거의 3억 5천만 명이 증가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적절한 식량을 정기적으로 구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아시아,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가 그 뒤를 잇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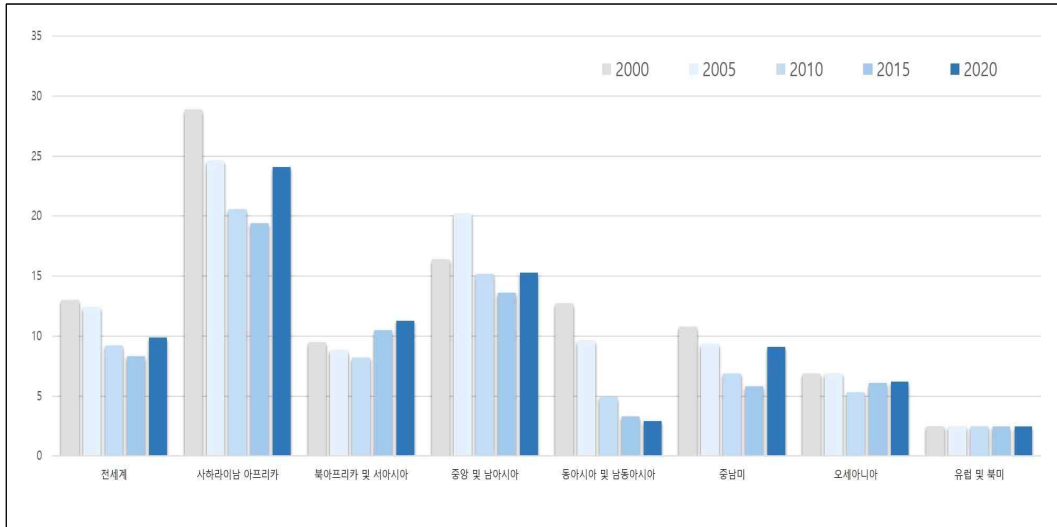
○ SDG2의 이행 현황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 중에서 특히 영양결핍 유병률(PoU)과 식량불안정 지수(FIES)가 COVID-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이들 지표 중에서 PoU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개선되고 있었으나, COVID-19 팬데믹 이후 2020년에는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영양결핍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¹⁶⁾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달성에 관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2의 핵심목표인 2.1.의 측정지표인 영양결핍 유병률(PoU)(2.1.1.)과 식량불안정지수(FIES)(2.1.2.)를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2-4〉 전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FIES) 변화추이(2000~2020)

단위: %



자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22).

○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륙별 FIES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륙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4년 이후 대체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FIES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9.3%가 식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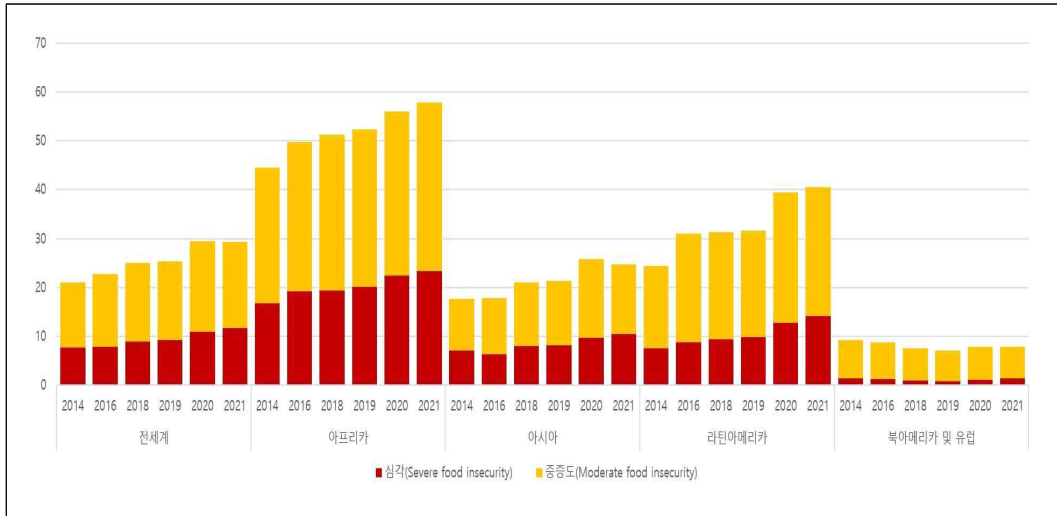
- FIES는 물리적 또는 재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한 식량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8가지 질문을 통해 수집함.17)18)
- FIES는 대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의 57.9%가 식량불안정 상태인 반면,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은 8% 이하임. 2020년 이후 특히 중남미의 식량 접근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FAO et al. 2022).

17) SDG 2.1의 측정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FAO에서는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지난 1년간의 식량 섭취와 관련한 경험을 측정하여 식량안보의 확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식량불안정 지수(FIES)라 함.

18) 질문 항목은 지난 12개월 동안 ①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한 적이 있다' ②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③ '몇 종류의 음식만 먹었다' ④ '끼니를 건너뛰어야 했다' ⑤ '기대치보다 적게 먹었다' ⑥ '가정 내에 식량이 떨어졌다' ⑦ '배가 고팠지만 먹지 못했다' ⑧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다' 등임.

〈그림 2-5〉 전 세계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수준 변화추이

단위: %



자료: FAO et al(2022).

■ SDG12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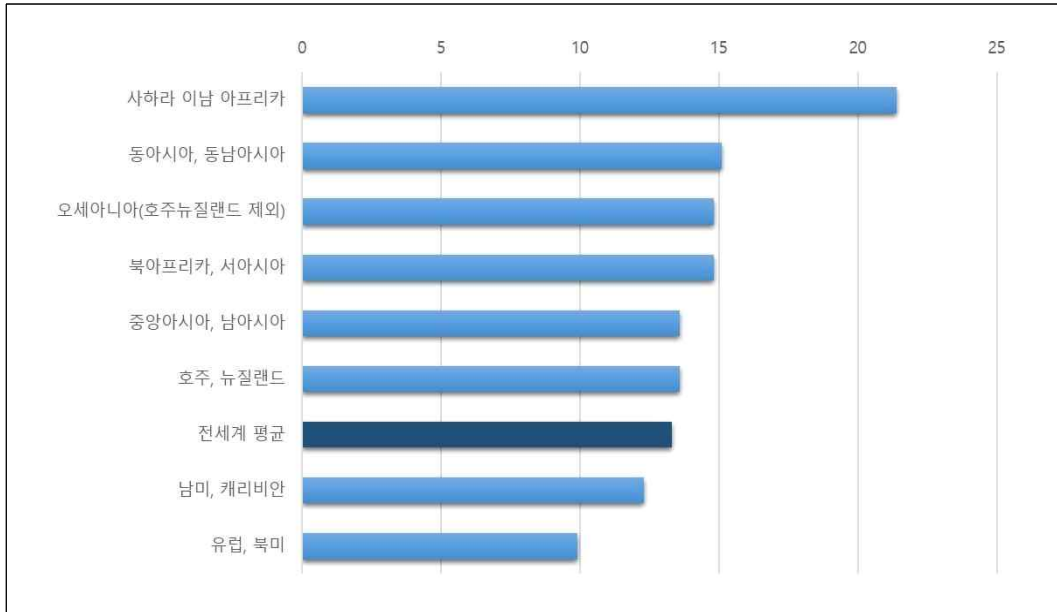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식품손실지수, food loss index), 이 지표의 전 세계 평균은 약 13.3%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손실이 농장 단위에서의 활동, 운송, 저장, 가공 및 도매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비자 단위에서는 약 17%(9억 3,100만 MT)가 가정 내에서 저장-조리 과정 중에 낭비되거나, 혹은 소매 수준에서 낭비되고 있었음(식품낭비지수, food waste index). 이는 매년 1인당 121kg에 해당하는 양임.

- 식품 손실과 낭비 수준은 대륙별·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손실은 개발도상국, 식품낭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많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식량불안정 지표가 가장 높으면서, 식품 손실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의 손실과 낭비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함. 예컨대, 식품 폐기물의 매립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그림 2-6〉 수확 후 소매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식량손실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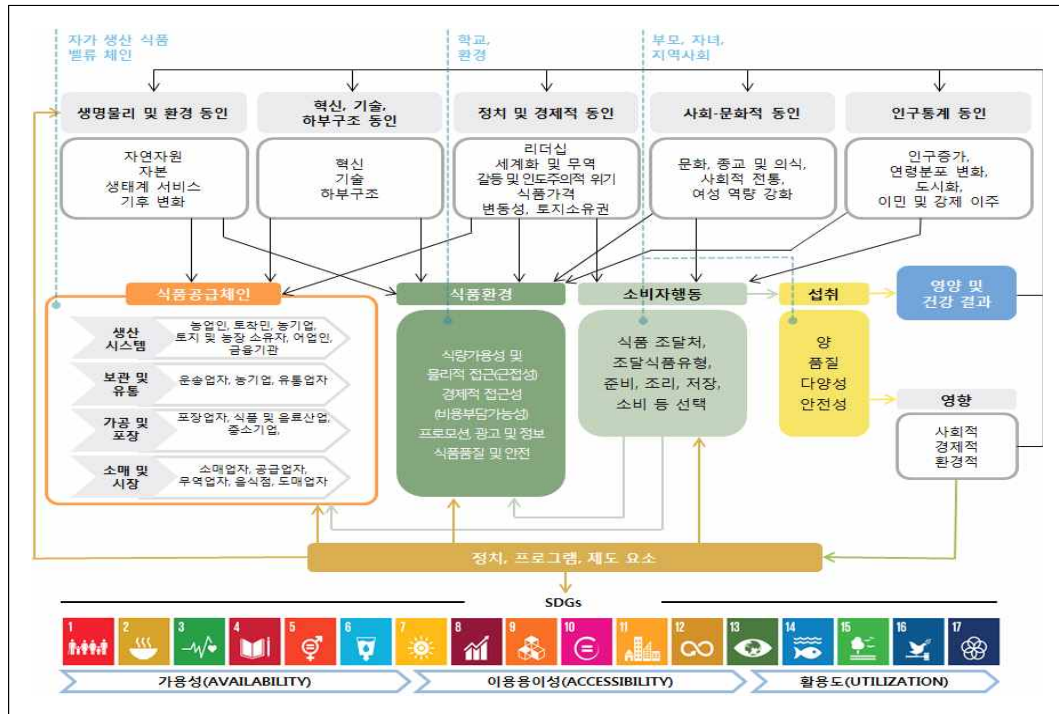
자료: FAO et al.(2022).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푸드시스템의 역할과 COVID-19의 영향

2.2.1. 지속가능발전과 푸드시스템의 연관성

○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는 SDG2(기아종식)와 SDG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임. 그러나 여타의 SDGs 목표들도 농식품 및 푸드시스템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UN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SDG2와 SDG12에 한정하지 않고 SDGs 17개 목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2-7〉 SDGs와 푸드시스템의 상호 연관관계



자료: HLPE(2017).

○ 예컨대,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SDG2(기아종식)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아 문제는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즉, SDG2를 달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량·영양 측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SDG1), 반대로 기아종식(SDG2)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함(SDG1).

○ 기아 종식과 영양 개선 등은 국내 또는 국가 간 식량 접근성 등에서의 불평등 완화 (SDG10)와 건강한 삶의 보장, 복지 증진(SDG3)과 관련되며, SDG5(성 평등)와 SDG8(양질의 일자리 경제성장), SDG9(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도 빈곤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되는 SDG2의 기아, 영양결핍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예컨대 여성은 농업 생산활동의 주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

하고, 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와 시장 접근성 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SDG5). 이러한 여성의 상대적 취약성은 SDG2의 기아, 영양 문제를 비롯하여 SDGs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이밖에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와 두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영양 결핍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SDG4(양질의 교육)의 목표 달성은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SDG2와의 연관관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5세 미만 아동이 생후 1,000일 이내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학업성취도와 두뇌발달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식량공급과 영양의 확보는 매우 중요함.

○ 확장된 푸드시스템의 개념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산업,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경제, 사회 및 자연 환경 등을 포괄함. 특히, 푸드시스템에서 생물다양성, 담수, 바다, 육지, 토양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환경시스템의 중요성이 상당함. 푸드시스템은 모든 단계에서 환경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며, 푸드시스템상의 다양한 주체·요소들이 환경시스템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따라 SDG6(물과 위생), SDG7(지속가능한 에너지), SDG13(기후변화 대응), SDG14(해양 생태계), SDG15(육상 생태계) 등의 환경과 관련된 SDGs들은 기본적으로 푸드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푸드시스템에서 전 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며(SDG6 물과 위생),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어(SDG7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푸드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푸드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식량 생산 과정에서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농업을 위한 삼림 벌채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돌이킬 수 없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SDG13, SDG15). 해양생태계에 관한 SDG14는 수산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식량불안정은 국가 간 또는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인 동시에, 분쟁의 결과이기도 함(SDG16 평화, 정의와 제도). 또한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은 푸드시스템 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목표임.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푸드시스템 연관 사례

SDGs	푸드시스템 연관 내용
1. 빈곤퇴치	전 세계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2. 기아종식	전 세계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임.
3. 건강과 복지	영양불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상당수의 인구가 미량원소 결핍 또는 과체중을 겪고 있음.
4. 양질의 교육	영양불량은 5세 미만 아동의 학업성취도, 두뇌발달에 영향을 줌.
5. 성 평등	여성은 농업 생산 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의 자원 접근성에 있어 차별받고 있음.
6. 물과 위생	푸드시스템은 전 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있음
7. 지속가능한 에너지	현대화된 푸드시스템은 전 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함.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농업은 전 세계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60%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임.
9.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전 세계 9억 명의 농촌지역 주민이 전기 접근성이 없음.
10. 불평등 완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이 지난 30년간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에서 불평등을 겪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소비시장의 변화, 토지와 자원의 이용에 대한 부담이 증대함.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음.
13. 기후변화 대응	푸드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생산성이 25% 이상 감소함.
14. 해양 생태계	어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17%를 차지하나, 이중 30%가 남획된 자원임.
15. 육상 생태계	농업은 산림 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016년 기준 3천만 ha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 중임.
16. 평화, 정의와 제도	전 세계 상당수의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서, 식량불안정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푸드시스템 전환의 결정적 요소임. 2030년까지 매년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자료: 위탁원고 내용 참조.

2.2.2. COVID-19 팬데믹의 영향과 푸드시스템 전환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국가별로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특히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각국의 식량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 안정성(stability), 효율성(utilization) 등이 제약을 받으면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게 됨.¹⁹⁾²⁰⁾

○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질병의 확산을 우려한 전 세계 국가들이 물적·인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함에 따라 국제 식량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 생산도 제약을 받게 됨. COVID-19 발생 초기에 국가별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운송 중단 및 검역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식량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됨. 이는 각국이 국가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

- 식량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 수입국들이 화물 및 상품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식량 가용성(availability)이 영향을 받게 됨.

○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식량 교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농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공급과 식량 가격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함.

- FAO(2020)는 COVID-19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인 식량가용성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임. COVID-19 팬데믹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입국이 제약을 받으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과 생산 차질 문제가 더욱 심화됨.

○ COVID-19의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됨. 이에 따라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의 제약으로 촉발된 공급 측면에서의 식량위기 의식과 식량안보 문제가

19)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 활용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 등의 4개 요소로 구성됨. 가용성(availability)은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는 상태, 접근성(access)은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에서 양질의 식품에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 활용성(utilization)은 양질의 식사, 깨끗한 물,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 안정성(stability)은 위기 상황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임(네이버 블로그 자료 참조, <https://m.blog.naver.com/soooya1105/222799891728>, 검색일: 2022. 9. 5.).

20) 식량안보의 일반적인 4개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는 구매능력(affordability), availability(공급능력), 품질 및 안전성(Quality & Safety), 자연자원 및 복원력(Natural Resources & Resilience)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측정함.

수요 측면에서 식량 구매 능력(affordability)의 저하와 식량 접근성(access)의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각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함.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증가함.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곤궁은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식량 접근성의 저하로 이어짐. 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정한 양과 품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계층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아 상태 또는 영양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한 인구가 증가함.

- COVID-19로 인해 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및 물가 급등 등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됨. 국가 및 지역사회(host community)의 취약계층 지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COVID-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공공·학교급식 등을 통한 먹거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계층 간 먹거리 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됨.

○ COVID-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각국의 경제사회적 문제와 이의 파급 영향-예컨대, 식량안보 상의 영향-은 국가 내에 한정되지 않음. 특히, COVID-19 팬데믹 와중에 비공식적이거나 임시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제도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는 것이 어려워짐. 이로 인해 의료, 사회 보호 및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착취, 빈곤, 식량불안정 등과 같은 취약한 상태에 처해지기도 함.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급감하면서 본국의 경제와 식량 및 영양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푸드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요인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 이로 인해 2030년까지 UN SDGs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게 됨.

- FAO(2020)는 COVID-19로 초래된 푸드시스템 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기존의 푸드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푸드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푸드시스템은 식품 생산, 가공, 운송 및 소비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단계·활동을 포괄하고, 건강·환경·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지역사회 및 국가 단위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짐. 이에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푸드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가 SDGs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됨.

2.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대응

2.3.1. 국제사회 대응

- UN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또한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협력·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 국제기구,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UN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 즉,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푸드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5대 실천경로(action track)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실시하도록 촉구함. 5대 실천경로는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ensure access to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all)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shift to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boost nature-positive production) ④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⑤ 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 등임.

〈글상자 2-2〉 ‘모두의 정상회의’를 위한 세 가지 논의 체계

- 글로벌·국내·독립 논의는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푸드시스템을 점검하고,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향후 취해야 할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정상회의에 앞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관하여 논의
-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사무국이 타 국제기구와 공동 주관하고 회원국·국제기구·민간 등이 참여
-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UN이 제시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개인·단체 누구나 주관하고 논의 결과를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재

자료: 황윤재 외(2021) 참조.

○ UN과 기타 국제기구는 5대 실천경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논의를 가졌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인·생산자단체, 원주민(토착민) 등 다양한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독립 논의가 실시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부 주관 하에 국내 논의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2021년 초반부터 5대 실천경로(action track)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과 관련 단체·기관들이 참여하여 국내 논의를 실시함.

- UN은 정부 차원에서 의장을 선정하여 국내 논의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함.
-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내 논의를 추진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을 국내 논의 의장으로 선정하고 2021년 3월에 1차 국내 논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6월까지 총 5차례의 국내 논의를 진행함.

○ 국제기구 및 국가별 논의 등을 통해 수립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사전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Pre-Summit), 2021년 9월에는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가 개최됨.

2.3.2. 국내 대응

- UN이 SDGs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면서, 국제기구,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함.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내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SDGs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마련함. K-SDGs는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를 포함하여 17개 분야, 122개 세부 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됨.
- 17개 분야 중에서 푸드시스템과 직접 관련된 목표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와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임. 목표 2와 목표 12는 각각 5개 세부 목표와 11개 세부 목표를 포함하며, 목표 2는 농림축산식품부, 목표 12는 환경부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을 주도하는 담당 부서임.

〈표 2-3〉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푸드시스템 관련 목표

구분	세부 목표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2-3.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자료: 지속가능발전 포털 홈페이지(<http://ncsd.go.kr>, 검색일: 2022. 8. 27.) 참조.

○ UN의 SDGs에 대응하는 K-SDGs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먹거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 계획의 수립을 추진함.²¹⁾

-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와 대통령 직속 농업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 최근의 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는 농업·농식품 등 푸드시스템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UN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 논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 9월 정상회의 이전까지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함.

○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계획인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고,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이를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로 발표함. 최근에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UN과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국내 대응과 해외 기여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차원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각종 논의와 움직임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함.
- COVID-19로 인해 식량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식량안보 확보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명칭을 '국가식량계획'으로 변경하고 COVID-19 이후의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도 반영함.

²¹⁾ 국가 및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계획은 정책 추진 초기에는 각각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으로도 불림.

3.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현황 및 후속 조치

3.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우리 정부 대응 현황

3.1.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내용

가) 사전 정상회의

○ 사전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Pre-Summit)는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사전 정상회의는 회원국·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정상회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표 2-4〉 UN 사전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논의 주제

일자	한국시간	일정(주요 논의 주제)				
7.26. (월)	16:00~18:00	◦ 개회식				
	18:30~21:20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연설 농생태학	
		- 과학·혁신	- 기아종식 및 영양	- 식량, 기후, 생물다양성		
	22:00~24:00	◦ 기념식				
24:30~02:20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연설 (계속)		
	- 토크쇼	- 청년	- 생산자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푸드시스템과 영양 (CFS지침)	- 연구			
7.27. (화)	16:00~17:50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연설 (계속)	
			- 금융 혁신	양성평등 여성 인권		
	18:30~20:30	건강한 음식	공평한 생계	복원력		
	22:00~24:00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민간부문	시민사회		
- SMEs			- 향토 푸드시스템			
24:30~02:20	- 후속조치	G20 연계	자금 동원			
		푸드시스템 생계·임금	지역			
7.28. (수)	16:00~18:00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 각료급 연설 (계속)	
		도시·지역 푸드시스템	학교급식			
			블루 푸드			
	18:30~20:30	◦ 종합 회의				
22:00~24:00	◦ 폐회식					

자료:황윤재 외(2021) 재인용.

○ 정상회의는 COVID-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UN 193개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단체, 농업인, 농식품 업계 등이 참석함. 각료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연설과 푸드시스템 관련 핵심적인 28개 주제별 논의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간 논의한 아이디어, 계획 등을 공유함.

○ 사전 정상회의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각국이 인식을 같이함. 또한 소농·여성·청년·토착민(indigenous people)의 식량·토지·금융 접근성 제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 및 인권, 협력구조(거버넌스)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

나) 정상회의

○ 사전 정상회의에 이어 제76차 UN 총회 고위급 주간인 2021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가 개최됨.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기구, 회원국 등이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별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commitments)을 서로 공유하고, UN 차원의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함.

- 150여개 UN 회원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UN 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함.

〈표 2-5〉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주요 일정

	뉴욕시간 (한국시간)	주요 내용
9.23.	09:00-11:00 (22:00-24:00)	이해관계자 총회(People's Plenary)
	11:30-12:30 (24:30-01:30)	개회(사무총장 발언 등)
	13:00-16:45 (02:00-05:45)	국가 발언, 이해관계자 발언
	17:00-18:00 (06:00-07:00)	국제기구 발언(후속조치 등)
	18:00-22:00 (07:00-11:00)	국가 발언
9.24.	09:00-13:00 (22:00-02:00)	국가 발언, 폐회

자료:황윤재 외(2021) 재인용.

- 각국은 국가별 이해관계자 논의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를 UN에 제출함. 또한 UN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농업생태, 블루푸드 등 푸드시스템의 다양한 영역·분야와 관련된 실천방안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여 발표하였으며, 2023년에는 UN 사무총장 주재로 국가 간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3.1.2. 우리 정부 정상회의 대응 현황

가) 국내 논의 개최

- UN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국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내 논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개최함.
 - 정부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UN의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이와 관련된 국내 논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국내 논의는 UN이 제시한 5대 실천경로를 바탕으로 2021년 3월 30일에 1차 논의를 개최한 이후 2021년 6월 1일에 개최한 5차 논의를 마지막으로 총 5차례 개최됨. 푸드시스템 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논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 UN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 5차례의 국내 논의에 연령,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
- 제1차 국내 논의(2021. 3. 30)에서는 국내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2차 국내 논의(2021. 4. 21)는 ‘식량안보’, 제3차 국내 논의(2021. 4. 28)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제4차 국내 논의(2021. 5. 7.)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세부 주제로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마지막으로 제5차 국내 논의(2021. 6. 1)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이 이루어짐

〈표 2-6〉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제1~5차 국내 논의 참석자 요약

국내 논의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총 참석 인원	19	19	27	21	22	108
연령대						
30세 이하	2	2	1	2	2	9
31~50세	10	13	18	12	12	65
51세 이상	7	4	8	7	8	34
성별						
남성	9	13	19	13	15	69
여성	10	6	8	8	7	39
분야						
농업생산	3	2	2	2	4	13
환경 및 생태	1	1	3	0	3	8
무역 및 통상	2	5	3	2	2	14
교육·연구	6	4	7	10	5	32
식품산업	3	1	3	1	2	10
중앙 및 지방 정부	4	6	9	6	6	31

자료: 황윤재 외(2021) 재인용.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국내 푸드시스템 구축과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5차례의 국내 논의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체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2021년 9월)을 수립함. 또한 이러한 국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2021년 7월 26일~28일, 이탈리아 로마)와 정상회의(2021. 9. 23~24, 미국 뉴욕)에 참여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 대응과 2021년에 3월에 앞서 수립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국가식량계획’, 그리고 국내 논의 결과를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가식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함.²²⁾

2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먹거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COVID-19 이후의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보장 문제가 중요해지는 등의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3월에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함.

나) 사전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참여

- 우리나라는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에서 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푸드시스템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위기에 대비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에 맞도록 ‘국가식량계획’과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하고 원활한 무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전환, 스마트농어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제안함.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방안(‘국가경로’)으로 소개함. 또한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 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함.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향후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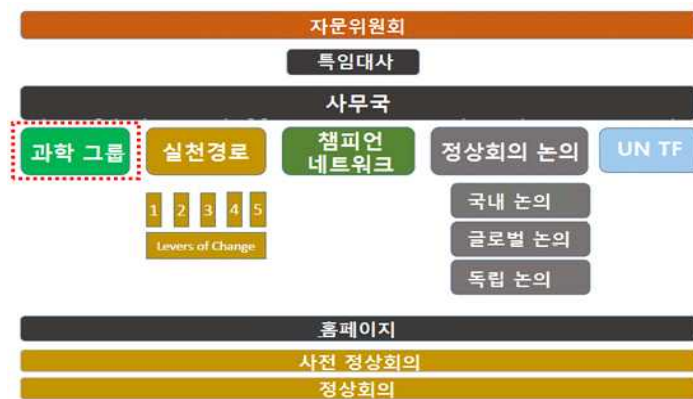
3.2. UN 푸드시스템 과학그룹((Scientific Group) 운영

- UN은 기아, 불평등, 빈곤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과 병충해,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위기를 증가시키는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SDGs를 수립함.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푸드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객

관적 자료, 과학 및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UN은 정상회의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조치와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증거 기반 과학적 접근 방식(evidence-based and scientific approach)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상회의에 앞서 전 세계의 선도적인 연구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과학그룹(Scientific Group)을 마련함.²³⁾

〈그림 2-8〉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추진 체계와 과학그룹 위상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8. 21.); 국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8. 21.).

- 과학그룹은 전문성, 분야 및 지역 등을 고려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상회의의 개최와 정상회의 결과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과학그룹의 주요 권한·임무는 다음과 같음.

- (증거 기반) 높은 수준의 과학을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지식 기반을 존중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 실시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실천경로에 참여) 증거에 기반한 경로를 형성하는 연구에 전문

²³⁾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 자료(<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8. 22.) 참조.

지식을 가지고 참여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에 과학 접목) 과학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수준 논의에 과학 도입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아젠다에 기여) 정상회의 의제 및 정상회의 이후 후속 조치에 기여(결과물: 증거기반 정책 옵션)

○ UN 과학그룹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아종식과 건강한 식사 및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혁신
- 푸드시스템의 위험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특히, 기후증립, 기후긍정 및 기후 회복적인 푸드시스템)
- 효율적이고 공정한 토지, 신용 및 노동과 여성 및 청년의 포용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혁신
- 사람들의 건강, 시스템의 생산성 및 생태적 웰빙을 위한 생명과학 혁신
- 생산적인 토양, 토지 및 물을 위한, 그리고 농업 유전자 기반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술 기반 및 정책 혁신
- 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업, 연안 지역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기반 혁신
- 푸드시스템 및 농촌 지역사회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및 엔지니어링

○ 또한 과학그룹은 푸드시스템 혁신을 위한 과학 정책과 관련하여 ① 장기적 관점에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보다 강력한 과학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②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 연구에 관한 정책이 국가 발전 정책에 통합되어야 하고, 국가별로 자체적인 푸드시스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하며 ③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증거에 기반한 실천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새롭고, 포괄적인 글로벌 과학 정책 인터페이스(Science-Policy Interface: ISP)에 관한 옵션들을 탐색해야 한다고 제시함.

3.3. 실천경로 수립과 실천연합 마련

3.3.1. 푸드시스템 실천경로와 실천분야²⁴⁾

○ 실천경로(action track)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행동과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상호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5대 실천경로가 제시됨.

- 각각의 실천경로는 다른 실천경로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광범위한 이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됨.
- 실천경로를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 푸드시스템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인권, 금융, 혁신, 여성 및 청년들 권한 확대 등과 같은 주요한 변화의 지렛대들이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고자 함.

○ UN이 제시한 5대 실천경로는 다음과 같음.

- 실천경로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ensure access to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all)
- 실천경로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shift to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 실천경로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boost nature-positive production)
- 실천경로4: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 실천경로5: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

²⁴⁾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8.29.) 참조.

○ UN은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 실천경로(action track)를 구체화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렴 하였으며, 그 결과 5대 실천경로와 1개 교차영역(cross cutting)에 걸쳐서 총 15개의 실천분야(action area)가 도출됨.²⁵⁾

〈표 2-7〉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실천경로별 실천분야

실천경로	실천분야
실천경로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실천분야1.1 식량안보 증진 및 기아 감소 (promote food security and reduce hunger)
	실천분야1.2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improve access to nutritious foods)
	실천분야1.3 식품 안전성 향상 (making food safer)
실천경로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실천분야2.1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격려 및 동기 부여 (enabling, inspiring and motivating people to enjoy healthy and sustainable options)
	실천분야2.2 식품손실과 폐기를 줄이고 순환 경제로 전환 (slashing food loss and waste and transitioning to circular economy)
실천경로3 중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실천분야3.1 자연생태계 보호 (protect natural ecosystems)
	실천분야3.2 지속가능하게 현재의 푸드생산시스템 관리 (managing sustainably existing food production systems)
	실천분야3.3 악화된 생태계 복원 (restore degraded ecosystems)
실천경로4 평등한 생계 가치 배분 촉진	실천분야4.1 푸드시스템 내에서 역할 재조정 (rebalancing agency within food systems)
	실천분야4.2 노동자 착취를 없애고 푸드시스템에서 양질의 일 보장 (elimination worker exploitation and ensuring decent work in food systems)
	실천분야4.3 푸드시스템 지역화 (localization food systems)
실천경로5 취약계층 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실천분야5.1 푸드시스템 탄력성 (food systems resilience)
	실천분야5.2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보편적 식량 접근 (universal food access to build resilience)
	실천분야5.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후 탄력적인 개발 경로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to food system transformation)
교차 영역	실천분야6.1 거버넌스(governance)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25) 실천분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를 참조함(<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18.).

가) 실천경로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 무역, 도시화, 빈곤 등으로 기아,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은 식량손실과 폐기로 낭비됨. UN SDGs의 목표 이행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영양 목표와 SDG2(기아종식)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및 푸드시스템 상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영양 문제가 더욱 악화됨.

- UN SDGs 중에서 SDG2(기아종식)는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UN은 푸드시스템을 통해 기아, 식량안보 및 영양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SDG2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경로1을 제시함. 즉, 실천경로1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하고, 비전염성 질병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UN은 실천경로1의 목표 달성이 다른 실천경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가용성 증가, 식품 구매력 향상과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실천경로1을 달성하기 위해 ① 정책, 연구, 모니터링, 평가의 통합적 접근법 채택 ② 토양 탄소격리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적용 ③ 식품손실 및 폐기 감축 ④ 영양 과다 및 결핍을 조절하는 식생활 변화 주도 등 기아종식, 영양가 있는 식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포함됨.

○ 실천경로1을 달성하기 위해 3개 실천분야와 이들 실천분야를 교차하는 교차영역(cross cutting)이 제시됨. 이중 실천분야1.1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충분한 양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아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증진·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춤.

- 실천분야1.1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농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제고하고, 농업에서 청년들의 권한을 확대하며, 식량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포함함.

○ 실천분야1.2는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와 비전염성 질병의 발병을 줄여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부담 가능성, 가용성, 편의성 측면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마지막으로 실천분야1.3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안전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실천 사항을 제시함.

- 실천분야1.3은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유래 질병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2-8〉 실천경로1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실천경로1(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실천분야1.1 식량안보 증진 및 기아 감소	1차 혁신 제안	1.01 '2030 기아종식 기금'(2030 End Hunger Fund) 구축
		1.02 정밀농업회사가 저소득 소농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민간 파트너십 구축
		1.03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1.04 농식품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기관에 촉매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 기부자 자금 조달 시설 마련 - 또는 푸드시스템(영양, 지속가능성, 회복력 및 형평성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행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능력 지원
		1.05 청정 에너지
		3.17 산림기반 식품의 생산을 통해 보다 건강한 식품 섭취와 토지 복원
	1.16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하는 생물 강화 작물(biofortified crops) 확대	
	2차 혁신 제안	122 토양건강에 투자하여 소농의 기아 감소
		123 종자정책 및 관행농법에서 작물다양성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 우선
		124 태양열 에너지 관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촉진
		125 기계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농업 생산성 및 형평성 증대
		127 식량이 불안정한 취약농들을 위해 보다 저렴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작물 제공
		128 지수기반 가뭄위험 금융 솔루션을 통해 축산농의 위험 완충 작용
		129 영양 관련 농촌역량강화(agriculture extension service, 농촌지도)를 통해 농촌지역의 체계적 푸드시스템 변화 지원
		130 아프리카 농업 청년 연합 발족
		133 건강한 식품섭취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기준과 안전망 설정
136 소비자 수준 보조금을 통해 과일 및 채소 소비 증가		
실천분야1.2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1차 혁신 제안	1.06 고도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콜드체인을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노력 착수
		1.07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투자 및 운영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 파트너십 매커니즘 구축
		1.10 영양 관련 목적이 분명하며, 자연 친화적인 식품 생산을 하는 혁신가, 소규모 여성 기업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기업이 영양가 있지만 소외된 작물을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
		1.11 영양을 고려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마련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1.13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가상 영양 식품 혁신 허브 구축 - 중소기업에 자원, 도구 및 기타 지원을 함으로써 편리하고, 준비가 쉬운 영양가 있는 식품을 시험, 출시 및 확장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상 글로벌 허브
		1.15 빈혈 동맹(Anaemia Alliance) 종료
		1.21 민간부분 변화를 주도하고 푸드시스템 기업에게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로운 표준 및 법적 프레임 워크 개발
	2차 혁신 제안	134 행동과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낭비 방지·처리 재정립
		135 체계적인 분석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영유아 식품섭취 개선
		137 대규모 필수식품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을 개선하여 미량 영양소 가치사슬 현대화
		7.3. 주곡 다양화
실천분야1.3 식품 안전성 향상	1차 혁신 제안	1.17 새로운 글로벌식품안전지수 개발
		1.18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글로벌 동맹 마련
		1.19 식품안전도구 마련 - 적절한 정보, 교육자료, 평가가이드, 모니터링가이드, 개입옵션,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료 등을 통해 식품안전 개선을 포괄적으로 다룰 도구
	2차 혁신 제안	141 식품안전위험관리 및 소비자 참여 개선을 위한 공동 자금 저비용 솔루션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혁신 시설 출범
		142 글로벌식품안전지표를 통한 식품안전의 동기부여 및 진행 상황 측정
		143 글로벌 푸드시스템 데이터 컨소시엄 출범
		144 지속가능하고 표용적인 가축 부문을 위한 국가개발계획 개발
교차영역	145 푸드시스템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실질비용 회계 강화 및 주류화	
	146 외부효과의 비용을 식품에 대한 실질가격(True Price)에 통합	
	9.1 식품의 환경 및 영양적 영향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모범사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발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나) 실천경로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 푸드시스템에서 식품으로 인해 각종 건강·영양 문제와 생물다양성 감소, 온실가스 증가, 토양·수질 악화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 식품은 환경 파괴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토양 손실, 가뭄과 홍수 증가, 기타 기상이변 등으로 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식품폐기, 고열량 식생활, 자원 집약적 식품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식품소비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실천경로2는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가치사슬을 강화하며, 영양을 개선하고, 식품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소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과 유통

(운송) 과정에서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보다 더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실천경로2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 ① 공공조달, 물류·유통 등 식품공급망 ② 식품성분 조정 ③ 1인분 용량 변경 ④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⑤ 제품디자인 포장 용기 전환 ⑥ 도시-농촌의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됨.

○ 실천경로2와 관련하여 2개 실천분야가 제시됨. 실천분야2.1에서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책, 식품환경 및 마케팅과 관련한 작업을 하고자 함. 실천분야2.2에서는 국가, 기업 및 시민이 식품손실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고 협력하도록 참여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자 함.

〈표 2-9〉 실천경로2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실천경로2(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실천분야2.1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격려 및 동기 부여	1차 혁신 제안	2.3 재정정책 -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식품 환경을 지원하는 경제적 조치(특정식품에 대한 세금, 탄소발자국 관련 세금, 건강식품에 대한 보조금,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이전 등)
		2.4 교육 - 커리큘럼, 학교급식, 지역사회 정보 캠페인 등을 포함하는 교육 전략
		2.8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영양 및 환경 표시
		2.9 직장, 의료시스템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모유수유 친화적 환경 보장 - 교육, 모유대체품에 대한 국제 마케팅 규정 준수, 보건종사자 교육, 유아 친화적 공공장소 및 작업환경, 산모에 대한 적절한 영양 및 지원 등 포함
		2.10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보다 건강한 식품섭취로 소비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한 모범사례들을 결합한 패키지
		2.16 식품기반식사지침(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BDGs) - 공공조달, 학교급식, 재정정책 등의 관련 공공정책에도 적용
		1.12 모든 국가에서 포괄적 학교급식 프로그램 시행 - 기존 지식, 자립, 구조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류 및 기술 자문 네트워크 육성
		1.14 보다 건강한 식품환경 정책을 위한 글로벌 논의 촉진 - 모든 국가에서 효과적인 건강식품환경정책을 표준으로 만드는데 초점
		2.19 웹기반 도구를 통해 아동의 식생활 및 영양에 관한 교육과 상황을 질적으로 개선, 교육과정에 식생활에 관한 내용 포함, 학교급식 제공
		1.08 공정한 식품마케팅을 위한 푸드시스템 변화 장려
	4.11 주요 소매유통체인의 지역산 구매 약정	
	2차 혁신	1.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수요 창출
		1.2 육류의 남성성 이미지에 대한 도전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제안	- 육류와 바람직한 남성성 간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대중 소통 캠페인
		1.3.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에서 건강한 식품섭취에 관한 소비자 정보의 미래 극대화
		- 영양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접근가능한 정보
		1.4 더 나은 공공부문 마케팅에 대한 투자
		5.2 나트륨과 설탕을 줄이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가공식품 개혁
		5.3 모든 식품 및 영양정책에서 적절한 수준의 식품가격 강조
		8.1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조용한 팬데믹
		8.2 항생제 내성(AMR) 퇴치를 위한 공동 조치
실천분야2.2 식품손실과 폐기를 줄이고 순환 경제로 전환	1차 혁신 제안	[AT3]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출현 방지
		2.11 Food is Never Waste: 보다 순환적인 푸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입
		- 음식물쓰레기 분리 의무화, 음식물 기부 인센티브, 업체별 음식물쓰레기 측정 의무화, 음식물쓰레기 매립 및 소각 과세 또는 금지 등
		2.12 15×15×30: 150개국에 2030년까지 식품 손실과 폐기를 50% 줄이기 위한 국가 민관 파트너십 및 캠페인 착수
		- 식품손실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입증된 국가 민관 협력 접근 방식 확대
		- 식품손실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 개발, 국민 인식 캠페인 착수, 식품회사 대상 "목표-조치"법(Target-Measure Act) 사용, 솔루션 제공업체와 금융 연결,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2.13 문화적으로 관련된 행동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2.14 전 세계 식품 손실 감소-2025년까지 영향이 큰 상품의 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 1조 달러 투자
- 농장 및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 추진		
3.13 농장 및 수확 후 식품 손실 감소		
- 주요 글로벌 상품(쉽게 부패하거나 부패하지 않는 상품 모두)에 대한 농장 및 수확 후 손실 감소		
5.1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곡물 저장고에 의해 제공되는 수확-임차 권한		

주: One Health는 최적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학문의 총체적 노력을 의미함.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다) 실천경로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 현재의 푸드시스템이 자연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 건강 및 경제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SDGs 달성 능력이 제한되고 있음. 자연친화적인 식품 생산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음.

- 푸드시스템으로 초래되는 환경, 건강 및 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12조 달러로 추산되며, 2050년까지 연간 16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약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낭비가 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인구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며, 식량 생산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푸드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실천경로3은 식품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환경자원 이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물 사용, 토양 악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를 위해 소규모 농가 및 기업이 직면하는 제약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며, 식품손실 및 기타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재조정하는 푸드시스템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주요 논의 사항으로 ① 지역단위 생산, 도시농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② 농가, 농업전문가, 학계 등 지식개발 참여·강화 ③ 천연비료, 식물보호제, 질소고정생물 등 친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지식·혁신 활성화 ④ 참여자 인증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참여 보증제도(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등 농촌지역의 권한 부여와 농가 간 협력 도모 ⑤ 사회적 기업·공정무역·협동조합 등에 대한 순환/연대경제 등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⑥ 친환경 식품생산의 마케팅, 가공시설 개선 등을 포함함.

○ 실천경로3과 관련하여 3개 실천분야를 제시함. 실천분야3.1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 및 사료 생산을 위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과 수단이 제안됨.

- 실천분야3.1은 농업보조금 및 기타 농식품 자원의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사회적 안전장치, 새로운 입법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발,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토지, 물 및 유전자 자원 등에 대한 접근권 확보(특히 농촌 여성의 권리)를 위해 토착민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역 등을 핵심 작업 영역으로 함.

○ 실천분야3.2에서는 지속가능하게 현존하는 식품 생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농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자연친화적인 상황별 해결책을 설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실천분야 3.2에서는 디지털 농업에서 전통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자연 친화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농어업 생산자들이 자신의 지역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연친화적인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실천분야3.3은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

〈표 2-10〉 실천경로3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실천경로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실천분야3.1 자연생태계 보호	1차 혁신 제안	3.1 정책 개혁과 공공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3.2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자연을 보호·복원하기 위해 재화 공급망 혁신
		3.4 글로벌 농식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최소 환경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Codex Planetarius’ 개발 - ‘Codex Planetarius’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족 기준인 환경 표준 프레임 워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각국은 생물다양성, 토양건강, 수질 및 대기질, 농약 독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생산 기준에 대한 합의 도달
		3.5. 사유 농지의 수변 완충지대를 보호(및 복원)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실천분야3.2 지속가능하게 현재의 푸드생산 시스템 관리	1차 혁신 제안	2.15 일자리 창출과 생계 확보, 기후변화 완화, 건강 개선을 위한 축산 전환
		3.6 기후, 자연 및 사람을 위한 농업 혁신 변화
		3.7 자연 친화적인 축산 시스템 채택
		3.8 회복력 있는 경관을 위한 재생농업 관행 대규모 채택
		3.9 농업 생태 생산 시스템 확장
		4.08 소농과 토착민 커뮤니티를 위한 농생태학적 가치사슬 촉진
		3.10 자연, 영양 및 회복력을 위한 농산물 다양성 증대
		3.11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블루푸드 생산시스템 지속 및 확장
		3.14 토착민 푸드시스템: 보전과 생물중심적 복원
		3.15 200만 달러 기후스마트 시스템 영양 투자 펀드
	3.16 푸드시스템 상의 보이지 않는 수중 문제 해결: 블루푸드 혁명	
	5.16 농장과 방목지 내에서 농생태학의 광범위한 채택 촉진	
	2차 혁신 제안	4.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
		4.3 여성의 토지 소유권
		4.4 푸드시스템 경관 금융 혁신 허브
		[AT2] 7.2 책임감 있는 육류 소비를 위한 소비자 주도 가치 사슬 프레임워크(The Responsible Meat(ReMI) initiative)
6.2 자연친화적 생산과 소액보험 통합		
6.3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		
6.4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촉진 시설		
[AT2] 3.1 식량안보 Kitemark		
실천분야3.3 약화된 생태계 복원	1차 혁신 제안	3.18 광범위한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관목지 및 사바나 복원
		3.19 향상된 복원 모니터링 및 투자 안내 데이터
		3.22 토양투자허브
	2차 혁신 제안	3.23 토양건강 및 탄소격리(배출탄소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축
		10.2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간과 야생 생태계 간 갈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잘 관리하도록 함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라) 실천경로4: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경제, 사회, 환경적 불평등과 불균형이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생계를 제공하는 푸드시스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기반시설 부족,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실패,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제약 등이 평등한 생계와 가치 배분을 어렵게 함. 또한 가정, 지역사회 또는 국가 간 기후 변화, 환경 악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측면에서의 환경 불평등·불균형과 기타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 푸드시스템 내에서 여성, 청년, 원주민 등을 소외시키는 인종, 성별, 나이 등에 기초한 차별적 규범·관행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평등한 생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

- 전 세계 극빈층의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영세·중소 생산자 또는 영세·중소 기업 종사자로서 푸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이들 중 상당 비중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며, 농업자산, 자연 자원 및 소득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소유권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지 않음.
- COVID-19 팬데믹은 여성 및 소외 계층에 미치는 푸드시스템 상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킴.

○ 이에 따라 실천경로4는 식품가치사슬 상의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고, 최빈곤층의 위기를 완화하며, 기업이 정신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과 가치 배분의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빈곤 종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사회보호를 통해 회복력을 개선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푸드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함.

- ① 평등한 고용기회 ② 농촌 여성 농업인·소수민족 등 푸드시스템 상의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함.

○ 실천경로4와 관련하여 3개 실천분야가 제시됨. 이중 실천분야4.1은 평등, 생계에 대한 접근, 참여 확대와 소외계층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집중함. 즉, 실천분야4.1은 제도 및 환경적 요인과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푸드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제약들을 해결하고자 함.

○ 실천분야4.2는 모든 푸드시스템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경제 및 사회적 정의, 적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농식품 분야에서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고용 기회 증가 등을 장

려하는 것에 의해 평등한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실천분야4.3에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식품 섭취를 개선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며, 지역민의 생계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대처하고자 함.

- 실천분야4.3은 지역의 식품 가공, 농업 관광, 지역 사회 서비스 등과 같은 농장 외부 및 비농장 활동도 모두 포함함.

〈표 2-11〉 실천경로4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실천경로4(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실천분야4.1 푸드시스템 내에서 역할 재조정	1차 혁신 제안
	4.04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 취약 소외계층의 토지권을 존중, 보호 및 강화하여 토지 사용과 통제를 발달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안정적 푸드시스템 구축
	4.06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논의 메커니즘을 구축 또는 개선
	4.07 농식품 부문에서 조직 강화 - 농촌노동자 조직 설립 성장·기능 지원, 협동조합 및 기타 농민 조합의 역량 구축 및 생산자 권한 부여 등
	4.10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푸드시스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4.15 자원(토지, 투입재, 물, 자문 서비스 등), 금융, 자본, 시장, 기술 및 가격의 공정한 공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관계 변경
	4.17 농민 현장 및 비즈니스 스쿨 - 농업인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시장에 접근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유익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여성 중심 교육 및 역량강화
	4.19 푸드시스템 내의 평등과 정의를 위한 젠더 전환적 접근법(Gender Transformative Approach: GTA)의 체계적 통합
	2.6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주도형 이니셔티브 활성화
	2.17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비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계획 수립
	3.3 토착민 및 부족민의 영토 관리에 대한 권리 강화
	2차 혁신 제안
	S.1 학교기반 농업교육을 통한 여성, 소농 및 청년 역량 강화
	S.2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비 패턴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S.3 강제적 난민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생계에 대한 접근성 보장
	S.4 토착민 푸드시스템 트러스트(Trust)
S.5 푸드시스템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토착민 기관 강화	
S.6 푸드시스템에서 여성 권한 측정	
S.7 푸드시스템에서의 사회적 책임, 형평성 및 권리 실현 개선을 위한 CSC(커뮤니티 스코어 카드)	
S.8 소농을 위한 관련 모바일 지원 자연재해 보험 상품 개발 촉진	
S.9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혁신가 및 변화의 촉으로서 청년들의 권한 강화	
S.10 성평등(Gender Transformation) 국가푸드시스템 정책	
S.11 푸드시스템 내 금융을 포함한 성별 격차 해소	
S.12 식품에 대한 권한을 푸드시스템의 핵심으로 배치	
S.13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담배 재배 농민 전환	
S.14 정보에 입각한 시장 참여자로서 소농의 권한 강화(농장 비즈니스 스쿨 접근 방식)	
S.15 여성농 주도 농업 비즈니스 기업	
S.16 비공식 여성 노동자 식품가공 이니셔티브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S.17 인권 주류화를 위한 지식 허브
		S.18 푸드시스템 내에서 기본적인 노동 및 인권으로서 보건 및 안전의 인식 및 증진
		[AT2] 6.1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내 소비자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AT2] 10.1 비공식 식품 부문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식사를 제공하고, 도시지역에서 생계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AT1] 131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해 공동 소유 토지에서 여성의 소유권 보장
		[AT1] 132 여성의 토지권 명문화(vernacularisation)
실천분야4.2 노동자 차이를 없애고 푸드 시스템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	1차 혁신 제안	4.01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노동 규정 강화
		4.02 푸드시스템 노동시장 거버넌스 개선
		4.03 국제 노동 기준의 비준 및 효과적 이행 촉진
		4.05 농업 및 푸드체인 전반에 걸쳐 이주(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 및 노동 권리를 제도화하고 주류화
		4.18 농식품 시스템 관련 부문과 연계한 사회보장 증진
	2차 혁신 제안	1.09 근로자 영양 연합(workforce nutrition alliance) 확대 - 직장 내 건강한 식품, 영양교육, 영양 중심 건강 점검 및 모유 수유 지원 등의 주요 4가지 번곡점을 통해 바람직한 영양에 대한 접근 및 정보 제공
		S.1 푸드시스템에서 모든 생계 평등 - 푸드시스템 내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평등한 생계 보장(농민, 수산부문 노동자를 포함한 농민, 금노동자, 어민, 목축업자, 임업 종사자, 수렵채집인, 식품 가공 제조-집적 작업자, 운송-유통-배달 종사자 및 음식배달기사, 슈퍼마켓/상점/식료품/시장 노동자 및 노점상, 음식 준비/요리사/서버 등)
		S.2 어선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
		2.2. 도시지역 식품 전략
		4.09 공평한 생계를 위해 도시 및 지방 정부와 협력
실천분야4.3 푸드시스템 지역화	1차 혁신 제안	4.12 소규모 생산자 단체를 위한 글로벌 매칭 투자 펀드 설립
		4.13 미래에 대한 투자 - 디지털 농촌 금융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푸드시스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4.14 녹색 및 포용적 푸드시스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개발은행(PDB) 이니셔티브
		4.16 농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개발 플랫폼: 포용적이고 공평한 농업 가치사슬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
		4.20 가치사슬에서 영세농, 농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 소득과 임금을 촉진
		5.9 농촌 변혁을 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솔루션(모든 가구에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
		1.09 근로자 영양 연합(workforce nutrition alliance) 확대
		S.1 소규모 식품 생산자의 평등한 생계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 관광 장려
		S.2 농업인 종자 네트워크(Farmer Seed Network)-평등한 생계와 인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종자 시스템 추진
	2차 혁신 제안	S.3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촉진하고 유망한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합한 아랍 식품 보안센터 설립
		S.4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부족을 피하기 위해 기본 필수품(식량 또는 비식량)의 전략적 재고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법률의 개발 및 채택
		S.5 소농 지원 생태계 관련한 노력들 조정
		S.6 경제 포용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평등한 생계 증진
		S.7 2030년까지 생활소득에 관한 연합
		S.8 거버넌스
		S.9 도시 푸드시스템 및 지역 계획
		S.10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푸드시스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확대
		S.11 시장과 환경
S.12 SDGs에 대한 영토적 접근을 위한 지리적 표시		
S.13 영토 시장 지원		
S.14 지속가능한 공공식품 조달		

주: CTC는 Community Score Card(커뮤니티 스코어 카드)의 약자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마) 실천경로5: 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 실천경로5는 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을 보장하며,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식품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고자 함.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푸드시스템 내에서 더 큰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함.

- 갈등과 환경·건강·경제적 측면에서의 충격 및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푸드시스템이 기능을 유지하고, 부정적 효과로부터 회복되어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모색함.

○ 실천경로5는 푸드시스템의 복원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푸드시스템 내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성을 대비하고, 견디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실천경로5는 충격과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식량안보, 영양 및 평등한 생계를 제공하는 푸드시스템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실천경로5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푸드시스템의 전환은 공평하고 포용적(경제적 회복력), 모든 사람을 위한 광범위한 혜택 제공(사회적 회복력), 자연 환경에 긍정적이고 재생적인 영향(환경적 회복력)의 3가지 측면을 동반함.

- ① 지역차원에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② COVID-19, 가뭄 등 재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③ 위험평가, 준비 등 리스크 공유 체계 개발, ④ 공공, 민간, 생산자 파트너십(public-private-producers-partnership: 4P)을 통한 소규모 농가 평등 증진, ⑤ 사회보장시스템 강화(푸드뱅크, 긴급식량창고, 영양공급을 위한 현금지원) 등 논의

○ 실천경로5는 3개 실천분야를 포함하며, 이중 실천분야5.1은 갈등, 취약성, 극단적 환경, 자연적 역효과, 경제적 충격,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등과 관련된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및 넥서스(Nexus) 접근법과 예측 및 다중 위험 감소 및 관리조치에 중점을 둬.

○ 실천분야5.2에서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 공공 제공 또는 시민집단행동을 통해 식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고자 함(민간-공공-시민 제공 시스템).

- 영양 고려 안전망, 고용창출계획, 학교급식, 충격에 대응한 사회보장, 식품 공공조달, 식량비축, 푸드뱅크 등이 이러한 시스템에 포함됨.

○ 실천분야5.3은 기후 복원력이 있는 개발 경로를 지원하고 국가, 지역권역, 글로벌 등의 수준에서 SDGs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의 통합에 중점을 둬.

- 특정 조치들은 소규모 섬 국가, 해안 지역, 사막,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커뮤니티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2-12〉 실천경로5의 실천분야 주요 내용

실천분야	세부 실천 내용
실천경로5(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실천분야5.1 푸드시스템 탄력성	5.1 분쟁관련 위기와 관련한 위험, 현실 또는 여파에 직면한 국가의 식량 및 평화 유지 시설
	5.4 지역 내 여성과 청년의 소규모 프로젝트/이니셔티브에 대한 혼합자금조달 메커니즘
	5.8 세계식량안보분석표준으로 IPC(식량안보단계분류)에 기초한 식량안보 예측 및 모니터링 확대 및 개선
	5.10 소외작물에 대한 육종 가속화 및 형질 마이닝을 위한 도구
	5.23 식량위기 글로벌 네트워크,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복잡한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
	5.20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인간 중심 적응형 접근 방식
	5.24 분쟁과 기아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정책을 위한 글로벌 센터
	5.25 위험분석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
실천분야5.2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보편적 식량 접근	5.6 식량안보를 위해 수직적 농업 도구를 활용하는 커뮤니티 정원
	5.2 소비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식량 비축
	5.13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의 기존 국제 협정 이용
실천분야5.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	5.17 제도적 수요 주도형 혁신-체계적인 가치사슬 변화를 위한 지역 조달 활용 - 소농 및 중소기업 대상 지역 및 공공조달 계획으로 특정 식품 구매(현지 생산, 여성 또는 청년 협동조합 생산, 유기농, 제철 등)
	5.18 보편적 식량 접근성, 식품을 공공재로 제정 - 건강과 교육에 적용하는 동일한 논리를 식품에 적용,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구매력에 관계없이 매일 적절한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을 보장하고 다양한 공적, 사적 및 집단적 수단을 통해 보장(식품을 상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매일의 식량의 절대적 필수성에 기초한 공공재 및 인권으로 평가)
	5.5 기후위험 프로파일링(시사용) 맞춤형 지역 날씨 유형 및 토양/농업 관행
	5.15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의 농림업 관행
	5.12 아프리카 사헬지역 탄력성 이니셔티브
	5.7 회복력 솔루션 개발에서 여성의 기관 및 리더십 강화
	5.11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통합 접근 방식, 글로벌 토양 파트너십
5.21 유전자 은행 및 현장에서 식량 다양성의 장기적 보존과 식품바구니의 지속적인 다양화	
5.22 지역사회 기반 의사결정 메커니즘 및 정보 시스템	

주: IPC는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식량안보단계분류)의 약자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바) 교차영역(거버넌스)

- 지역 및 국가 차원 거버넌스는 범분야적 조치 영역이며, 실천경로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결책들과 연관되어 있음. 거버넌스 관련한 실천분야는 ① 푸드시스템 정상회담 거버넌스와 ② 보다 광범위한 푸드시스템 거버넌스의 두 개 영역에 초점을 둠.
 - 푸드시스템 정상회담 거버넌스는 푸드시스템 관련 과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개선할 영역에 관한 내용이며, 보다 광범위한 푸드시스템 거버넌스는 지역, 국가, 기타 그 이상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임.

〈표 2-13〉 교차영역(거버넌스) 관련 실천분야 주요 내용

세부 실천 내용
1.20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에 대한 공유 학습 촉진 - 푸드시스템 관점을 농식품 정책 계획·실행에 적용하여 보다 강력한 푸드시스템 계획 및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으로 연결
2.1 2030년까지 통합된 부문 간 평가 및 국가 실행계획
2.5. 국가 푸드시스템 실천 허브 - 푸드시스템 모든 이해관계자 연결, 혁신·협업 촉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국가 플랫폼 개발)
2.7 정부와 시민사회가 변화를 주도하고 우수한 기업 실천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책임감 강화
3.12 자연 친화적 생산과 정책 조정
3.20 푸드시스템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증거에 기초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 구조화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개발
3.21 경관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협업 이니셔티브 시작으로 지역 푸드시스템의 조정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 파트너십(Landscape Partnerships: LPs)을 강화하고 형성하도록 지원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참조(<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0.).

3.3.2. 푸드시스템 실천연합(initiative, coalition)²⁶⁾

-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각국 정부, 국제기구, 정부 및 민간 조직 및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룹들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구현하면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특히, UN 회원국들과 관련 기관·조직들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이슈별로 실천연합을 마련함. 2022년 11월 현재 총 28개의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²⁶⁾ 실천연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 분석 결과는 제4장에서 상세히 기술함.

이 구성됨.

-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와 활동은 각국과 관련 기관·조직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짐. 실천연합들은 회원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협력하여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실천연합별로 정보·지식·교훈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각종 홍보·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제공하는 전문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

3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경로 수립 현황과 내용 분석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별 관심사, 정책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경로(national pathway)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을 검토·분석함.²⁷⁾

1. 우리나라 국가경로 수립 현황

1.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국가경로 수립 동향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UN SDGs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서 우리나라의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임.

²⁷⁾ 이 연구에서 ‘국가경로(National Pathway)’는 UN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UN 회원국들이 각국의 푸드시스템에 관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 문서를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 9월 정부 차원에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라고 발표함.

○ K-SDGs는 17개 분야,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UN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역할을 반영하여 2번째 목표(SDG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로 ‘기아종식’을 내세우고 있음. K-SDGs도 이를 반영하여 2번째 목표(K-SDG2)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제시함.

- K-SDG2는 세부목표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의 안정적 보장(2-1)’, ‘소득원 다각화 및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2-2)’,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2-3)’,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및 신제품 개발(2-4)’,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2-5)’ 등을 포함함.

○ K-SDGs와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관련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이에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국가 먹거리 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이에 따라 2010년대 후반부터 지역 단위에서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부처, 대통령 직속 농업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였으며, 2022년 9월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인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함.

-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전문가 협의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UN은 2021년 9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국가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내 논의를 전개할 것을 촉구함. 이에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하였으며, ‘국가식량계획’에도 이러한 국내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함. ‘국가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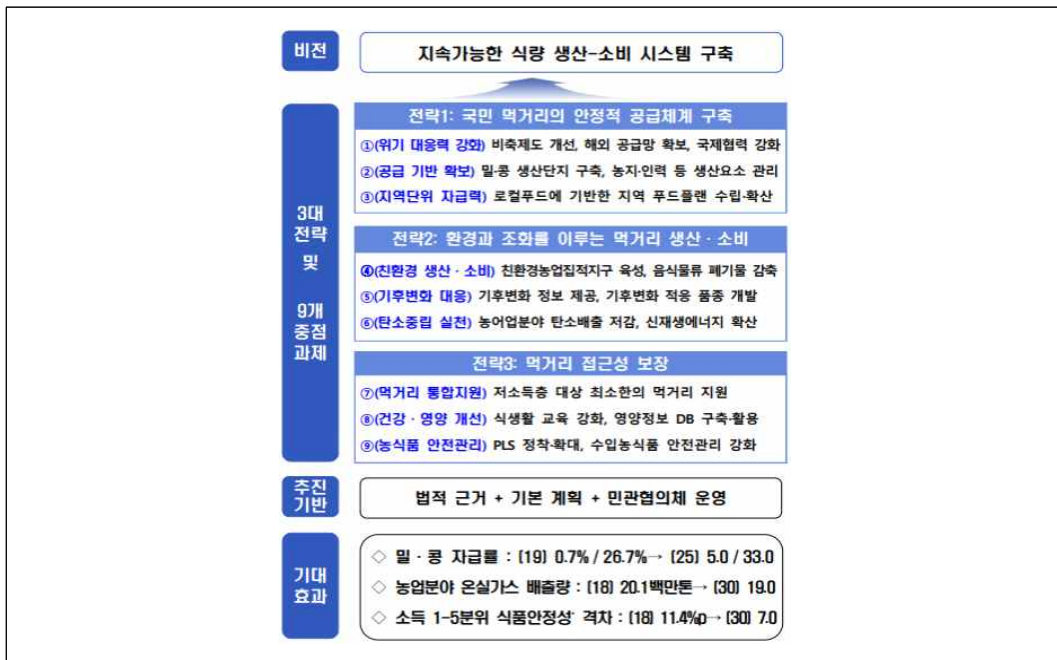
계획'은 2021년에 개최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로서 발표·제출되었음.

- 2020년에 COVID-19가 발생·확산되면서 식량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식량안보 확보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짐. 이에 따라 그간 국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COVID-19 이후의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함.

1.2. 국가경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9개 중점과제를 포함함. 3대 전략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전략1),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전략2), '먹거리 접근성 보장'(전략3) 등임.

〈그림 3-1〉 우리나라 국가경로(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9월 발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https://www.korea.kr>, 검색일: 2021. 9. 30.); 황윤재 외(2021).

1.2.1.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전략1은 식량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① 위기 대응력 강화, ②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③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자급력 확보를 세부 목표로 설정함.
- 전략1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곡물인 쌀·밀·콩을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밀·콩 생산단지를 조성·확대하고,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농지·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용 농지의 매입·비축을 확대하며, 청년농 영농정책 패키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함. 이밖에 지역 내 자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확산·성숙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푸드플랜(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1.2.2.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 전략2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소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소비를 확대하고, ②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며, ③ 농어업분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함.
- 전략2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확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며,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가정·외식업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저감하는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하고자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며,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농어업분야 탄

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함.

1.2.3.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전략3의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위해 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영양·건강 개선,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함.
-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차원에서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민 영양·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수산물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확대 시행하고,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함.

2.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수립 현황²⁸⁾

2.1. 미국

- 미국의 국가경로는 ① 식량안보와 건강한 식사, ②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③ 포용적이고 공평한 푸드시스템 등을 3가지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및 건강한 식사, 기후변화와 환경, 공평과 포용 등 3개 영역의 우선순위들을 제시함.

²⁸⁾ 해외 주요국의 국가경로는 2022년 9월 현재 UN에 국가경로를 제출한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리함.

○ 첫째, 식량안보와 건강한 식사를 위한 우선순위들은 COVID-19에 대응한 소비적 관점에서의 식량안보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식생활교육 등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식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함함.

- COVID-19 대응 식량안보 강화

• 긴급식품지원 확대: 학교급식, 방학중 어린이식품지원,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기타 어린이/영유아, 노인, 미국령 식품지원 확대

• 푸드뱅크 및 기타 비영리조직을 통한 친환경, 신선식품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혜택 확대와 생산자 지원

- SNAP 개선 및 SNAP 수혜자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불능력 개선

- SNAP 접근성 확대(온라인 식품 구매 포함)를 위한 식품공급 개선

- 영유아 및 학생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 개선

- 영유아·어린이 중금속 등 위해요소 노출 저감

- 식생활교육 및 관련 자료 구축(연구)

○ 둘째, 기후변화와 환경 영역은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들을 포함함.

- 농촌지역 에너지, 용수·폐수, 연료 이용 등 기후·환경 관련 기반시설 및 청정에너지 역량에 대한 투자

- 효과적인 보존 및 기후스마트 농업을 위한 과학·증거 및 프로그램 투자

• 기후변화 대처, 수질 개선, 가뭄 퇴치, 토질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 지원, 농업 생물종 다양성 보호 등

- 민관 협력, 소비자 교육,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을 통해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강화

○ 셋째, 공평과 포용

- 푸드시스템 상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자, 노동자, 소규모자영업자 등 농식품 분야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지원
 - 보조, 재정지원, 대출, 공공계약, 헬스케어, 노동력 공급, R&D 등
-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지역 푸드시스템 강화
 - 지역 농식품 생산 및 가공 투자, 학생들의 지역 식품과 농업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 수준에서의 보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도시농업 강화, 식량정의·평등 등
- 모든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 구축
 - 시장 투명성 제고, 중소 생산·가공업자들의 경제적 기회 확대

2.2. 덴마크

○ 덴마크 국가경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 인구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마련함. 덴마크는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과 함께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기여를 주요한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덴마크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①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②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 ③ 항생제 내성 예방, ④ 삼림 파괴로부터 자유로운 식품가치사슬, ⑤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됨.

- 덴마크 정부는 학교급식을 취약아동을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보호하고, 여자 어린이들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함. 이에 따라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조치의 경우 저소득 국가의 학교급식 체계의 재구축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민관협력, 이해관계자 참여·협력(정부, 지역파트너, 기업, 생산자, 과학그룹 등), 과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함.

- 식품 손실 및 폐기: 시민사회 지원, 전문컨설팅, 기부, 연구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 식품섭취가이드라인, 지역 내 식품가용성·구매력 보장, 식생활교육, 친환경 공공조달
-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연구, 축산 항생제 사용 규제
- 삼림 파괴 없는 가치 사슬: 농업분야 삼림 파괴 방지, 삼림 파괴 없는 식품 수입(콩, 팜유), 국제협력

〈글상자 3-1〉 덴마크 국가경로 우선순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식품가치사슬 전반에서 패턴과 행동의 변화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 건강한 식품 섭취와 식습관의 변화를 통한 기후 오염 배출 저감 ■ 항생제 내성 예방 ■ 삼림 파괴로부터 자유로운 식품가치사슬: 에코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가치사슬 구축 ■ 글로벌푸드시스템 전환 기여: 분쟁 및 취약국가 대상 기아 예방, 개발도상국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우선순위, “Healthy Diets coalition”, “Food is Never Waste”, “School Me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식량 지원과 지속가능한 솔루션 결합(외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사전적 접근방식)) - 덴마크는 WFP의 아프리카 학교급식 프로그램, 핀란드와 프랑스가 주도하는 학교급식실천연합을 지원하여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국가의 학교급식 안전망 재구축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참조.

2.3. 뉴질랜드

○ 뉴질랜드 국가경로는 국민의 웰빙과 UN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건강,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발전시키고자 함.

- 웰빙 증진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은 웰빙 예산(Wellbeing budtest)과 리빙스탠다드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 Framework)에 기초하여 추진됨.
- 리빙스탠다드 프레임워크는 4개 자본 영역(자원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재정·물적 자본)과 12개 웰빙 영역(시민참여·거버넌스, 문화적 정체성, 환경, 건강, 주택, 임

금·소비, 일자리·소득, 지식·기술, 시간활용, 안전성·안정성,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뉴질랜드 국가경로의 우선순위는 환경, 영양·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다른 국가들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과 함께 뉴질랜드 국가 여건을 반영한 농식품 교역, 토착민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함.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자연환경 보존: 저탄소 배출 사회로의 신속한 이동, 수질 회복, 생물다양성 보존·복원과 함께 적정 식량 공급
- 푸드시스템에서의 토착민 리더십 증진
- 공정하고 개방적·포용적인 무역 촉진(세계 식품·영양 안보 달성): 지역 푸드시스템과 글로벌 푸드시스템 간 연계, 농업·수산 보조금 제거
-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건강과 형평성 개선
- 기후변화 대응
-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충격에 탄력적이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웰빙을 보장하는 푸드시스템 구축

○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경로의 목표와 우선순위들을 이행하기 위해 푸드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혁신을 위한 투자(연구, 개발 및 역량 구축)를 도모함.

- 푸드시스템, 영양·건강, 토지·물·자원, 식량안보, 농업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혁신 투자

2.4. 스웨덴

○ 스웨덴의 국가경로는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논의를 통해 스웨덴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기존의 정책 및 전략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방법을 도출함.

- 국가 식량전략, 연구 및 공중 보건에 관한 정부 법안,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기후 등을 포함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국내 정책 및 전략과 기타 북유럽, 유럽연합, UN 등과의 정책·전략을 모두 포괄하여 접근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 교류
- 국가 및 세계적으로 관련된 복잡성을 존중하면서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서 함께 작업
- 광범위한 해결책,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하여 모든 수준의 이해관계자 간의 광범위한 협력
- 근거에 기반하고 실현 가능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연구와 정책 개발
- 관련 부문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촉진
- 입법, 조세정책, 규제 등과 같은 수단의 관점에서 보다 총체적인 접근

2.5. 영국

○ 영국은 SDGs를 달성하고 환경에 대한 파급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농업, 어업 및 식품, 음료 부문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푸드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망 및 자연친화적 생산, 글로벌 식량안보 지원 및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및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춤.

○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망 및 자연친화적 생산

- 농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 글로벌 자연자원 보호, 연구와 혁신을 통한 변화

○ 글로벌 식량안보 지원 및 회복력 강화

- 글로벌 식량안보, 국내 식량안보

○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및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 식품 손실 및 폐기 방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 보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촉진, 어린 시절의 건강한 식단, 식품 안전성

2.6. 일본

○ 일본은 2021년 5월에 SDGs 및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MeaDRI(Measures for Decarbonization and Resilience with Innovation)"를 발표함.

○ 일본 국가경로인 중장기전략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 몬순 지역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추진'이며, 우선순위는 ①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저감, ② 유기농업 촉진, ③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④ 지속가능한 원료 조달, ⑤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⑥ 균형 잡힌 식단 촉진, ⑦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강화, ⑧ 농촌지역 혁신 촉진, ⑨ 민간 투자 촉진 등임. 이밖에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관한 규칙에 기초한 식품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며, ② 영양 개선, 빈곤 및 기아 근절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 일본은 국내 논의 과정에서 식품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식품체계 구축에 동참하여, 총 69개 기업이 약정을 맺음.

〈표 3-1〉 일본 국가경로 우선순위 주요 내용

우선순위	주요 내용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업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기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스마트농림어업 보급을 통해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2050년까지 병해충통합관리 및 신규 개발 대안을 구축·보급하여 화학농약 사용 50% 감축 - 2050년까지 수입원료와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
유기농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지리적 여건, 식재방식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접근을 추진하면서 주력 제품의 차세대 유기농 관련 기술 구축 - 2050년까지 유기농법을 1Mha(농지의 25%에 해당)로 증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이 중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의 전환, 농림기계 및 어선의 전기화 및 수소화 관련 기술 확립,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 보전, 불법 벌목 대책 등 - 2050년까지 농림수산물부 CO₂배출 Zero 달성
지속가능한 원료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의 기업활동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싱 실현을 위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관 합동 대응 도모 - 식품 제조 산업의 수입 자재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싱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약 1/3이 손실되거나 낭비됨. SDGs 목표에는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전 세계 음식을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 및 공급망에 따른 식량 손실을 줄이는 것이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FY2030까지 기업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및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 - 혁신적인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2050년까지 기업 차원에서 음식물의 손실과 낭비 최소화
균형잡힌 식단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나 지역의 식문화를 존중하고 영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식단'과 국민을 위한 식품영양교육이 중요함. 각국의 식품영양교육 관련 지도 및 교육과정에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고 지도 등을 통해 개인의 식생활 패턴에 따른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전통적인 WASHOKU(일식) 문화를 계승하면서 다음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과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2021년 3월에 수립된 제4차 식육진흥기본계획(식품영양교육)에 기초한 식품영양교육을 추진 -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근거를 축적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FAO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통 현지 음식의 건강상의 이점을 전파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강화의 중요성 증가 양식업은 또한 세계 해산물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임.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문에 적절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 어장 관리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부하 감소 일본은 생산 기준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어획량을 약 80%로 늘리고 영해 및 EEZ의 불법어업 통제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에 IUU 어획에 대한 강화된 무역 통제 조치를 도입하고, FAO 및 지역 수산 관리 기구(RFMO)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IUU 어획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불법, 보고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어업(PSM)을 억제하고 근절 - 2050년까지 부화장에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천연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양식을 확립
농촌지역 혁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소득과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참여와 함께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혁신이 중요하며, 이는 농촌진흥과 회복탄력성에 기여 이를 위해 여성과 청년들이 지역 사업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혁신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민간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자금이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함. 푸드시스템이 대기업과 대규모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 가족 농부, 중소기업, 창업 기업과 같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금을 대한 접근성을 사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기술을 포함한 지적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 위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향상과 관련된 ESG 투자 촉진 및 환경 보전 -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 권장 사항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절하게 노력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7. 핀란드

- 핀란드는 SDGs의 개념을 핀란드 정부 식품정책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함. 핀란드 국가 식품정책의 핵심은 기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부문, 모두를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 소비자의 행동을 이끄는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프로그램 장려 등임.
- 핀란드 국가경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핀란드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과 SDGs 달성을 위해 '개발정책·개발협력·원조' 등을 통해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핀란드 국가경로는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 정책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참여 촉진(영양), 시스템적 접근(상호 연결, 포용성, 연결, 협업, 다자주의), 영양,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기후 식량 프로그램, 바이오경제 및 순환경제-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개발정책·개발협력·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핀란드는 개발정책·개발협력·원조 등을 통해 빈곤 감소와 기본권 실현, 기타 UN SDGs 목표 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경제 기반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핀란드는 푸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생산자가 식품가치사슬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푸드시스템이 식량 및 영양 안보를 개선하고 소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개발도상국의 푸드시스템이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8. 기타 국가

가) 아일랜드

- 아일랜드 국가경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영역을

제시함. 4개 영역은 ① 기후 스마트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부문, ② 향상된 웰빙과 함께 지속성 있고 회복력이 있는 1차 생산자, ③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매력적인 식품: 국내외에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는 식품, ④ 기술과 인재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적이고 경쟁적이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 부문 등임.

- 또한 아일랜드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에서의 아일랜드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특히,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고 영양 결핍, 미량 영양소 결핍, 과체중 및 비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나) 헝가리

- 헝가리 국가경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영양 및 지속가능한 소비, ②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푸드시스템의 영향을 줄이고 농업 기술 개선, ③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권한 강화, ④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⑤ 지식·혁신, ⑥ 순환경제로의 전환의 6개 주요 대응 영역을 제시함.

- 헝가리 정부는 6개 주요 대응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과 정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함.

- 헝가리 국내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이외에 EU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국가경로에도 담고 있음. 헝가리 정부는 국가경로에 EU의 다양한 실천연합 중에서 학교급식 실천연합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힘.

- 학교급식, 식품 손실 및 폐기, 농업 생태, 지속가능한 축산, 수산/블루푸드, 지속가능한 축산, 토양 건강 등에 관한 실천연합 고려

다)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정상회의 전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 이탈리아 정부의 최근의 논의는 ① 식품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민간 부문 모범 사례, ② 식품폐기 및 손실 제거, ③ 기아와 영양실조에

대한 회복력 있는 지역 푸드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라) 폴란드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SDGs달성을 지원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폴란드는 국가경로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를 UN의 SDGs 중에서 SDG2, SDG6, SDG8, SDG12, SDG17를 중심으로 마련함. 이들 주요 SDGs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우선순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폴란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부문에 대한 선택적 재정 개입,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일관성, 농업 및 농촌 지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출 증가, 효율적인 조직 구조 및 협력 등을 강조함.

〈표 3-2〉 폴란드 국가경로 우선순위

주요 목표	우선순위
기아종식(SDG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농장과 농식품 생산자의 경쟁력 향상을 포함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 지원 • 환경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 식품 품질과 안전, 국가식품안보를 보장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다양화 • 폴란드 수출에서 농식품 부문 제품(고품질 식품 포함)의 비중 증가 • 농촌 기반 시설 개발 •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음으로써 생물다양성 존중 • 성인과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
깨끗한 물과 위생(SDG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한 수자원을 증가시키고 생태학적 상태와 화학적 품질 개선 • 수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절수 기술 구현, 하수 처리장 건설 및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적 및 재정적 메커니즘 수립
경제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SDG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기술 발전, 제공되는 제품 품질 및 혁신, 비즈니스 국제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우위 추구 • 농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사용되지 않는 노동 자원의 흐름 개선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SDG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관리 방식을 바꾸고, 소비 양식을 변경(순환 경제 개발,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 • 유기농법 개발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SDG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발전, 환경보호, 기타 다양한 영역 등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분석

3.1. 국내 국가경로와 UN 실천경로·영역과의 연관성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국가식량계획)는 국내 먹거리 관련 여건·환경과 주요 먹거리 문제를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푸드시스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UN의 실천경로 및 실천영역을 반영함.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는 UN 5대 실천경로와 그에 따른 세부 실천영역들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UN 실천경로 중에서 다른 실천경로에 비해서 실천경로4(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와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짐.
 - 세부 실천분야 중에서 4.3(푸드시스템 지역화)는 지역단위 자급력 제고와 로컬푸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와 연관성이 있으나, 실천분야 4.1(푸드시스템 내에서 역할 재조정)과 4.2(노동자 착취를 없애고 푸드시스템에서 양질의 일 보장)와는 연관성이 없는 편임.
- 3대전략과 UN 실천경로 및 실천분야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3대 전략 중에서 전략1(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은 UN 실천경로1, 4 및 5와 주로 관련이 있음.
 - 전략1 중에서 세부전략1(위기 대응력 강화)은 UN 실천경로 중에서 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실천경로 5)의 실천분야 5.1(푸드시스템 탄력성)과 실천분야 5.2(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보편적 식량 접근)와 관련됨.
 - 전략1의 세부전략 2(공급 기반 확보)는 UN 실천경로 중에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보장(실천경로1)의 실천분야 1.1(식량안보 증진 및 기아감소)과 관련됨.
 - 마지막으로 세부전략3(지역단위 자급력)은 주로 실천경로4(평등한 생계·가치배분

촉진)의 실천분야 4.3(푸드시스템 지역화)과 밀접하게 관련됨.

○ 우리나라 국가경로 전략2(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는 UN 실천경로 2, 3, 5와 관련되어 있음. 특히 세부전략들이 전반적으로 실천경로 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촉진)과 관련되어 있음.

- 세부전략1(친환경 생산·소비)은 UN 실천경로 및 실천영역 중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정립(실천경로2)의 실천분야 2.1(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격려 및 동기 부여)과 실천분야 2.2(식품손실과 폐기를 줄이고 순환 경제로 전환), 실천경로 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의 실천분야 3.1(자연생태계 보호) 및 실천분야 3.2(지속가능하게 현존하는 푸드생산시스템 관리)와 관련됨.
- 세부전략2(기후변화 대응)은 실천경로 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의 실천분야 3.1(자연생태계 보호)과 실천경로 5(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의 실천분야 5.3(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후 탄력적인 개발 경로)과 관련됨.
- 세부전략3(탄소중립 실천)은 실천경로 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의 실천분야 3.2(지속가능하게 현존하는 푸드생산시스템 관리)와 3.3(악화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됨.

〈표 3-3〉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실천경로 및 실천영역과 연관성

국가경로(국가식량계획)		UN 실천경로 및 실천분야														
3대전략	세부전략	1			2		3			4			5			
		1	2	3	1	2	1	2	3	1	2	3	1	2	3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위기 대응력 강화													●	●	
	공급 기반 확보	●														
	지역단위 자급력				●	●	●	●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친환경 생산·소비				●	●	●	●								
	기후변화 대응								●							●
먹거리 접근성 보장	탄소중립 실천								●	●						
	먹거리 통합지원	●	●													
	건강·영양 개선	●	●		●											
	농식품 안전관리			●												

자료: 저자 작성.

3.2.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실천연합과의 연관성

-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의 주요 내용은 실천분야1과 실천분야2에 포함된 여러 실천연합들과 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국가경로 중에서 식량안보 강화와 먹거리 접근성 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은 실천분야1에 포함된 기아종식 실천연합,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또한 우리나라 국가경로 중에서 식량안보 강화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UN 푸드시스템 실천분야2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도 연관성이 높은 실천연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가경로 중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는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UN 푸드시스템 실천분야2에 포함된 대부분의 실천연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표 3-4〉 우리나라 국가경로와 UN 실천연합과의 연관성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우리나라 국가경로 주요 내용		
실천분야	실천연합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위기 대응력 강화 공급기반 확보 지역단위 자급력	친환경 생산·소비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실천	먹거리 통합 지원 건강·영양 개선 농식품 안전관리
1. Nourish All People	기아종식	●		●
	건강한 식이	●		●
	학교급식	●		
	식품손실		●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가족농			
2.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	
	수산/블루푸드		●	
	축산업 규모 조정		●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자연친화적 혁신		●	
	토양건강		●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	
토지 및 담수 넥서스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우리나라 국가경로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	●
3.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도시 푸드시스템		
	토착민 푸드시스템		
4.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지역식품 공급사슬	●	
	기후 복원력 푸드시스템		●
	식량외기 퇴치	●	
5. Means of Implementation	공공개발은행		
	영토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자료: 저자 작성.

3.3. 국내와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 비교 분석

3.3.1.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은 국가별 여건·환경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경로를 수립함.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경로는 담고 있는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과제·전략 등의 세부 내용과 이를 제시하는 방식이 서로 차별화됨. 국가경로에서 제시되는 정책 및 세부 과제·전략의 수준도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는 3대 전략 및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방향·이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국가경로의 형식 및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순환경제)에 관한 내용도 비교적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국가경로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 이슈임.

- 식량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 중에서 건강·영양(건강한 식사) 관련 내용이 가장 보편적이며, 다음으로 급식, 식품지원 등을 통한 식량보장에 관한 내용도 일본,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식품안전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미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만 포함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각국의 국가경로에서 주요 내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식생활·영양교육 등도 한국, 미국, 덴마크, 일본, 핀란드,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국가경로에 포함되어 있을 뿐임.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순환경제)은 국가별로 농업·생산, 소비, 친환경·유기농업 등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이들 3가지 관점이 국가경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덴마크는 친환경·유기농업 관점이 강조되며, 스웨덴은 농업·생산과 소비, 스페인은 소비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순환경제)을 접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가 농업 생산 등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푸드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비교적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OECD 주요국들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슈들을 국가경로에 중요하게 담고 있지는 않음.
- 농업 관련하여 취약농(소농·영세농, 가족농, 여성농, 청년농 등) 관련 내용은 미국, 스웨덴, 일본, 스페인, 생산·경쟁력 제고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와 폴란드, 교역·무역 관련 내용은 뉴질랜드의 국가경로에 포함되어 있음.
 - 지역 푸드시스템 또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한국은 로컬푸드, 미국은 로컬푸드와 도시농업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비해 일본, 헝가리, 스페인 등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내용이 국가경로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
- 이밖에 덴마크, 영국, 일본,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국가경로에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과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또는 글로벌 지원·기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표 3-5〉 우리나라와 OECD DAC 회원국 국가경로 주요 내용 비교 분석

실천연합	OECD 주요국														
	한국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스페인	스위스
식량안보	●	●	●	●	●	●	●	●	●	●	●	●	●	●	●
식량보장	●	●	●	●	●	●	●	●	●	●	●	●	●	●	●
건강·영양	●	●	●	●	●	●	●	●	●	●	●	●	●	●	●
식품안전성	●	●	●			●			●			●			
식생활·영양교육	●	●	●				●	●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	●	●	●	●	●	●	●	●	●	●	●	●	●	●
푸드시스템 전반				●	●			●		●				●	
농업·생산	●	●	●		●	●	●	●	●			●	●		●
소비	●				●	●							●	●	
친환경·유기 농업	●		●				●					●	●		
기후변화 환경	●	●	●	●	●	●	●	●	●	●	●	●	●	●	●
기후변화 대응	●	●		●				●		●			●	●	●
식품손실·폐기	●	●	●		●	●	●	●			●	●	●		●
환경보존·보호(토질·수질 등)	●	●		●								●		●	
(기후스마트) 농업	●	●					●		●						
생물다양성										●		●			
탄소중립(온실가스)	●						●							●	
농업	●	●		●	●		●					●		●	
취약농		●			●		●							●	
생산, 경쟁력	●											●			
교역·무역				●											
지역 푸드시스템	●	●					●			●	●			●	
로컬푸드	●	●													
도시농업		●													
농촌(지역사회) 발전							●			●				●	
국제협력, 글로벌 자원·기여			●			●	●		●	●					

주 1) 식량보장은 학교급식·공공급식, 식품지원, 기아종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2) 취약농은 소농·영세농, 가족농, 여성농, 청년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3.3.2. ODA 중점협력국

-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들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며,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에 비해 대부분의 ODA 중점협력국들의 국가경로는 UN의 실천경로와 실천분야 전반을 포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ODA 중점협력국들은 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식량안보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식량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국가경로에 상당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식량보장, 건강·영양, 식품안전성, 식생활·영양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환경과 관련되어 농업 생산 또는 식량 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손실·폐기를 줄이며, 토양, 수질 등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농업·생산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여성, 소농·영세농 등 취약농과 농업 생산 제고와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이슈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 푸드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은 로컬푸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역 푸드시스템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또한 ODA 지원을 받는 국가라는 점이 반영되면서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제협력 및 글로벌 지원·기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2개 국가에 그치고 있음.

〈표 3-6〉 ODA 중점협력국 국가경로 주요 내용 비교 분석

실천연합	ODA 중점협력국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에티 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우크 라이나	페루
식량안보	●	●	●	●	●	●	●	●	●	●	●	●	●	●
식량보장	●	●	●	●	●	●	●	●	●	●	●	●	●	●
건강·영양	●	●	●	●	●	●	●	●	●	●	●	●	●	●
식품안전성	●	●	●	●	●	●	●	●	●	●	●	●	●	●
식생활·영양교육	●	●	●	●	●	●	●	●	●	●	●	●	●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	●	●	●	●	●	●	●	●	●	●	●	●	●
푸드시스템 전반	●	●	●	●	●	●	●	●	●	●	●	●	●	●
농업·생산	●	●	●	●	●	●	●	●	●	●	●	●	●	●
소비	●	●	●	●	●	●	●	●	●	●	●	●	●	●
친환경·유기 농업	●	●	●	●	●	●	●	●	●	●	●	●	●	●
기후변화 환경	●	●	●	●	●	●	●	●	●	●	●	●	●	●
기후변화 대응	●	●	●	●	●	●	●	●	●	●	●	●	●	●
식품손실·폐기	●	●	●	●	●	●	●	●	●	●	●	●	●	●
환경보존·보호(토질 수질 등)	●	●	●	●	●	●	●	●	●	●	●	●	●	●
(기후스마트) 농업	●	●	●	●	●	●	●	●	●	●	●	●	●	●
생물다양성	●	●	●	●	●	●	●	●	●	●	●	●	●	●
탄소중립(온실가스)	●	●	●	●	●	●	●	●	●	●	●	●	●	●
농업	●	●	●	●	●	●	●	●	●	●	●	●	●	●
취약농	●	●	●	●	●	●	●	●	●	●	●	●	●	●
생산, 경쟁력	●	●	●	●	●	●	●	●	●	●	●	●	●	●
교역 무역	●	●	●	●	●	●	●	●	●	●	●	●	●	●
지역 푸드시스템	●	●	●	●	●	●	●	●	●	●	●	●	●	●
로컬푸드	●	●	●	●	●	●	●	●	●	●	●	●	●	●
도시농업	●	●	●	●	●	●	●	●	●	●	●	●	●	●
농촌(지역사회) 발전	●	●	●	●	●	●	●	●	●	●	●	●	●	●
국제협력, 글로벌 자원·기여	●	●	●	●	●	●	●	●	●	●	●	●	●	●

주 1) 식량보장은 학교급식·공공급식, 식품지원, 기아종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2) 취약농은 소농·영세농, 가족농, 여성농, 청년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3) ODA 중점협력국 중에 방글라데시, 라오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은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4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현황과 국제사회 협력 가능 분야 진단

○ 이 장에서는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한 실천연합을 진단하며, 주요 실천연합의 추진 현황 및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함.

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수립 현황

1.1. 실천연합 수립 개요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UN회원국들과 관련 기관·조직들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슈들에 대해 연계·협력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이슈별로 마련됨.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 민간 기관·조직들은 푸드시스템 관련한 각각의 관심 사항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거나 검토 중임.
-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각국은 국가별 관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개별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결정함.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푸드시스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응과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 보다는 푸드시스템 관련한 지식·교환·모범사례 및 역량을 회원들 간 상호 교환하고, 관련 정보·지식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푸드시스템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둬.

- 실천연합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연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별 자원·에너지·정치적 의지를 활용하면서 조직화된 투자와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식·교환·모범사례 및 역량의 교환을 통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 2022년 11월 현재까지 5개 실천분야(action area)에 걸쳐서 총 28개 실천연합이 구성됨. 실천연합은 푸드시스템 관련한 주요 이슈를 담은 5개 실천영역별로 구분하여 마련됨. 5개 실천영역은 ‘N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공평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역량 강화)’,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 수단) 등임.

- 5개 실천분야 중에서 ‘Nourish All People’은 7개 실천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는 12개,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는 4개,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는 3개, ‘Means of Implementation’는 2개 실천연합을 포함하고 있음.

〈표 4-1〉 UN 푸드시스템 실천분야별 실천연합 개요²⁹⁾

실천영역	실천연합
1. Nourish All People (7개 실천연합)	기아종식 실천연합(A Coalition of Action for Achieving Zero Hunger)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The Coalition of Action for Healthy Diets form Sustainable Food Systems for Children & All)
	학교급식 실천연합(School Meals Coalition: Nutrition, Health and Education for Every Child)
	식품손실 실천연합(Coalition on Food Is Never Waste)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The True Value of Food Initiative)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Social Protection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 Consortiu)
	가족농 실천연합(Coalition on Family Farming and on Strengthening actions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Family Farming(CFF))
2.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12개 실천연합)	농업생태 실천연합(A Coalition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 through Agroecology)
	수산/블루푸드(The Coalition for Aquatic/Blue Foods)
	축산업 규모 조정 실천연합(Resizing the Livestock Industry)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Global Sustainable Livestock Coalition)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Restoring grasslands, shrublands and savannahs through sustainable extensive livestock-based food systems)
	자연친화적 혁신 실천연합(A Global Action Agenda to Advance Nature-Positive Innovation)
	토양건강 실천연합(Goalition of Action 4 Soil Health(CA4SH))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실천연합(The Coalition to Repurpose Public Support to Food and Agriculture)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실천연합(Halting Deforestation & Conversion from Agricultural Commodities)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실천연합(Better Data Better Decisions for Nature-Positive Production)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실천연합(Land and Freshwater Nexus)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Coalition on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for Food Security and Resource Conservation)
3.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4개 실천연합)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실천연합(Coalition of Action on Decent Work and Living Incomes and Wages for All Food Systems Workers)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Making Food Systems for Women and Girls)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Coalition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Food Systems)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Indigenous Peoples' Food Systems)
4.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3개 실천연합)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Resilient Local Food Supply Chains Alliance)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Climate resilient food system, CRFS)
	식량위기 퇴치(Fighting Food Crises along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Nexus)
5. Means of Implementation (2개 실천연합)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Public Development Banks Coalition)
	영토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Coalition to promote territorial food systems governance)

주: 실천연합의 국문명은 실천연합의 주요 추진 내용을 고려하여 축약한 명칭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 참조.

1.2. 주요영역별 실천연합 목표와 내용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들은 자발적인 기반에서 각국의 관심 사항과 우선순위에 따라

29) 이하의 보고서 내용에서는 축약된 실천연합명(국문)을 활용함.

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됨. 실천연합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연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화된 투자와 공동 대응, 자원·에너지·정치적 의지를 활용하고, 지식·교훈·모범사례 및 역량의 교환을 통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실천분야별 실천연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1. N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 ‘N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에 포함된 7개 실천연합은 주요국, 국제기구, 기타 민간단체·조직 등이 연계·협력하여, 궁극적으로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건강·영양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실천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영역의 실천연합들은 UN의 푸드시스템 실천경로1(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7개 실천연합 중에서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실천연합 등 3개 실천연합은 실천경로1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을 포함함.

- 기아종식 실천연합은 전 세계 모든 기아 종식,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은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 보장과 같은 실천경로1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먹거리 보장과 건강·영양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천경로1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실천 목표와 내용·범위를 담고 있음.

○ 이 영역의 다른 실천연합들에 비해 식품손실 실천연합은 직접적으로 기아종식의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음. 식품손실 실천연합은 식품의 손실 및 낭비 요소 제거를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를 종식시키고자 함. 이밖에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과 가족농 실천연합 등은 충분하고 적절한 식품이 공급되기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4-2〉 ‘Nurish All People’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와 내용

실천연합	주요 목표
기아종식	지속가능성과 영양을 고려하면서 기아종식 실현
건강한 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식이가 가능하도록 식품이 공급되며,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학교급식	전 세계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건강·영양 증진, 지역 농업·경제 기여 및 소농 기회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긍정적 역할 도모
식품손실	식품손실과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식품의 진정한 가치에 기초한 경제적 근거 제공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더 나은 방식으로 빈곤 감소, 식량안보, 영양 및 양질의 일자리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푸드시스템과 국가 사회보장 간의 연계 및 시너지를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 지원
가족농	가족농이 변혁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투자 개발과 효과적 구현을 위한 새로운 노력 장려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2.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은 다른 영역보다 많은 총 12개의 실천연합을 포함하고 있음. 이들 실천연합은 생산, 소비 영역에서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개별 실천연합의 실천범위는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농림축산업, 자연생태계 등으로 다양함. 이들 실천연합의 목표와 실천범위를 고려할 경우, 이들 실천연합이 실천경로2(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및 실천경로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에 포함된 상당수의 실천연합은 농업 또는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고자 함. 그러나 축산업 규모 조정,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등 3개 실천연합은 실천범위가 축산, 수산/블루푸드 실천연합은 실천범위가 수산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특정적임.

○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의 2개 실천연합은 토양, 담수 등 자연 생태계를 중심으로 실천 목표와 세부 내용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실천연합들과 차이가 있음.

〈표 4-3〉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실천연합	주요 목표
농업생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고위급패널(HLPE) 보고서에 명시된 13대 농생태학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푸드시스템을 전환시키는 핵심 지렛대로서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 접근법을 구현
수산/블루푸드	담수 또는 해양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해산 또는 수생 식품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여 영양실조를 종식하고, 자연에 긍정적이고 공평하며,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현
축산업 규모 조정	농장 동물들에게 양질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축산 시스템에서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를 개발, 모델링 및 구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반의 다중 이해관계자 연합 구축 - 축산업 규모 조정과 육류 및 유제품 소비 감소, 자연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과 적절한 전환 지원, 바람직한 동물 복지 기준 채택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가치사슬 중심의 지속가능한 축산시스템 발전을 위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생산 시 환경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물 사용, 토양훼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해 초원, 관목 및 사바나를 복원
자연친화적 혁신	농업 생산성을 촉진하고 환경 및 사회경제적 결과에 기여하는 자연친화적 혁신의 잠재력 촉발
토양건강 실천연합	농업 생산자들의 건강한 토양관리 관행 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이행, 모니터링, 정책과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벽을 해결하여 전 세계의 토양건강을 복원 및 회복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① 기후, 환경 및 개발 문제를 심화시키는 공격 지원 조치를 식별하고 ② 이러한 조치를 재설계하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 안보 개선, 토양 및 수질 강화, 생물다양성 증가,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의 완화를 지원함.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식량생산 최적화, 농촌 생계 강화,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새로운 농업 생산 모델의 일환으로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식량 공급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지속가능한 경관 및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양질의 데이터, 이해관계자,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유역을 보호하고,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내에서 토지 및 수자원 관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및 이니셔티브 개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사회, 경제, 환경 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여러 목표 간의 영향과 균형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발전

주: 농생태학 13대 원칙은 재활용, 투입재 사용량 감소, 토양건강, 동물보건 및 복지, 생물다양성, 시너지, 경제적 다각화, 식의 공동 창조, 사회적 가치와 식단, 공정성, 연계, 토지 및 자연자원 거버넌스, 참여 등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3.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공평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역량 강화)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공평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역량 강화)’은 총 4개의 실천연합을 포함하고 있음. 이들 실천연합은 주로 근로자, 여성·여아 또는 토착민 등의 취약계층(또는 소외계층)이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푸드시스템 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그러나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경우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생계·경제적 기반으로서의 ‘도시 푸드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이들 실천연합은 궁극적으로 생계,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경제·사회 및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등·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천경로4(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표 4-4〉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실천연합	주요 목표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노동 및 인권을 증진하고 100% 생활소득·임금 달성을 포함하여 농식품 부문 내 양질의 생산적인 고용 기회를 증대함으로써 평등한 생계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모든 푸드시스템 근로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의와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은 성 평등과 여성·소녀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4개 주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구현 - 성평등, 자원·서비스·기회에 대한 접근성 및 권리 제고,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적·입법적 편견 제거, 젠더 이념 전환(양성평등)
도시 푸드시스템	도시 푸드시스템 전환
토착민 푸드시스템	- 토착민의 푸드시스템을 존중, 인식, 보호 및 강화 -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전환시킬 잠재력이 있는 토착민 푸드시스템 관련한 전통적 지식과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확산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4.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은 총 3개의 실천연합을 포함함. 이들 실천연합은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천경로5(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들 실천연합은 탄력적인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각각 지역단위 푸드시스템(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기후에 대한 회복력(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또는 식량위기(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4-5〉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의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실천연합	주요 목표
지역식품 공급사슬	기후, 공중보건, 사회경제적 혼란(시민, 정치적 혼란 포함)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지지하는 지역 푸드시스템의 변화에 기여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회복력, 지속가능, 평등 및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
식량위기 퇴치	취약한 상황과 충격에 대응하여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촉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5.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 수단)

-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 수단)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보다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행 수단에 초점을 맞춘 2개 실천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이 영역에 포함된 실천연합들의 목표와 세부내용들은 특정 실천경로·분야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려움.

-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은 공공개발은행(Public Development Bank: PDB)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푸드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능을 담당하고자 함.

- 영토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은 푸드시스템 정책의 일관적 추진을 위한 일정 영토 범위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 푸드시스템의 구축·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표 4-6〉 ‘Means of Implementation’ 관련 실천연합별 주요 목표

실천연합	주요 목표
공공개발은행	공공개발은행(PDB)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푸드시스템 혁신 지원
영토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이해관계자 조정과 정책 및 프로그램 일관성을 확대하여 푸드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강화를 위한 지원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내용 분석

2.1. 실천연합과 SDGs와의 연관성 분석

○ UN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실천연합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SDGs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따라 개별 실천연합들은 SDGs의 세부목표들과 상호연관되어 있음. 이들 개별 실천연합들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실천연합들이 실천목표 달성을 통해 SDGs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영역들을 파악할 수 있음.³⁰⁾

2.1.1. No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 ‘Nourish All People’의 실천연합들은 SDG2(기아종식)와 밀접하게 관련됨. 그러나 SDG2 이외에도 동 실천분야의 실천연합들은 다양한 SDGs와 관련이 있음. 특히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경우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기아종식과 영양 개선 등은 물론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SDGs 17개 목표 모두

³⁰⁾ 분석대상 SDGs 17개 목표는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6.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 정의와 제도,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등임.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밖에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은 6개, 식품손실 실천연합 4개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관된 SDGs가 많은 편임.

〈표 4-7〉 ‘Nurish All People’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실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아종식(1)		●																
건강한 식이(3)		●	●									●						
학교급식(17)	●	●	●	●	●	●	●	●	●	●	●	●	●	●	●	●	●	●
식품손실(4)		●									●	●	●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2)		●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6)	●	●						●		●		●						●
가족농(3)	●	●																●

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사이트의 실천연합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자료에 SDGs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연구진에서 별도로 분석함. ()는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 SDG의 개수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사이트(<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2.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에 포함된 대부분의 실천연합은 농업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SDG2(기아종식)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도모하는 SDG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와도 밀접하게 관련됨. 이밖에 토양건강 실천연합을 비롯한 식품·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실천연합,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실천연합 등은 SDG13(기후변화 대응)와 SDG15(육상 생태계) 등과 연관됨.

○ 토양건강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등은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를 통한 빈곤퇴치,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복원·보전 등의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실천연합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한 SDGs 세부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토양건강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이 각각 6개 SDGs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밖에 실천연합들은 1~4개 정도의 SDGs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표 4-8〉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실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농업생태(3)		●				●						●						
수산/블루푸드(1)		●																
축산업 규모 조정(2)		●										●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2)		●										●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2)		●										●						
자연친화적 혁신(3)		●										●	●					
토양건강(6)	●	●				●						●	●			●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4)		●											●			●		●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4)		●						●				●				●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3)		●										●				●		
토지 및 담수 넥서스(4)		●				●							●			●		
지속가능한 생산(6)	●	●						●					●			●	●	

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의 실천연합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자료에 SDGs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연구진에서 별도로 분석함. ()는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 SDG의 개수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3.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공평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역량 강화)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분야의 실천연합들은 경제, 사회 및 정책 등 다방면에서의 공평성과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SDG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SDG3(건강과 복지), SDG5(성평등),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불평등 완화) 등 공평한 생계, 일자리 기타 소외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SDGs 세부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임금 실천연합의 실천목표와 내용이 가장 많은 6개 SDGs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토착민 푸드시스템(5개),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과 도시 푸드시스템이 각각 4개 SDGs와 관련됨.

〈표 4-9〉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실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6)	●	●	●		●			●		●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4)	●	●			●			●									
도시 푸드시스템(4)	●	●									●	●					
토착민 푸드시스템(5)	●	●	●						●	●							

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의 실천연합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자료에 SDGs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연구진에서 별도로 분석함. ()는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 SDG의 개수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4.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

○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이 빈곤퇴치(SDG1), 기아종식(SDG2)을 비롯하여 가장 많은 총 9개의 SDGs와 관련이 있으며, 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의 경우도 6개 SDG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의 경우 현재 관련 실천연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SDG13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됨.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기아종식, 식량안보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SDG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등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표 4-10〉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 관련 실천연합의 SDGs 연관성 분석

실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역식품 공급사슬(9)	●	●	●		●			●	●	●		●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3)	●	●											●				
식량위기 퇴치(6)		●			●					●			●			●	●

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의 실천연합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자료에 SDGs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연구진에서 별도로 분석함. ()는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 SDG의 개수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5.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 수단)

- 이 영역에 포함된 실천연합들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실천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정 SDGs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음.

2.2. 해외 주요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분석

- 해외 주요국의 푸드시스템 관련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국 유형별, 실천영역별 실천연합 참여 현황을 분석함. 참여국 유형은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함.
-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논의·실천에서 이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OECD 주요국은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분석함.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들 국가의 푸드시스템 관련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ODA 지원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국들을 중심으로 분석함.
 - OECD 참여 국가들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은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국제사회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임.

2.2.1. 참여국 유형별 참여 현황 분석

가) OECD DAC 회원국³¹⁾³²⁾

- OECD 주요국들은 국가별로 처한 다양한 여건·환경, 정책 우선순위·중요성, 기타 다양

31)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이나 현재 다양한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는 중이어서 분석에서는 제외함.

32)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제 참여 현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거나 검토·희망하고 있음 (이하 '관심·참여'로 표시).

-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다양한 실천연합이 마련되고,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개별 실천연합 참여를 결정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국가들이 아직까지 개별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 결정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님.

○ OECD 주요국(DAC 회원국)들의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관심·참여하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5~6개 정도의 실천연합에 관심·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가별로 관심·참여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음. 미국의 경우 관심·참여하는 실천연합의 수가 12개로 가장 많은 반면, 아이슬란드와 체코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개에 불과하였음.

- 미국(12개) 이외에 네덜란드(10개), 캐나다(9개), 프랑스(8개), 일본·독일·노르웨이·영국(각 7개), 덴마크·핀란드·스위스(6개) 등의 순으로 관심·참여하는 실천연합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임.

○ 전체 실천연합 중에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15개국)과 학교급식 실천연합(14개국)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관심·참여가 가장 많았음.

- 실천영역별로 살펴보면,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에 속하는 실천연합 중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14개국)에 관심·참여하는 OECD DAC 회원국 수가 가장 많음. 그러나 이 영역에 속하는 실천연합 중에서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식품손실 실천연합 등 3개 실천연합도 관심·참여 국가 수가 각각 7개국으로 비교적 많은 편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실천영역의 경우 수산/블루푸드(10개국)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에 관심·참여 국가 수가 8개국으로 가장 많음. 이밖에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생태 실천연합(5개국)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5개국)이 관심·참여 국가가 비교적 많은 편임.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의 경우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과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관심·참여 국가가 각각 5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는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에 관심·참여하는 국가 수가 15개 국으로 가장 많으며, 이밖에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과 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에 관심·참여 국가도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많은 편임.
- ‘Means of Implementation’의 경우 영토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의 관심·참여 국가가 4개국임.

〈표 4-11〉 OECD DAC 주요 회원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실천영역	실천연합	국가수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이슬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체코	슬로바키아	비고	
Nourish All People	기아종식 실천연합	7	●							●	●		●		●					●	●					●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	7		●		●			●						●					●	●					●	
	학교급식 실천연합	14	●	●		●		●	●		●	●	●				●	●	●	●	●					●	
	식품순실 실천연합	7	●	●			●					●				●				●			●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2											●							●							
가죽농 실천연합	2													●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실천연합	5								●	●			●	●												
	수산/블루푸드	10	●		●			●						●	●		●	●		●	●	●					
	축산업 규모 조정 실천연합																									EU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	8	●	●	●			●		●					●						●					●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2							●																	●	
	자연친화적 혁신	1					●																				
	토양건강 실천연합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실천연합	3	●					●							●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실천연합	5		●			●						●			●											EU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실천연합	1	●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실천연합																										
	농업생물다양성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5	●		●		●									●											EU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실천연합																									회원국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	5	●			●		●							●	●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주요도시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5			●			●						●		●					●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8	●				●	●				●	●			●	●			●						EU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15	●	●		●	●	●	●	●			●	●	●	●	●		●	●	●					EU	
	식량위기 퇴치	6	●				●						●							●						EU	
Means of Implementation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																										
	영토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	4						●				●															
국가별 참여(참여회망) 실천연합 수			12	6	4	4	7	7	6	4	3	3	7	5	6	9	8	2	2	10	7	2	5	1	2		

주 1) OECE DAC 회원국이나 실천연합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검토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제외하여 집계함.

2) 음영표시된 실천연합은 참여국이 제시되지 않거나, 포괄적(예컨대, EU, 회원국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 실천연합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함.

나) ODA 중점협력국

-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의 실천연합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실천연합에 대한 관심·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국가는 에티오피아(10개 실천연합), 필리핀(8개), 가나(6개), 방글라데시·파키스탄(5개) 등이었음.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4개의 실천연합에 관심·참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천연합에 대한 관심·참여 여부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국가도 4개 국가에 달하였음.
- ODA 중점협력국들의 실천연합 참여는 일부 실천연합에 집중되어 있었음. 실천연합 중에서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d' 실천영역의 기후 복원력있는 푸드시스템(13개국)과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9개국)의 관심·참여 국가가 가장 많은 편임. 다음으로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의 학교급식 실천연합(8개국), 기아종식 실천연합(6개국),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5개국),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의 농업생태 실천연합(6개국) 등에 관심·참여하는 국가가 비교적 많은 편임.
- 실천영역별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OECD DAC 회원국들은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에 포함된 다양한 실천연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반면,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국들의 관심은 학교급식 실천연합(8개국, 캄보디아·필리핀·네팔·파키스탄·에티오피아·르완다·세네갈·이집트), 기아종식 실천연합(6개국, 인도네시아·필리핀·방글라데시·파키스탄·가나·에티오피아)과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5개국, 필리핀·방글라데시·파키스탄·에티오피아)등에 집중되어 있음. 이밖에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가나, 에티오피아), 식품손실 실천연합(인도네시아), 가족농 실천연합(필리핀)에 1~2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을 뿐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의 실천연합의 경우에도 농업생태

실천연합(6개국,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스리랑카·에티오피아·세네갈)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5개국, 콜롬비아·가나·파라과이·필리핀·베트남), 축산 기반 푸드 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4개국, 몽골·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티오피아)에 관심·참여가 집중됨. 수산/블루푸드(3개국, 방글라데시·가나·페루),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실천연합(2개국, 인도·에티오피아),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실천연합(2개국, 콜롬비아·페루)에는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을 뿐임.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임금, 여성, 토착민 등의 취약계층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실천연합으로 구성됨. 그러나 이 실천영역의 실천연합들이 개발도상국에 밀접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 중점협력국 중에서는 이에 명시적으로 참여 또는 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파악되지 않았음.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의 경우에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13개국)과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9개국)에 ODA 중점협력국이 관심·참여가 집중됨. 그러나 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에티오피아)의 경우 1개 국가가 참여 또는 관심을 표명한데 그치고 있음.
- ‘Means of Implementation’에는 참여를 희망한 ODA 중점협력국이 없음.

〈표 4-12〉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실천영역	실천연합	국가 수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Nourish All People	기아증식 실천연합	6	●		●	●					●				●					●				●	●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	2														●					●									
	학교급식 실천연합(소말리아)	8			●	●					●	●									●	●			●	●				
	식품손실 실천연합	1		●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0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5				●	●					●										●						●		
	가족농 실천연합	1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실천연합	6	●		●	●					●										●				●					
	수산/블루푸드	3					●								●												●			
	축산업 규모 조정 실천연합	0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	2													●						●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4							●								●		●	●										
	자연친화적 혁신 실천연합	0																												
	토양건강 실천연합	2																			●	●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실천연합	0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실천연합	2																									●	●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실천연합	0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실천연합	0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5	●			●										●											●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실천연합	0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		0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0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0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9		●		●	●				●				●						●		●		●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13			●	●	●			●		●		●	●						●	●	●		●	●	●			
	식량위기 퇴치	1																			●									
Means of Implementation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	0																												
	영토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	0																												
국가별 참여(참여회망) 실천연합 수			2	3	3	8	5	1	0	2	1	5	0	2	6	0	1	0	1	10	4	1	1	4	3	3	3	0	1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함.

2.2.2. 실천영역별·참여국 유형별 비교 분석

가) ‘N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 실천연합별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여건·환경이 상이한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N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실천영역에 포함된 총 7개의 실천연합 중에서 기아종식 실천연합,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먹거리 접근성과 적절한 건강·영양 수준 제고라는 보편적 먹거리 이슈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OECD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 수준이 모두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건강한 식이와 식품손실 실천연합은 OECD DAC 회원국,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은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가족농 실천연합의 경우 OECD DAC 회원국과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가 모두 낮은 편임.

〈표 4-13〉 ‘Nurish All People’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실천연합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협력국
기아종식	미국, 아일랜드, 헝가리,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7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가나, 에티오피아(6개국)
건강한 식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7개)	에티오피아, 가나 (2개)
학교급식	핀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미국,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일본(14개)	에티오피아, 세네갈, 르완다,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집트(8개)
식품손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7개국)	인도네시아(1개)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Countries for information, knowledge, tools, examples, capacity building and dialogue on the topic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독일, 네덜란드(2개)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페루(5개)
가족농	스페인, 스위스(2개)	필리핀(1개)

주 1)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의 경우 참여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

2) 정리된 국가들은 해당 실천연합에 관심을 표명하였거나 참여를 확정된 국가들임.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 에 포함된 실천연합 중에서 OECD DAC 회원국과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가 모두 활발한 실천연합은 농업생태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임.

- 농업생태 실천연합은 OECD DAC 회원국 5개국, ODA 중점협력국 6개국,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은 ODEC DAC 회원국 5개국, ODA 중점협력국 5개국이 관심·참여하고 있음.

○ 수산/블루푸드 실천연합,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은 OECD DAC 회원국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ODA 중점협력국은 상대적으로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실천연합(5개국, 콜롬비아, 가나, 파라과이, 필리핀, 베트남)의 참여가 많은 편임.

〈표 4-14〉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실천연합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협력국
농업생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5개국)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베트남(6개국)
수산/블루푸드	미국,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10개국)	방글라데시, 가나, 페루(3개국)
축산업 규모 조정	-	-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8개국)	인도, 에티오피아(2개국)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호주, 핀란드(2개국)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4개국)
자연친화적 혁신	영국(1개국)	-
토양건강	-	에티오피아, 르완다(2개국)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일본, 미국, 스위스(3개국)	-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독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5개국)	콜롬비아, 페루(2개국)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미국(1개국)	-
토지 및 담수 넥서스	-	-
지속가능한생산성 향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5개국)	콜롬비아, 가나, 파라과이, 필리핀, 베트남(5개국)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공평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역량 강화)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의 실천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실천영역의 실천연합에 비해서 많지는 않음. 특히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과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에 각각 5개국의 OECD DAC 회원국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ODA 중점협력국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참여·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없는 상태임.

-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실천연합의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단위의 참여가 아닌 국가별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5〉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실천연합	OECD DAC 회원국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국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임금	-	-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5개국)	-
도시 푸드시스템	-	-
토착민 푸드시스템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5개국)	-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 실천영역의 3개 실천연합 중에서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과 기후 복원력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에는 OECD DAC 회원국과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가 모두 많은 편임. 그러나 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의 경우 OECD DAC 회원국의 관심·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 4-16〉 ‘Build Resilience to Vulnerable, Shocks, and Stresses’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실천연합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협력국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8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가나,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9개국)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덴마크(15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13개국)
인도주의, 개발 및 평화 넥서스에 따른 식량위기 퇴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6개국)	에티오피아(1개국)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 수단)

-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은 특정국가의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회원국 모두의 참여를 촉구하며, 영토포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은 우리 정부 중점협력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OECD DAC회원국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의 4개 국가가 관심·참여하고 있음.

〈표 4-17〉 ‘Means of Implementation’ 관련 실천연합 참여국 분석

실천연합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협력국
공공개발은행 실천연합	-	-
영토포드시스템 거버넌스 촉진 실천연합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4개국)	-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2. 10.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제사회 협력 분야와 참여 가능 실천연합 진단³³⁾

3.1. 협력 분야 및 실천연합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³³⁾ 제2~4장에서 이루어진 검토·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연계·협력 및 기여 가능한 분야와 참여 가능 실천연합을 진단함.

○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local), 국가, 지역권역(rigional) 등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적 범위를 단위로 하는 개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임. 따라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연계·협력과 기여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와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국제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해외 주요국 등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러한 연계·협력이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

○ 우리나라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연계·협력 및 기여 가능한 분야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천연합을 도출하기 위해 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푸드시스템 관련 정책 우선순위 ② UN 실천연합의 파급 영향 및 운영 현황 ③ 해외 주요국 실천연합 참여 현황 ④ 우리 정부의 UN 푸드시스템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첫째,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각국의 국가경로의 주요 내용을 통해 분석함.
- 둘째, UN 실천연합의 파급 영향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실천연합의 UN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현재 개별 실천연합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셋째, 실천연합 참여 현황은 실천연합별 참여국가 규모를 통해 파악함.
- 넷째, 우리 정부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기여 가능한 분야 또는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 실천연합 등을 밝힌 바 있음. 이를 우리 정부의 UN 푸드시스템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는데 활용함.

3.2. 연계·협력 분야 및 참여 실천연합 분석

3.2.1.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정책 우선순위

- 국가경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천연합을 탐색함.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실천연합)와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실천연합)를 동시에 파악함.

가)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는 3대 전략 및 9개 중점과제를 기본 틀로 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함.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식량안보, 푸드시스템, 기후변화·환경 영역의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음. 이밖에 농업생산·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및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됨.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UN 실천연합 중에서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의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식품손실 실천연합,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실천영역의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생태,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 실천연합,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실천영역의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들과 비교적 밀접한 정책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평한 생계, 일자리 등과 관련된 실천연합을 포함하는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과는 정책 연관성이 크지 않은 편이었음.

〈표 4-18〉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구분	정책 우선순위	관련 실천연합			
		1	2	3	4
식량안보	식량보장, 건강·영양, 식품안전, 식생활·영양교육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 유기농업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한 생산성		
기후변화·환경	식품손실·폐기, 환경보존·보호, 기후스마트농업, 탄소중립	•식품손실	•농업생태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농업	농업생산·경쟁력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역 푸드시스템	로컬푸드				•지역식품 공급사슬

주 1)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국가경로에서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함.

2) 표의 관련 실천연합에서 1~4는 UN 푸드시스템의 4개 실천분야를 의미함. 1은 'Nourish All People', 2는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3은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4는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임.

자료: 저자 작성.

나) OECD DAC 회원국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 OECD DAC 회원국들은 대체로 주요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경로를 수립함. 이들 국가는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주로 건강·영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푸드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이들 OECD DAC 회원국들은 기후변화·환경과 관련해서는 식품손실·폐기, 환경보존·보호, 기후스마트 농업 등 비교적 광범위한 이슈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업 및 지역 푸드시스템 관련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음.

○ OECD DAC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UN 실천연합들은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의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식품손실 등 3개 실천연합,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실천영역의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생태,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 등 6개 실천연합,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의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등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OECD DAC 회원국들도 국가경로의 정책 우선순위와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에 포함된 실천연합과의 정책 연관성이 크지 않았음.

〈표 4-19〉 OECD DAC 회원국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구분	정책 우선순위	관련 실천연합			
		1	2	3	4
식량안보	건강·영양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한 생산성		
기후변화 환경	식품손실·폐기 환경보존·보호 기후스마트농업	•식품손실	•농업생태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농업	-				
지역 푸드시스템	-				

주: 정책 우선순위는 OECD DAC 회원국의 국가경로 중에서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저자 작성.

다) ODA 중점협력국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 ODA 중점협력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DAC 회원국들에 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푸드시스템 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체로 이들 국가의 국가경로는 푸드시스템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OECD 주요국들과 유사한 정책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는 달리 취약농, 농촌·지역 발전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ODA 중점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대체로 우리나라 또는 OECD 주요국들과 연관되는 실천연합이 비슷한 편임. 그러나 이들 ODA 중점협력국들의 국가경로상의 정책 우선순위는 ‘Nourish All People’의 기아종식, 가족농 실천연합 등 2개 실천연합,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의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의 식량위기 퇴치 실천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표 4-20〉 ODA 중점협력국 푸드시스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 실천연합

구분	정책 우선순위	관련 실천연합			
		1	2	3	4
식량안보	식량보장, 건강·영양, 식품안전, 식생활·영양교육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한 생산성		
기후변화 환경	식품 손실·폐기, (생산) 환경보존, 기후스마트농업	•식품손실	•농업생태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지 및 담수 넥서스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농업	취약농·농업생 산·경쟁력	•가족농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지역 푸드시스템	로컬푸드, 농촌·지역 발전				•지역식품 공급사슬 •식량위기 퇴치

주: 정책 우선순위는 ODA 중점협력국의 국가경로 중에서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저자 작성.

3.2.2. 실천연합의 UN SDGs 파급 영향과 운영 현황

가) UN SDGs 파급 영향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들은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SDG2(기아종식), SDG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 그러나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17개 SDGs가 포괄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이에 따라 각각의 실천연합들은 SDG2와 SDG12 이외에도 다양한 SDGs와 연관관계를 가짐.

○ 실천연합의 목표와 추진 내용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SDGs는 상이하며, 규모와 범위도 상이함. 연관되어 있는 SDGs의 규모와 범위가 클수록, 보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정책 간 연계를 확대할 수 있으며, SDGs가 포괄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개별 실천연합들은 각각의 실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UN SDGs의 달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또한 개별 실천연합들이 각각의 실천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푸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SDGs 17개 목표의 달성이 동반되어야 함.

○ 분석 결과 전체 실천연합 중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이 SDGs와의 연관관계가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목표와 추진 내용이 전체 17개 SDGs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지역식품 공급사슬(8개)이 비교적 다양한 SDGs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6개), 토양건강(6개), 지속가능한 생산성(6개),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임금(6개), 식량위기 퇴치(6개) 등의 실천연합이 각각 6개의 SDGs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에 포함되어 전 세계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영양을 증진하고자 함.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경제에 기여하고 소농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푸드시스템에 보다 광범위한 파급 영향을 미치고자 함.

나) 실천연합 운영 현황

○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해외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주도로 다양한 실천연합이 만들어졌으며, 각국,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의 실천연합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실천연합이 아직 수립·운영 초기단계이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상당수의 UN 회원국들도 아직까지는 실천연합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실천연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구성되어 있는 28개 실천연합 중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연합은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의 2개 실천연합임. 이들 실천연합은 추진 체계와 내용 등이 다른 실천연합에 비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천연합의 활

동에도 진전이 있는 편임.

- 대부분의 실천연합이 아직까지 실천연합의 추진 목적과 내용 등을 소개하고 UN 회원국의 관심·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농업생태 실천연합은 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활동도 이미 추진하고 있음. 이들 2개 실천연합은 다른 실천연합과는 달리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4-2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과 SDGs와의 연관성

실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연관 SDGs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ourish All People	기아종식		●															1	
	건강한 식이		●	●								●						2	
	학교급식	●	●	●	●	●	●	●	●	●	●	●	●	●	●	●	●	●	17
	식품손실		●								●	●	●					4	
	식품의 진정한 가치 이니셔티브		●															●	2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	●						●		●		●					●	6
	가족농	●	●															●	3
Boost Nature- 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			●						●						3	
	수산/블루푸드		●															1	
	축산업 규모 조정		●									●						2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									●						2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									●						2	
	자연친화적 혁신		●									●	●					3	
	토양건강	●	●				●					●	●			●		6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										●			●		●	4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						●			●				●			4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결정		●										●			●			3
	토지 및 담수 넥서스		●				●							●		●			4
	지속가능한 생산성	●	●						●					●		●	●		6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소득 임금	●	●	●		●			●		●							6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	●			●			●									4	
도시 푸드시스템		●	●								●	●						4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토착민 푸드시스템	●	●	●						●	●							5	
	지역식품 공급사슬	●	●	●		●			●	●	●	●						●	8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	●											●				3	
식량위기 퇴치		●			●					●			●			●	●	6	

자료: 저자 작성.

3.2.3. 실천연합 참여 현황

○ 실천연합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관심·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실천연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규모를 파악함.³⁴⁾

가) OECD DAC 회원국

○ OECD DAC 회원국들은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별 실천연합에 관심·참여하고 있음. 분석 결과 전체 실천연합 중에서는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15개국)과 학교급식 실천연합(14개국)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관심·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가장 많은 관심·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식품손실 등 3개 실천연합에도 전반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관심·참여하고 있는 편임.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실천영역에서는 수산 분야 실천연합(수산/블루푸드 실천연합)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농업생태 실천연합,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등에 참여하는 국가가 비교적 많은 편임.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에서는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실천연합과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비교적 많은 편임.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실천영역의 경우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과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참여국들이 상대적으로 많음.

³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참여를 확정한 실천연합은 없음. 따라서 실천연합 참여 국가 집계 과정에서 제외하고 분석함.

나) ODA 중점협력국

○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13개국)과 학교급식 실천연합(8개국)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ourish All People’ 실천영역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 기아종식 실천연합에 가장 많이 관심·참여하였으며,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실천영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과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실천연합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함.
-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실천영역의 실천연합에 대한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참여는 아직까지 없었음.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실천분야의 경우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과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가장 많았음.

〈표 4-22〉 OECD 주요국과 ODA 중점협력국의 주된 참여 실천연합 현황

실천영역	OECD 주요국	ODA 중점협력국
Nourish All People	학교급식	학교급식
	건강한 식이	
	식품손실	기아종식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생태	
	산림파괴 및 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광범위한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
	토착민 푸드시스템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회복력있는 지역식품 공급사슬	회복력있는 지역식품 공급사슬

자료: 저자 작성.

3.2.4. 우리나라 UN 푸드시스템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

- 푸드시스템 관련한 우리 정부의 관심 분야와 검토를 추진한 실천연합 등은 우리 정부의 향후 국제사회 연계·협력 또는 지원 가능한 분야(실천연합)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참여 가능한 실천연합을 도출·진단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최근에는 농업생태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에 대한 가입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음.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총 9개 실천연합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천연합으로 진단됨.
 - 기아 감소 차원에서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식량위기 퇴치 등 4개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급식 실천연합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식품·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지역식품 공급사슬,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등 3개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23〉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천연합

실천영역	협력·기여 가능 분야			검토 가능 실천연합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Nourish All People	기아종식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학교급식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식품·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생태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Crossed out)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식량위기 퇴치			
			지역식품 공급사슬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3.3. 종합 진단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정책 우선순위, 실천연합의 파급 영향과 운영 현황, 참여 현황, 우리 정부의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실천연합은 총 8개 실천연합 정도였음.
- 8개 실천연합은 실천분야별로 ‘Nourish All People’의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 학교급식 실천연합, 식품손실 실천연합 등 3개 실천연합,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의 농업생태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 등 3개 실천연합,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의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기후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등 2개 실천연합임.
 - 이들 8개 실천연합 중에서 식품손실 실천연합과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은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아니며, OECD DAC 회원국들에 비해 ODA 중점협력국의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음. 그러나 이들 실천연합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국가경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24〉 기준별 참여 가능 실천연합과 종합진단 결과

실천영역	정책 우선순위			피급영향과 운영 현황		참여 현황			우리 정부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	종합진단
	우리나라	OECD/DAC 회원국	ODA 중점 협력국	SDGs 연관성	운영현황	전체	OECD DAC 회원국	ODA 중점 협력국		
Nourish All People			기아중식			기아중식		기아중식	기아중식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건강한 식이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식품손실	식품손실	식품손실			식품손실	식품손실			식품손실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컨소시엄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가족농							
	농업생태	농업생태	농업생태			농업생태	농업생태		농업생태	농업생태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축산기반 푸드시스템을 통한 초원 복원		
	자연친화적 혁신	자연친화적 혁신	자연친화적 혁신							
	토양건강	토양건강	토양건강	토양건강						
									식품 농업을 위한 공공지원 개편	
						신림파피 및 전용으로 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신림파피 및 전용으로 부터 자유로운 공급사슬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토지 및 담수 넥서스	토지 및 담수 넥서스	토지 및 담수 넥서스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양질의 일자리 및 생활 소득 임금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여성과 여아를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토착민 푸드시스템		토착민 푸드시스템	토착민 푸드시스템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지역식품 공급사슬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식량위기 퇴치	식량위기 퇴치					식량위기 퇴치	

자료: 저자 작성.

4. 주요 실천연합 세부 추진 현황과 국내 관련 정책

- 이 절에서는 종합진단 결과 우리나라가 향후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8개 실천연합의 세부 추진 현황과 관련 내용을 정리함.³⁵⁾ 또한 이중 운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실천연합’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천연합 가입·참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4.1.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³⁶⁾³⁷⁾

4.1.1. 배경 및 필요성

- 영양문제는 인간의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며,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고 있음.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취약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매년 막대한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①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바람직한 영양과 건강을 위해 사람들의 식단에서 적절한 양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다양한 식품을 증가시키고, ② 기후, 토양, 물 및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③ 고소비그룹의 과도한 동물성식품 소비를 억제하며,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포함하여 건강에 해로운 지방, 설탕 및 소금이 함유된 식품·음료의 소비를 제한해야 함.

35)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36) 영문명은 ‘The Coalition of Action for Healthy Diets from Sustainable Food Systems for Children & All: The Healthy Diets Coalition’임.

37)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coalitions-in-the-context-of-the-food-systems-summit>)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4.1.2. 추진 목표

-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부터 건강한 식사(healthy diets)를 하는 세상’이라는 공동 비전하에, 영양 및 생활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이 공급되며,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건강한 식사는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에 해를 끼치는 소비를 피하면서 영양가 있는 식품이 영양과 건강 증진 물질들을 과잉 없이 적절하게 제공하는 식단’임.³⁸⁾

4.1.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이행 체계

-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은 국가 및 국제사회가 공동 비전을 향해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 식품환경, 식품가치 인식 등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정, 동원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함.
 - (식품공급)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식품 공급을 늘리는 조치
 - (식품환경) 소비자들의 식품 조달과 관련된 제도, 가격, 정보 및 물리적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식품가치 인식) 교육, 정보, 수요 창출 및 행동변화를 지원하여 개인, 가정, 지역사회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실천연합은 회원국의 기존 활동 및 계획과 ‘하나의 건강 접근법(the One Health approach)’, ‘UN 영양에 관한 10년 행동(UN Decade of Action on Nutrition)’, ‘어린이 식사를 위한 글로벌 연합(the Global Coalition for Children’s Diets)’,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등의 자발적 지침을 포함한 UN의 이니셔티브, 전략 및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³⁸⁾ UN 식량정상회담(United Nations Forum on Sustainability Standards: UNFSS)의 정의임.

이들을 상호 연결하고자 함.

- 또한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조치들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며, 상호학습(peer-to-peer)을 촉진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회원국들이 시스템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영양, 건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함. 이밖에 실천기반학습(learn by doing)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참여국들의 협력을 추구함.

나) 전략적 파트너

- 국가: 브라질, 칠레, 덴마크,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핀란드, 가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및 아랍에미리트 등
- UN 기구, 기금, 프로그램 및 협력기관: FAO,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FP,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 영양기구(UN Nutrition)
-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CSOs/NGOs) 및 관련 행동: EAT, 영양 강화를 위한 국제연합(the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 세계자연기금(the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 국제원조구호기구(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CARE), 로마클럽, SUN Movement³⁹⁾⁴⁰⁾
- 학계: 런던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London),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³⁹⁾ EAT은 푸드시스템 혁신을 위한 과학기반 글로벌 플랫폼임.

⁴⁰⁾ SUN은 Consumers International and the Scaling Up Nutrition의 약자임.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실천연합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책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건강한 식사를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FAO, IFAD, UNICEF, WFP 및 WHO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의해 측정)⁴¹⁾
- 최소한의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는 어린이의 비율(UNICEF 영유아 수유에 관한 연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측정)
- 영양 관련 SDG 목표, 특히 SDG 2.2, 2.5, 3.1, 3.2 및 3.4. SDG 12(12.2, 12.8, 12.6 및 기타)에 따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목표
- 세계보건총회 영양 및 비전염성질병(Noncommunicable Diseases: NCD) 목표 2025(The World Health Assembly Nutrition and NCD Targets 2025)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WHO에 의해 모니터링 된 건강한 식사와 영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 측면에서의 회원국의 진전 수준(과일·야채,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산, 마케팅 규제 및 학교 영양 활동에 관한 정책 활동과 관련된 지표 포함)

라) SDGs 기여 부문

○ SDG 2(기아종식), 3(건강한 삶과 웰빙), 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4.2. 학교급식 실천연합⁴²⁾⁴³⁾

4.2.1. 배경 및 필요성

41) IFAD는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의 약자임.

42) 영문명은 'School Meals Coalition: Nutrition, Mealth and Education for Every Child'임.

43)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학교급식 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schoolmealscoalition.org>, 검색일: 2022. 9. 15.),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15.)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개인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및 푸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은 적절한 건강·영양을 유지·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지역 농업과 시장을 지원하는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큼.
- 2020년 초까지 국가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교급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최소 161개 국가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면서, 전 세계 취학 연령대 어린이 2명 중 1명(약 388백만 명)이 급식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국가별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고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3~2020년 사이에 학교급식을 받은 어린이 수는 전 세계적으로 9%, 저소득 국가에서는 36%나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 7,300만 명은 여전히 학교급식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 이룬 진전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음. 2020년 4월 기준으로 COVID-19 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학교를 폐쇄하였고, 이에 따라 약 370백만 명의 학생들이 하루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 특히 가정 내에서 식품·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 아동이 학교급식 프로그램 중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게 됨.
- 이에 따라 COVID-19로 인해 취약 아동의 복지와 미래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 또한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평등하고 양질의

학교 기반 건강 및 영양 서비스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됨.

〈글상자 4-1〉 학교급식의 영향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인적 자본 창출, 국가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이에 COVID-19 이후의 각국 재건 측면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투자 대상임.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개별 가구의 자녀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중요한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해결하며, 이를 통해 개별 가구에도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제공함.
-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교육받은 인적 자원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러한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교육받은 인적 자원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러한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교육, 건강 및 영양, 사회보장, 지역농업 등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자료: 학교급식 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schoolmealscoalition.org>, 검색일: 2022. 9. 19.) 참조.

4.2.2. 추진 목표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식품, 교육, 사회보장 및 보건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주도하고자 함.
 - 팬데믹 이전의 기존 학교급식 및 학교기반 보건서비스 복원(~'22)
 - COVID-19 팬데믹 이전에도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을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포함(~'30)
 - 건강한 식품 환경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식품을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30)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학교급식을 통해 기아종식, 영양개선(SDG2) 뿐만 아니라 모든 17개 SDGs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글상자 4-2〉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새로운 점과 기존 현장 상황과의 차이점

- 학교에서의 건강한 식품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산 및 제철식품과 연계하면서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식품과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식사 섭취를 장려하는 것에 의해 기존의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효율성이 모든 국가에서 개선될 것임.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혜택을 주면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기회 개선, 여성기업인 지역 일자리 창출, 전체 공급체인에서의 가치 부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현재의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변화가능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면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것임.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교육시스템과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학교급식 실천연합 하에서 각국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재수립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복구할 것을 약정함.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에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장 취약한 7,300만 아동들이 대상에 포함하며, 이들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프로그램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료: 학교급식 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schoolmealscoalition.org>, 검색일: 2022. 9. 19.) 참조.

4.2.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실천연합의 성격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보완적 개입 수단들의 품질, 지속가능성, 규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관련 자원(모범사례, 경험, 정보 및 기술 지원 등)을 모으기 위해 마련됨.
- 실천연합은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간주하고, UN기관, NGO, 싱크탱크 및 관련 단체와 조직들을 파트너로 포함하여 구성됨. 실천연합은 기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파트너십이 아니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 및 지출에 관여하지 않음. 학교급식프로그램을 개선·확장하기 위한 자금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국의 국가기관에 의해서 논의 및 처리됨.
 - 각국 정부는 실천연합을 주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파트너들은 각국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천연합의 전반적인 지원은 WFP 사무국을 통해서 이루어짐.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저소득 국가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우선순위로 두지만, 이밖에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개선도 중요한 사안임.

나) 이행 체계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각국에 실질적인 지원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WFP, 런던보건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LSHTM),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등 3개의 주요 파트너와 협력함.

- WFP는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하며, 로마에 소재한 학교기반 프로그램 부서(School-based Programmes Division)를 통해 실천연합의 조직 및 관리를 지원함. WFP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며, 국가별 조치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이니셔티브들을 개발하고, 이를 감독하고 조정함.
 - WFP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학교급식클러스터, 아프리카연합개발기관-아프리카개발신협력계획(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AUDA-NEPAD)과 함께 실천연합 이행 현황을 추적·설명하기 위한 관련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호스팅함.

- 런던보건대학원(LSHTM)은 학교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연구 컨소시엄을 주관하면서, 학교와 관련된 재정지원 품질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 연구 컨소시엄은 2021년 5월에 출범하였으며, 향후 10년간의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 아젠다를 수립할 예정이다.
 - LSHTM은 국가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규모와 품질을 개선하며, 학계, 싱크탱크 및 연구 파트너들의 노력을 조직화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공할 것임.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는 학교 건강과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자금조달 태스크포스를 주도함.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금을 찾고, 프로그램이 자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투자 방법을 찾고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다자 공여자들 및 각국과의 협력이 포함됨.

- 이러한 협력 구조를 유지하고 관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은 프랑스, 핀란드

및 두바이 케어(Dubai Cares)를 포함한 공여자들로부터 확보됨.

다) 전략적 파트너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식량, 교육 시스템을 재건, 개선 및 확장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며,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및 기타 광범위한 파트너들로 구성됨.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프랑스, 핀란드 등을 주축국으로 하며, UN WFP 운영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됨. 현재까지 실천연합 참여를 밝힌 국가가 59개국에 달하며, UN 기구, 학계, 시민사회, 지역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61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지원 선언문에 서명함.

- 핀란드, 프랑스, 르완다, 세네갈,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연합 등이 주도함.

- WFP, UNICEF, FA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네스코), WHO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법을 명시한 구체적인 지원선언문에 서명함.

라) 모니터링 및 평가

○ 실천연합의 목표와 SDGs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이 WFP와 파트너들에 의해 개발 중이며, 글로벌 학교급식 데이터베이스가 두바이 케어(Dubai Care), 연구 컨소시엄,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및 AUDA-NEPAD와 협력하여 구축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세 명의 보조자(seconded)가 AU에 배치되고, WFP는 2년마다 “전 세계 학교급식 현황(State of School Feeding Worldwide)”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보고서는 실천연합의 보고 메커니즘 역할을 하고, 보다 광범위한 FSS 후속 메커니즘에 반영될 예정임.

마) 실천연합 참여 절차 및 방법

○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다음의 절차를 거침.

- 첫 번째 단계: 참여 희망 국가는 약정서(Declaration of Commitment)에 서명함. 'Declaration@schoolmealsCoalition.org'에 서면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음.
- 두 번째 단계: 참여국 정부는 실천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제시하도록 권장됨. 약정은 국내 학교급식 프로그램 개선 또는 글로벌, 지역권역(regional) 또는 국가(country) 수준에서의 참여, 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약정서(Declaration of commitment and national commitment)는 총리(prime minister) 또는 국가원수(head of state level in the case of government) 수준, 조직의 경우 CEO 수준에서 서명해야 함.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declaration은 장관급(ministerial level)에서도 서명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참여는 다음의 주요 5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짐. 참여 유형과 방법은 각국 정부와 파트너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하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공동의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연구 컨소시엄(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ecine 주도): 정부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수집하고 배포
-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태스크포스(교육위원회 주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동원에 대한 정보 제공
- 모범사례를 위한 P2P 커뮤니티(독일 주도): 모범 사례와 교훈 공유
- 데이터 및 모니터링 이니셔티브(WFP 주도): 실천연합의 성과를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커뮤니케이션 및 파트너 지원활동(outreach) 그룹(WFP 및 파트너 등 주도)⁴⁴⁾

⁴⁴⁾ TBC는 'Toilet Board Coalition'의 약칭임.

〈표 4-25〉 회원국의 학교급식 실천연합 참여 방법(참고 예시)

구분	목적	주요 예시
국내	국내 학교급식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동안 학교급식 프로그램 수혜 범위를 50,000명에서 150,000명으로 확대 •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국내 재원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련 •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 또는 재검토 •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이사회 설립 • 건강한 학교 환경에 관한 규정 또는 학교급식에 관한 영양 기준 마련 •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가 학교급식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마련
해외	다른 국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가와 함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관한 peer-to-peer 활동에 참여(연구 방문, 사례 연구, 기술지원 등) • 국가 학술기관과 학교급식 연구 컨소시엄 간의 연결 관계를 구축 •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법을 찾기 위해 자금 조달 태스크 포스에 합류 •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늘리는데 전념 • 향후 10년 동안 실천연합의 활동을 유지하거나, 일부 이니셔티브에 기금을 지원

자료: WFP 웹페이지(<https://www.wfp.org>, 검색일: 2022. 9. 22.). 참조.

4.2.4. 주요국 약정의 주요 내용

가)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학교급식이 국가 식품정책의 중심 연결고리로서, 공중보건, 사회정의 및 성 평등, 시민권, 농업 및 경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교육 등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함.

○ 프랑스는 약정서(FRANCE'S COMMITMENT DOCUMENT)를 통해 학교급식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개입방식이며, COVID-19 이후의 회복과 SDGs 달성의 원동력으로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함.

- 프랑스 정부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기아와 빈곤 해결, 건강한 식습관 형성, 영양, 학습, 장기적 웰빙 및 건강의 형평성 촉진,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 평등 촉진,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취약한 생산자 등을 지원하는 등 여러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함.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9월 13일에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대한 약정서를 승인함.

○ (국가 정책)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환기하며, 학교급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함.

- 급식에서 제공되는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의 최소 빈도와 지방 및 당류 제품 등의 최대 빈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보장함.
-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학교급식은 유기농 제품을 최소 20% 포함하고, 지속가능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최소 50% 포함해야 함. 이밖에 2021년 8월 22일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주 의무적인 채식 메뉴를 도입하고, 집단급식에서 제공되는 육류 품질에 대한 추가 목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강화함.
- ‘미식교실(Taste Classes)’ 제도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여 미식의 즐거움과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비만과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불안을 예방함.
- 학생들의 학교 급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5천만 유로에 달하는 농촌지역 학교급식 시설을 지원함.

○ (해외 주요국 및 실천연합)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G20, EU 등의 프레임워크에서 학교급식과 실천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에 기여하고 있음. 핀란드와 함께 실천연합의 중심축으로서 다른 국가와 논의 과정에서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며, 기술 지원, 경험 공유, 저소득 국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WFP 학교급식 부서에 전문가 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농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AA)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독일이 주도하는 모범 사례 교환을 위한 전문가 커뮤니티에 합류함. 프랑스 지방정부도 참여하여 관련 경험을 발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프랑스는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여 국가적 경험과 시행 중인 학교 급식 관행을 공유할 것임.

○ 프랑스의 실천연합에 관한 지원은 또한 프랑스 연구기관(CIRAD, IRD, INRAE) 등의 학교 및 영양 연구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참여를 포함함. 또한 WFP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기여하여 2021년에 1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프랑스의 재정 지원 중 일부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임(예컨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에티오피아, 아이티,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 국제 컨소시엄은 LSHTM(런던보건대학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역 실무자를 포함하여 대학, 싱크탱크, 연구 파트너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반영하여 아동의 식품, 영양, 교육 및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 전략을 수립하고, 남부국가의 농촌지역에서 제품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가족농의 발전을 촉진함.

〈글상자 4-3〉 프랑스 학교급식 실천연합 약정문

MINISTRY OF EUROPE AND FOREIGN AFFAIRS
COALITION FOR SCHOOL MEALS:
NUTRITION, HEALTH AND EDUCATION FOR ALL CHILDREN

FRANCE'S COMMITMENT DOCUMENT

France strongly supports the intensification and scaling up of school feeding programs, as a driver of post-COVID-19 recovery and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e believe that school meals programs are systemic solutions to address child hunger and poverty, promote healthy eating behaviors, promote nutrition, learning, long-term well-being and equity in health, and promote gender equality by keeping girls in school.

Indeed, school feeding programs are much more than school food. They help improve and diversify children's diets, teach them how to eat better for short and long-term health benefits, and help support local markets and food systems, through the use of locally produced food, where possible, thereby improving opportunities for smallholder farmers and local catering businesses, many of which are run by women.

Setting up healthy and diversified school meals, therefore, means ensuring the nutritional balance and therefore the health of children; but it is also promoting their food education, and bringing together the younger generations and the agricultural system, which produces what we consume. In addition, we know that these school meals are an undeniable factor of academic success - a child who eats well is a child who learns well - and by extension of re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and gender inequalities.

While the leaders of the world consider that the SDGs are more essential than ever, including rebuilding the post-pandemic world, school meals must be considered as a transversal intervention modality, presenting several co-benefits, which will contribute to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future.

This is why France is joining the School Meals Coalitio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endorsed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the Coalition on September 13, 2021.

In this context, France is making the following commitments in order to achieve its objectives.

National policy:

Collective catering in school meals is a central link of food policy in France. It plays a key role

in responding to several fundamental issues: public health, social justice and gender equality, citizenship, agri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ducation.

School catering is particularly supervised in France. On the one hand, nutritional balance is ensured through the imposition of a minimum frequency of fruits and vegetables, meat, fish or dairy products, as well as a maximum frequency of fatty and sweet products. On the other hand, on January 1, 2022, the meals served in school catering must consist of at least 50% of sustainable and quality products, including at least 20% of products from organic farming.

The law of 22 August 2021 o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in the face of its effects reinforce these requirements by introducing a compulsory vegetarian menu each week, and additional objectives on the quality of meat served in collective catering. Finally, the "Taste Classes" system has been deployed in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arouse gustatory pleasure and to encourage students' food curiosity in order to prevent obesity and children's apprehension with regard to food. certain foods.

To increase students' access to school meals, aid for school canteens in rural communities amounting to € 50 million was recently put in place as part of the Recovery Plan.

Advocacy:

France is already contributing to political mobilization in favor of school feeding and the Coalition internationally (e.g. framework of the G20, EU). It will continue its efforts in this direction, by co-facilitating the advocacy pillar of the Coalition alongside Finland; by promoting the Coalition during discussions with representatives of states and governments, particularly French-speaking ones.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and sharing experience, supporting the low-income countries: France will finance the provision of an expert placed with the WFP school feeding division, whose recruitment is underway.

Through the expertis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AA), France joins the community of experts for the exchange of good practices between peers led by Germany. French local authorities will also be able to present their experience. France will thus share its national experience and the school feeding practices in force, including their social dimension.

France's support is also reflected in the contribution of French research institutes (in particular CIRAD, IRD and INRAE), which are already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research on health in schools and nutrition, officially launched on May 27. Led by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this global consortium coordinates the efforts of universities, think tanks, research partner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local practitioners, to put in place win-win strategies to promote children's food, nutrition, education and health, whil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family farming by ensuring product traceability in the rural areas of southern countries. The UNESCO Chair "Foods from around the world" will lead the French research network on school feeding. The identification of French researchers working on this question and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o integrate them into the network is continuing.

The network is currently in discussions with researchers from Harvard University,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and funders to mount research projects of common interest. Emerging themes of concern are i) the comparison of different school catering models in Africa and ii) the impact studies of national school feeding programs in different countries.

In addition, France contributes to the financing of the school canteens program of the World Food Program (WFP), to the tune of one million euros in 2021, and some of the projects financed by France under its programmed food aid (Aide alimentaire programme, AAP) in countries experiencing food crises will focus in particular on support for school canteens, as is the case in 2021 in Afghanistan (up to 13 million euros), Algeria, Ethiopia, Haiti, Nig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Venezuela.

자료: WFP 내부 자료.

나) 핀란드

- 핀란드 정부는 구체적인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s)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학교급식 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실시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에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려서 500만 유로를 기부함.
- 또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에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핀란드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핀란드 기업 및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를 개발함.

<글상자 4-4> 핀란드 학교급식 실천연합 약정문 주요 내용(원문 발췌)

Finland National Commitment

Please find herewith our national commitments for the School Meals Coalition:

Finland's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Mr Ville Skinnari will continue to act for the year 2022 as the WFP's Global Champion for School Meals. In this role, Minister Skinnari will provide high-level advocacy work to generate interest and resources towards school meals.

This year Finland is doubling its support to WFP's school meals programmes with a contribution of 5 million euros. The exact country programmes are still being determined.

Finland is ready to provide technical expertise for countries wishing to develop their school meals programmes. To facilitate this, we have developed a website with information on the Finnish school meals system and connections to Finnish companies and experts.

자료: WFP 내부 자료.

다) 독일

- 독일 정부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전 세계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실천연합을 지지하고, 의제 달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46차 회의에서 학교 영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13회 '기아퇴치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기아퇴치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설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독일 정부는 약정서를 통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보호

수단으로 인식하며, COVID-19로 인해 학교급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적절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함.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아와 가난을 퇴치하고, 건강, 웰빙 및 학습능력을 확보하고, 학교 출석률을 높이고,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푸드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및 국가 시장을 강화하고, 소농 및 지역 소상공인(종종 여성이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함.

○ 기여·지원 사항

- 국가 정부와 지역 조직의 관심 있는 전문가들 간의 경험 교환을 촉진하고,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수립, 조정 또는 확대할 의사가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실천연합 산하에 P2P(pear-to-pear)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advocacy & outreach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영양의 지속적인 가시성에 기여함.
-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식사 섭취를 지원하는 동시에 특히 유기농 농산물을 염두에 둘 것을 강력히 지지함. 학교급식 실천연합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발견을 학교급식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제공
- 연방정부는 FAO의 양자신탁기금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통합품질기준의 개발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또한 학습한 교훈을 바탕으로 식생활 지침과 품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을 개발하여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보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식품 및 영양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와 그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회복(recovery and rehabilitation)을 지원하며, 이들 프로그램은 위기에 직면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지역식품을 제공함. WFP, UNICEF, FAO와 함께 독일 정부는 다양한 내용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속하며, WASH action과 인접 커뮤니티를 위한 소득 창출 기회를 개선하

는 것에 의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임.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각국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

- 사회적 보호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다른 이니셔티브들과 연계함. 동시에 UN FSS를 넘어서 다른 이행 파트너와 함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된 다분야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상호학습을 강화할 것임.
-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 WFP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위기의 시기에 기본적인 영양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식량안보와 어린이 건강에 기여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확립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임.

4.2.5. 국내 관련 정책 동향

- UN은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을 통해서 참여 국가들이 관련 지식·모범사례·교훈·정보 등을 교환하고, 실천연합의 추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지역(local),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따라서 실천연합 참여 국가들은 연관된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식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의 중앙부처가 식재료공급, 식품안전·품질, 영양·건강, 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급식 관련한 정책·사업을 추진함. 국가 학교급식 정책은 다양한 국가정책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공공급식의 역할·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급식 관련한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시키고 있음.
 - 학교급식 관련한 국가정책계획에는 ‘국가식량계획’(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계획’(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있음.

〈표 4-26〉 학교급식 관련 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부처
급식 안전·품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6월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를 유치원으로 확대(유치원 추가)하여 (원아수 50인 이상 유치원도 적용) 어린 아동(유아)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품질 제고 	교육부
건강·영양 균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반영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정, 균형잡힌 식단 및 제철식품 사용 권장 등 영양관리 지침 마련·제공, 학교별 나트륨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저감화 실천 유도, 어린이집·학교 급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급식식단 및 나트륨 당류 함량 등 영양정보 제공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영양·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식생활 교육 활성화 건강한 식습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내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텃밭·농촌체험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강 식생활을 형성하고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초·중·고등학교 식생활·영양교육을 확산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텃밭교육(텃밭(교육)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대한 가치 이해(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모델 구축·전파, 공급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레시피 개발·보급 등 기반 조성(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 식생활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제철·지역농산물의 가치 및 장점 등을 알림으로써 제철·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국가식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자료: 저자 작성.

4.3. 식품손실 실천연합

4.3.1. 추진 목표

○ 실천연합은 2030년까지 식품폐기는 절반, 식품손실은 최소 2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식량손실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모범사례의 학습과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 회원국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4.3.2.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이행 체계

○ 식품손실 및 폐기 감소를 우선시하기 시작한 국가의 경우 가능한 식품 손실 및 폐기 지수를 이용한 기준 측정을 포함하는 초기단계 평가를 시작으로 전략 개발, 예산/기금 마련, 의사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획과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다단계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천연합을 통한 접근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 참여국, 도시 및 기업을 모아서 서로 영감을 주고,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역량 구축을 지원함.
- 학습 기회, 지침, 비즈니스 및 재정모델 개발 지원, 입증된 수단, 리더십 등을 제공함.
- 기업들이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타 투자를 보장하는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함.
- 식품손실 및 폐기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풀뿌리 인플루언서, 대규모 조직,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 중소기업,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촉진함.
-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손실 및 폐기 해결책을 촉진함.
- 관련 수단에 대한 소농, 여성, 청소년, 소수계층의 평등한 접근과 혜택을 보장함.
- 식품손실 및 폐기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재정 지원을 동원함.
- 식품손실 및 폐기 감소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들의 인식을 제고함.
-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를 알리며, 추진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실천연합 회원 실천 메커니즘

-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소를 우선시하며, 식품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증거 기반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예: 목표, 수단, 추진방식).

- 식품손실 및 폐기 수준을 평가하고, 국가 목표를 설정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이니셔티브를 식별 및 이행함.
- 모니터링, 보고 및 교훈 공유, 협력 촉진과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 및 조직을 지원함.

나) 전략적 파트너

- 참여 국가: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에콰도르 등
- 미래 잠재적 회원으로 주요 지역의 조직 포함: G7, G20, 기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칠레,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30여 회원국
- UN기관/국제금융기관(IFIs): FAO,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세계은행(World Bank)⁴⁵⁾
- 비정부기구(NGOS):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 폐기물자원 행동프로그램(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글로벌 푸드뱅크 네트워크(Global Foodbanking Network)
- 학계/싱크탱크/연구기관: 와게닝겐 대학,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 기타: Champions 12.3, 라보뱅크(Rabobank)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개별 이니셔티브별로 조정, 지원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선두조직을 식별하며, 선두조

⁴⁵⁾ IFIs는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의 약칭임.

직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함.

- 기존 이니셔티브, 실천연합이 개발·제공하는 보고 및 지식공유를 위한 플랫폼, 메커니즘을 활용함.
 - 예컨대, FAO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식량 실천연합, FAO가 주관하는 G20 기술 플랫폼, UN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Eat Save’ 캠페인, 세계은행 국가 평가, Champions 12.3 웹사이트 및 연례 보고서 등임.

4.4. 농업생태 실천연합⁴⁶⁾⁴⁷⁾

4.4.1. 배경 및 필요성

- 농생태학적 접근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생태학적 접근이 농업의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 경관 전반에 걸쳐 생태계 서비스의 복원에 기여하면서 보다 공평한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생산성과 회복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농생태학에서 채택한 전체 푸드시스템적 관점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을 다루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키며,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농생태학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이점 모두를 제공하여 회복력에 기여함.

46) 영문명은 ‘A Coalition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 through Agroecology’임.

47) 농업생태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14.)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4.4.2. 추진 목표

○ 농업생태 실천연합은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고위급패널(High Level Political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LPE) 보고서에 명시된 농생태학 13대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푸드시스템을 전환시키는 핵심 지렛대로서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 접근법을 구현하고자 함.

- 농생태학의 13대 원칙: 재활용, 투입재 사용량 감소, 토양건강, 동물보건 및 복지, 생물다양성, 시너지, 경제적 다각화, 지식의 공동 창조, 사회적 가치와 식단, 공정성, 연계, 토지 및 자연자원 거버넌스, 참여
- 농생태학 원칙의 전 세계적 적용과 지역 혁신 지원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접근법임.

4.4.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이행 체계

○ 농생태학을 통한 푸드시스템 혁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목표를 포함함.

-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정책 권고사항을 이행함.
- 과학자, 농업인, 토착민, 푸드시스템 내의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통해 농생태학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함.
- 농림수산, 환경, 물, 에너지, 보건, 무역 정책 등 푸드시스템의 농생태학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함.
-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농생태학적 관행을 채택하고 대규모 이행을 촉진하도록 보장함.

○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예: UN 협약, CFS 정책 권고사항), 지역권역(예: 녹색관리장성 이니셔티브), 국가(예: 국가 농생태학 정책 및 전략), 주정부(예: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자연농업 시행), 지역(시민사회 파트너 및 지방 정부 이니셔티브

조치) 수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지역 혁신과 국가 연구의 재구성, 학제 간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확장 시스템을 지원하며, 유럽연합 국제 파트너십(European Union-International Partnerships: EU-INTPA)은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

나) 전략적 파트너

- 기 가입한 22개국과 세네갈, 프랑스, 스위스, 스리랑카, 앙골라, 31개 기구(아프리카연합, UNDP, UNEP, WFP, IFAD 등), 지역 및 국가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
- 개발 지원 전략 국가: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콩고 민주 공화국,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기니, 헝가리, 아일랜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세네갈,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베트남 등
- 지원 기관: 31개 기구(아프리카연합 위원회, UNDP, UNEP, WFP, IFAD 등), 지역 및 국가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⁴⁸⁾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푸드시스템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표는 실천연합의 조치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되며, 웹 플랫폼에서 농업에 관한 혁신적 파트너십 플랫폼(Transformativ Partnership Platform on Agroecology: TPP)에 의해 추적됨.
- 이미 승인된 SDG 지표의 조합은 SDGs 전반에 걸친 성과를 즉시 처리하는데 사용함.
- CFS 정책 권고사항은 현재 농생태학적 전환과 농생태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를 제

⁴⁸⁾ UNDP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 개발계획)의 약자임.

한하는 다른 정책의 개혁과 함께 추적함.

- 농생태학적 전환 중인 토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결과 맵핑(mapping)을 통해 연합이 취한 각각의 특정 조치를 모니터링 함.

4.5.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⁴⁹⁾⁵⁰⁾

4.5.1. 배경 및 필요성

- 축산업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안정성, 식량안보, 번영,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함. 다각적, 혁신적, 포괄적 및 잘 연계된 축산시스템은 빈곤 국가의 취약계층과 어린이를 위한 영양 공급의 핵심이며, 전체 인구의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킴.
- 또한 축산시스템은 성 평등과 토착민의 권리를 위한 권한 부여 수단이며, 청년들에게 가치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 정책, 생산, 무역 및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가치사슬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사례의 공유는 지속가능한 가축 생산을 최적화함. 아울러 축산업 시스템의 생산성, 사회경제적 및 지속가능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는 것에 큰 가치가 있음.

4.5.2. 추진 목표

- 실천연합은 가치사슬 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 생산 최적화, 협업

49) 영문명은 'Global Sustainable Livestock Coalition'임.

50)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 (<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14.)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을 통한 생산성 및 축산시스템의 사회경제성·지속가능성 향상을 추진함.

4.5.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추진 사항

○ 실천연합은 농업인과 가치사슬 중심의 지속가능한 축산시스템 발전을 위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생산자단체, 민간부문, 지식·연구기관이 지식과 모범사례를 교환·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SDGs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역할과 조치에 대한 정확한 과학 기반 정보를 정부, 투자자, 기부자 및 다자간 기관에 제공함.
- 과학 기반의 포용적·균형적 정책을 위한 리더십 조정을 제공하고, 상호학습 및 혁신을 촉진함.
- 기존 이해관계자 논의(FAO 축산소위원회, 식량안보위원회(CFS), 지속가능한 축산 글로벌 어젠다(GASL) 등)를 활성화함.

○ 실천연합의 활동은 FAO 축산소위원회(COAG),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CFS) 및 글로벌 어젠다 등 해당 부문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존 국제기구의 노력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음.

나) 전략적 파트너

○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으며, 참여 또는 참여 연락을 받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미국, 브라질, 인도, 호주,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케냐,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등임.

○ 생산자와 과학단체: 세계농업인기구(WFO), 국제축산연구소(ILRI), 생물 다양성/CIAT

및 Soil4climate

- 민간부분: 글로벌 낙농 플랫폼(GDP), 국제 육류 사무국(IMS), 지속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GRSB), 국제 낙농 연맹(IDF), 국제 가금류 위원회(IPC), 국제 계란 위원회(IEC), 동물 건강 및 국제 사료 산업 연맹(IFIF)
- 실천연합은 국가들이 주도하나, 글로벌 및 지역 생산자, 과학 및 부문별 축산 조직,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식 파트너로 초대되며, 더 많은 개인과 조직이 연합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음.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존 조직과 협의하여 실행 계획의 일부로 개발될 예정이며, 전 세계의 관행으로부터 반복적 개선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4.6. 지속가능 생산성 실천연합⁵¹⁾⁵²⁾

4.6.1.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영양에 관한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심화되는 자연자원의 제약에 대처하여 더욱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다면 식량불안정과 영양 실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농업 부문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빈곤이 심화되고, 농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51)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SPG Coalition: Coalition on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for Food Security and Resource Conservation)은 'SPG실천연합' 이라고도 함.

52) 지속가능 생산성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USDA SPG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spg-coalition>, 검색일: 2022. 9. 14.),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1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 농업 생산성 증대(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⁵³⁾ 즉, 경제적 부담 가능성 등 식량에 관한 문제 해결과 농업소득 증가, 빈곤 완화를 위해 농업 생산성 증대가 필요함.

- 세계자원연구소(2019)는 자연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식량 생산과 환경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제시함. 또한 Folbert et al.(2020)은 세계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지를 확장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 부담을 주며, 생산성이 보다 높은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한다면 현재 필요한 토지의 약 절반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함.
- 세계은행(2007)은 농업 기반 국가에서 농업이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농의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FAO(2020)는 낮은 식량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식량 가격을 낮추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량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밖에 기아 제로 달성에 관한 UNFSS 과학 그룹 보고서(Valin et al. 2021)는 농업 생산성, 특히 전체 요소 생산성(모든 생산 요소와 관련된)의 개선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투입 요구량을 줄여 농업생산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함.

○ 기후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급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기후 변화는 가뭄, 홍수, 기상변동성, 심지어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이미 그리고 앞으로 농업 생산자들이 보다 희박하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투입하여 생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도록 할 것임. 기후변화의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 증가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제약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자연자원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

⁵³⁾ 농업 생산성 증가는 토지, 물, 노동, 자본 및 기타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투입재를 포함하여 더 적은 투입재로 더 많은(또는 동일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농업 생산성의 측정을 통해 농업 생산의 효율성의 개선, 즉 투입재의 증가에 기인하지 않는 생산의 증가를 측정할 수 있음.

보다 기존 자연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실행가능한 옵션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농업 생산자, 소비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영양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이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결성됨.

4.6.2. 추진 목표

-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은 사회, 경제, 환경 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은 식량안보 및 영양, 식품안전성, 식품의 경제적 부담가능성, 식량 접근성, 식품섭취의 질, 농업인 및 농장노동자의 소득 및 웰빙, 형평성과 포용성, 식품 손실과 폐기, 동물 복지, 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토양 건강, 수질, 회복력,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으면서 여러 목표 간의 영향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4.6.3. 실천연합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실천연합의 성격

-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은 정보 공유 및 전파, 학습, 식별, 연결 및 장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모범 사례, 교훈, 혁신적인 증거 기반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및 전파
 - 다른 회원들의 경험과 연구로부터 학습

- 지식 격차, 연구 및 협업 기회 식별
- 새로운 파트너와 연결
- 새로운 조치, 가능한 메커니즘 등 장려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와 혁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은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임무(Agricultural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 AIM for Climate)와 보완적 관계에 있음. 이들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전 세계의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괄적인 푸드시스템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그러나 이들 이니셔티브는 세부적인 강조점과 구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AIM for Climate은 기후스마트 농업 및 푸드시스템 혁신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지원을 5년(2021-2025)에 걸쳐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함.⁵⁴⁾

나) 이행 체계와 이행 조치

■ 이행 체계(운영 구조)

○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은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USDA)와 실천연합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됨.

○ USDA의 역할

- USDA는 농업생산성 실천연합의 회의 및 연례보고를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

○ 실천연합 회원의 구성과 역할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단체(개인 제외)가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에 가입할 수 있음. 실천연합 회원들은 개별적 또는 다른 실천연합

⁵⁴⁾ 여기서 기후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복원력을 구축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농업을 의미함.

회원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함.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푸드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 국가, 농업 생산자 그룹, 농업 및 식품산업체, NGO,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소수민족단체, 원주민단체, UN기구, 학계,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등

〈글상자 4-5〉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SPG Coalition) 회원의 역할

- 개별적 또는 다른 실천연합 회원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농업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함.
 - 가능한 조치 유형에는 부속문서에 기술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 교훈 및 혁신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실천연합 회원들과 공유하고 비회원들에게 전파함.
 - 전통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접근법, 사회적, 행동적, 관리적 및 제도적 구조의 혁신, 최첨단 기술 접목한 내용들을 포함
- 지속가능한 농업 및 푸드시스템에 대한 회원 간 토론, 회의 및 워크숍, 공개 이벤트와 플랫폼 등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주요 성과와 교훈에 대한 SPG 실천연합의 연례 보고에 기여

자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26.) 자료 참조.

- (격년 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은 비대면 또는 대면 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며(회의는 영어로 진행 예정), 필요한 경우 실천연합의 하부 구성원과의 추가적인 회의가 소집될 수 있음.
- (재정적 기여) 지속가능한 실천연합 가입과 관련한 재정적 약정이나 자금 조달의 의무는 없음. 실천연합은 재정지원을 모으고 분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아님.
- (연례 보고 참여) 실천연합 회원은 현재 USDA 웹사이트에서 호스팅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의 웹사이트에 게시될 '주요 성공 및 교훈에 대한 연례 보고'에 기여하도록 요청되지만 이러한 사항이 의무는 아님.

■ 이행 조치(부속문서)⁵⁵⁾

○ 실천연합 회원들이 이행 가능한 조치는 다음의 10개 항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① **생산성 향상 목표를 자원 보존 및 기후 목표와 연계하여** 생산성 향상이 농업 생산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포함하여 생산성 보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컨대, 오염 또는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적 조치를 실시함.

○ ② **보존 및 기후 목표를 생산성 목표와 연계하여** 보존 및 기후 조치가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식량 불안을 증가시키거나, 농업생산자의 빈곤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

- 예컨대, USAID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생산성 격차를 줄임으로써 농업생산자들과 농업공동체(farm community)의 새로운 토지 확장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함.

○ ③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복원력을 구축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농업 경관 내 탄소를 저장하면서 **기후 스마트 농업 및 임업(Climate Smart Agriculture and Forestry: CSAF)과 CSFA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진전·구현·장려함.**

- 예컨대, 지역 맞춤 접근법을 개발하는 지역 기후 허브와 CSAF의 보급과 도입을 지원하는 지도사업(extension service) 등

○ ④ **생산성 증대, 자원 보존 및 기후 목표를 비즈니스, 시장 및 생산자 수준의 요구와 연계하여** 공공, 민간 및 풀뿌리 활동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⁵⁵⁾ USDA SPG 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spg-coalition>, 검색일: 2022. 9. 14.) 참조.

록 지원함.

- 지속가능한 생산성 중심의 비즈니스 사례 모델, 일관된 ESG 보고 요구 사항, 민간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성공사례 등

○ ⑤ R&D를 포함한 노력을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함.

- 공공 및 민간 부문은 고유한 연구 역량, 과학적 전문성 및 보급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음.

○ ⑥ 기후를 위한 농업혁신미션(AIM for Climate)에 가입하거나 참여하여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계를 개선하며,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역사회가 기후 후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격리하도록 지원하는 농업 혁신 및 R&D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증가 및 가속화함.

○ ⑦ 모범사례를 식별하고, 이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및 국가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의 작동을 발전·확장하고, 식량안보, 영양 및 환경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한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가축 및 가금류의 지속가능한 생산의 지속적 개선을** 진전시킴.

- 예컨대, 지속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글로벌 원탁회의, 미국 지속가능한 가금류 및 계란 원탁회의, 미국 낙농넷제로이니셔티브(U.S. Dairy Net Zero Initiative) 등

○ ⑧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영양 증진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전자원의 활용을** 추진함.

- 염기서열분석이나 형질 채굴이 되지 않은 기존 종자 보관소에 포함된 활용도가 낮은 유전자원은 농업이 기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선되고 가속화된 육종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

○ ⑨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가용성과 경제적 부담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의 영양 생산성(nutritional productivity) 향상을 위한 진전**을 이룸.

- 작물 및 동물유래 식품의 영양 함량 개선, 다양한 작물 및 가축의 생산성·영양 향상 등

○ ⑩ 영양지표, 식품 손실 및 폐기, 또한 외부 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결과들을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목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데 진전**을 이룸.

다) 전략적 파트너

○ 국가, 농민 및 생산자단체, 농업 기업, NGO,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UN 기관, 학술단체,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는 데 관련된 모든 단체가 지속가능한 생산성 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국가/지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연합, 조지아, 가나,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필리핀,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

○ UN 기구: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품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옥수수·밀개선센터(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국제감자센터(International Potato Center)

○ 학술 및 연구 기관: 아카데미야2063(Akademiya2063), 공공 및 토지 보조금 대학 협회(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발칸반도 및 흑해 식품 마케팅 이니셔티브(Balkan and Black Sea Food Marketing Initiativ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베냉 연구 및 행동 그룹(Benin's Research and Action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혁신연구소(Breakthrough Institute), 캐나다농식품 정책연구소(Canadian Agri-Food Policy Institute), 식품 및 농업 연구재단

(Foundation for Food & Agriculture Research), 아프리카농업연구포럼(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글로벌 식물 협의회(Global Plant Council), 동남아시아 농업 대학원 및 연구센터(Southeast Asian Regional Center for Graduate Study and Research in Agriculture),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대학 포럼(The Regional Universities Forum for Capacity Building in Agriculture), 버지니아 공대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Virginia Tech'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민간 부문: 농업 소매업체 협회(Agricultural Retailers Association), 올텍(Alltech), 미국사료산업협회(American Feed Industry Association), 미국종자무역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미국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 동물농업동맹(Animal Agriculture Alliance), 동물건강연구소(Animal Health Institute),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생명공학혁신조직(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보워리파밍(Bowery Farming), 캐나다카놀라협의회(Canola Council of Canada), 곡물캐나다(Cereals Canada), 옥수수정제협회(Corn Refiners Association), 코르테바농과학(Corteva Agriscience), 크롭라이프 아메리카(CropLife America), 크롭라이프 캐나다(CropLife Canada), 크롭라이프 인터네셔널(CropLife International), FMC 코퍼레이션(FMC Corporation), 국제낙농제품협회(International Dairy Foods Association), 랜드오레이크스(Land O'Lakes, Inc.), 리딩하베스트(Leading harvest), 로컬바운티(Local Bounti), MAIZALL, 육류 및 가축 호주(Meat & Livestock Australia), 전국가축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전국옥수수생산인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전국면화협의회(National Cotton Council), 전국농협협의회(National Council of Farmer Cooperatives), 러시아전국낙농생산자연합(National Dairy Producers Union Russia), 국립곡물및사료협회(National Grain and Feed Association), 전국우유생산자연맹(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전국터키연맹(National Turkey Federation), 북미육류연구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북미렌더러협회(North America Renderers Association), 뉴트리엔(Nutrien), 범아메리카유제품연맹(Pan-American Dairy Federation), 설탕협회(Sugar Association), 신젠타(Syngenta), 비료연구소(The Fertilizer Institute), 신선농산물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 유퍼엘(UPL Ltd.), 미국국제비즈니스위원회(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낙농수출위원회(U.S. Dairy Export Council), 미국농민·축산농민행동(U.S. Farmers & Ranchers in Action), 미국곡물위원회(U.S. Grains Council), 미국육류수출연맹(U.S. Meat Export Federation), 미국지속가능한 가금류·계란 원탁회의(U.S. Roundtable for Sustainable Poultry & Eggs), 미국대두수출위원회(U.S. Soybean Export Council)

○ 재단 및 기타 조직 : AgroNigeria, 2블레이드재단(2Blades Foundation), Crop Performance Corporation, DivSeek International, Earth Labs Group Inc., Farm Journal Foundation, Field to Market, Global Institute of Food Security, 농업-바이오텍 애플리케이션 취득을 위한 국제 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국제비료개발센터(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 미주농업협력연구소(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KCoe Isom, 전국주정부농무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토지솔루션(Solutions from the Land), 농업연구후원자재단(Supporters of Agricultural Research Foundation), TechnoServe, Thriving Solutions,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라) 모니터링 및 평가

○ SDG 1(빈곤퇴치), 2(기아종식), 8(양질의 일자리), 13(기후변화 대응), 15(육상생태계 보전), 16(평화, 정의 및 제도)의 영향을 받는 6개 목표를 포함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함.

○ SPG 실천연합은 식량 및 영양 안보, 빈곤 퇴치, 농민 및 농민 복지, 자원 보존 및 온실 가

스 배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SDG 1(빈곤퇴치), 2(기아종식), 8(경제 성장),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3(기후변화 대응), 15(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를 포함한 다수의 SDGs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특히, SPG 실천연합은 직접적으로 SDGs 2.3 및 2.4와 관련된 발전을 도모함.

- SDG 2.3: 토지, 기타 생산 자원 및 투입재,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2030년까지 소규모 식품생산자,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두배로 확대함.
- SDG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시스템을 보장하고, 생산성과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극심한 날씨·가뭄·홍수·기타 재해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토지 및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탄력적인 농업 관행을 구현함.

마) 실천연합 참여 절차 및 방법

○ SPG 실천연합 참여를 위해 지지선언문(Declaration of Support)에 서명을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하면 됨.

- 양식은 미국 농무성(USDA)에 게시되어 있음(<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oalition-SPG-Declaration-of-Support.pdf>).
- 담당자는 다음과 같음(2022년 10월 1일 현재).
 - Elise Golan(Dire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lise.golan@usda.gov)
 - Cathy McKinnell(FAS Food Systems Summit Coordinator, Senior Policy Advisor,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Cathy.McKinnell@usda.gov)

〈글상자 4-6〉 SPG 실천연합 지지선언문 양식

UN Food Systems Summit Coalition of Action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for Food Security and Resource Conservation

Declaration of Support

Agriculture faces the daunting challenge of producing more food to meet the nutrition needs of a growing world population while at the same time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ever-tightening natural resource constraints. This challenge is made even more complex by the fact that unless safe and nutritious food is affordable and reliably accessible,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will persist. In addition, unless farmers and farm workers make decent incomes, poverty will grow, and farming will fail.

We recognize that given tightening natural resource constraints, raising the productivity of existing natural resources—rather than bringing new resources into production—is the only viable option to meet food security need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Only through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can we meet the world’s growing nutrition needs without bankrupting farmers, consumers, and nature.

We also recognize that while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is a necessary part of the solution, it is not sufficient to ensure all desired outcomes. Delivering on the multi-objective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requires a holistic, systems approach to resource conservation and efficiency.

We recognize that a Coalition of Action focused on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could help break silos and deliver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s potential to accelerate progress across multiple sustainability objectives.

We therefore join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 supporting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of Action on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for Food Security and Resource Conservation, as described in the annex to this declaration.

Name:

Title:

Country/Organization:

Signature:

Date:

자료: USDA SPG 실천연합 웹페이지(<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spg-coalition>, 검색일: 2022. 9. 28.) 참조.

4.6.4. 국내 관련 정책 동향

- 우리나라는 기존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생산자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음. 최근에는 기후 및 환경에 기인한 문제들이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농업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한 발생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원·환경 및 기후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UN의 푸드시스템에 관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정책 비전으로 하는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됨. ‘국가식량계획’은 식량 공급 기반의 확보와 기후·환경을 고려한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국가식량계획’은 특히 절대적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기후변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농업생산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다수 포함함.

〈표 4-27〉 농업 및 농업생산성 관련 정책 주요 내용(‘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자급률 제고	• 주요 곡물 전문 생산단지 등 국내 인프라 확충, 원예·축산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 기반 강화
	자급기반 강화	•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확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소비 확대	친환경 농어업 확산	• 친환경농업직접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양식 확대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정보 제공	•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체계 강화
	기후적응 생산 강화	• 기후적응형 재배기술 품종 개발, 병충해 관리 강화
	생산환경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노력, 토양 및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 관리 강화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기반	• 화학비료, 메탄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저투입 정밀농어업	• 자원투입 최적화를 위한 정밀농어업 모델을 개발하고, 온실·축산·수산·노지 스마트 거점단지를 통해 고도화 확산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 농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https://www.korea.kr>, 검색일: 2022. 8. 23.)참조.

4.7.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⁵⁶⁾⁵⁷⁾

4.7.1. 배경 및 필요성

⁵⁶⁾ 영문명은 ‘Resilient Local Food Supply Chains Alliance’임.

⁵⁷⁾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에 관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28.)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이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푸드시스템 상의 불평등이 확대됨.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농을 포함하는 지역 푸드시스템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됨.

- 소농은 전 세계 농지의 12%를 점유하는데 불과하지만, 세계 인구의 상당 비중(20억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식량의 약 80%가 소농에 의해 생산됨.

○ 지역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빈곤 가정의 식량안보를 개선할 경우 식량가격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식량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또한 지역(local) 생산을 지역권역(regional) 또는 세계 시장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고, 자연재해 등에 직면할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음.

4.7.2. 추진 목표

○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은 기후, 공중보건, 사회경제적 혼란(시민, 정치적 혼란 포함)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지지하는 지역 푸드시스템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천연합은 이러한 목표를 기금조달,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된 접근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지역사회,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인 구현을 위한 표적화된 프로그램 및 조치를 활용함.

- 환경, 경제, 농업 및 건강 문제 간의 수평적 연결 및 정책 일관성을 구현함.

- 모든 사람의 식량 가용성, 경제적 부담 가능성, 접근성을 보장함.

○ 지역식품 실천연합은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과 해결책을 도출하고, 국가들의 논의로부터 도출된 국가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지역식품 실천연합은 국가 및 하부 국가 시스템에서 향상된 기술 및 인적자원 구현 역량을 위해 회원국 및 파트너

간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함.

-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접근 촉진
- 공통 이슈에 대한 협력적 참여 및 파트너십 증대
-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자원에 대한 공동 협상 지원
- 지역 개발 우선순위와 취약하고 소외된 커뮤니티 지원을 포함하여 2030년 또는 보다 장기적인 국가경로에 기초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합동 대응 촉진

4.7.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이행 체계

○ 실천연합은 국가별 요구사항과 국가경로, 역량을 기반으로 작동됨. 국가 간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원국들이 특정 상황과 과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이행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적 자원 동원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더 나은 식품 가격과 가용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을 연결하는 시장 통합 촉진 규정
- 지역 농식품 생산에 대한 국내 재정지원 매커니즘을 강화하여 무역 정책과 지역 농식품 생산 전략 간 균형
- 상황별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민간 공동 대응(예: 소규모 생산자와 공급망을 학교급식 프로그램 및 영양가 있고 안전한 지역 생산에 대한 수요와 연결)
- 물류 및 공급망 시스템에서의 인프라 개발 및 부가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강화하도록 정책 개선
- 소농이 특정 품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지원을 장려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 개발

-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이행·지원 메커니즘 이용
- 국가식량안보정책, 중소농업기업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포함한 관련 분권 구조 (decentralized structure), 국가 및 지역 플랫폼과 전략(예: 국가농업투자계획/국가 농업 및 식량안보 투자계획의 이행 지원)
- 국가별 실행가능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지역 및 국가 역량 지원, 취약 또는 충격을 받기 쉬운 푸드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집중적·통합적 노력에 대한 투자,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UN 기관(WFP/UNCDF, 기타 RBA 및 UN 국가 팀 등) 이용⁵⁸⁾
- 공통 메시지 도출, 투자 및 운영 파트너십 장려, 장기적 자금 조달과 신뢰 구축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와 책임 메커니즘 구축, 지역 및 국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역할 수행

나) 전략적 파트너

- (공동리더십) 정상회의 이전에 AUDA-NEPAD, 콩고민주공화국(현 아프리카 연합 의장)
- 회원국/이해관계자 논의에 참여한 국가 및 양자 논의에 참여한 국가 등
 -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일본, 터키, 미국 및 EU
 - 부룬디, 캐나다, 중국, 코모로, 이집트, 에콰도르, 피지, 감비아, 독일,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탄자니아, 터키, UAE, 미국, 예멘, EU, AUDA-NEPAD
 - 중국, DRC, 일본, 네덜란드, 터키, UAE, 영국, 미국, AUDA-NEPAD
 - CGIAR-AfricaRice, IWMI. 기타 UN 참여: FAP, UNDP, WIPO international

⁵⁸⁾ UNCDF는 UN Capital Development Fund(UN자본개발기금), RBA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감 있는 산업연합)의 영문명 약자임.

○ 해결책을 보내거나 이해관계자 회의에 참여한 조직(NGO, 민간부문, 학계)

- 세계농민기구, 아프리카농민협회, 미네소타농민연합, 인도농민포럼, RUAF, Rikolto, 농업개혁 및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 NGO 연합(ANGOC), TetraPak Company, Smart AGHub, Annamrit Foundation India, UdyogYantra company India, 노스캐롤라이나 A&T 주립대학교, 범아프리카 농업기업 농업산업 컨소시엄(PanAAC), Replenish Farms Nigeria,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GLOPAN UK, 토니블레이어재단(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Federation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ers-MTK & Valio dairy company Finland, 케냐 국립 농민 연맹, SKYFARMS, Farm Africa - Ethiopia,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아프리카 인구 및 건강 연구센터(African Population and Health Research Centre), AfricaRice

다) 모니터링 및 평가(SDG와 연결된 명확한 정량화 가능한 지표 및 목표)

- 우선순위 영역(SDGs 1, 2, 3, 5, 8, 9, 10, 12, 17)과 연결된 SDGs 지표와 목표는 특히 국가 및 지역 우선순위, 국가 GDP 성장 전망, 인적개발지수, 빈곤 감소 및 식량·영양안보 목표(식품 안전성, 접근성, 경제적 부담 가능성, 급여·소득 격차, 취약성 평가)를 측정하도록 조정됨.
- UN 국가 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존 국가 메커니즘(예컨대, 국가 통계 사무소, 경제 정책 부서, 국가 및 지역 연구센터, 대학)은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SDGs에 공공 및 민간 지출의 추적 및 연결을 주도 또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8.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⁵⁹⁾

4.8.1. 배경 및 필요성

- 기후 관련 사항이 점점 더 식량안보와 영양에 영향을 미치고 푸드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물,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건시스템, 사회기반시설(에너지, 교통, 관광 등), 영토, 생계, 서식지의 손실뿐만 아니라 농업 및 식량안보 등의 다양한 측면이 기후위험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영역으로 식별됨.
- 지속가능하지 않은 푸드시스템은 물 부족을 악화시키고, 삼림 벌채와 토양 황폐화를 야기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임. 농업은 담수의 최대 사용자(70%)이며, 식품 공급망은 전 세계 에너지의 30%를 사용함.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소작농의 80% 이상이 물 부족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함.
- 농업에서의 완화 옵션(mitigation option)은 농장 오염원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농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짐.⁶⁰⁾ 국제 프레임워크와 국가 정책·계획 및 이니셔티브에 푸드시스템의 복원력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탄력적이며 공평한 푸드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자가 기후 변화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4.8.2. 추진 목표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CRFS)은 다양한 행위자 간의 노력을 시너지화하여 기후 탄력적 푸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 실천연합의 목표는 가

⁵⁹⁾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Climate Resilient Food Systems: CRFS)에 관한 내용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9. 18.)를 참조하여 정리함.

⁶⁰⁾ 농장에서의 완화옵션(mitigation option)은 경작지 관리, 가축 관리, 유기질 토양 관리, 토지이용 변화,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등을 포함함.

장 취약한 국가 및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을 향한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임.

- 특히 건조 및 반건조 지역(Arid and Semi-Arid Lands: ASALs),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내륙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등에 초점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주된 관심사는 기후 적응·완화·복원력, 기후위험 감소 및 관리, 국제 및 국가정책, 이니셔티브에 복원력 통합, 물-식량-에너지에 대한 넥서스 접근법, 탄력성 프론티어 이니셔티브(Resilience Frontiers initiative) 등임.

4.8.3. 이행 체계와 주요 현황

가) 이행 체계

○ 실천연합은 국가 전략·정책·계획에 기후 관련 조치의 통합 및 후속 이행을 장려하고, 재정·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 촉진, 다중 위험 관리 접근방식 장려, 행위자들 간의 권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및 사회적 포용과 참여적, 신중한 접근 방식 장려 등을 통해서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회원국을 지원함.

○ 또한 실천연합은 최대한 기존 구조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다양한 수준의 파트너(정부, 민간부문, 중소기업, NGO 및 국제행위자) 간 조정을 지원하지만, 협업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법도 모색함.

○ 기후 및 푸드시스템 관련 데이터와 분석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공유 노력을 촉진하고, 관련 지식 및 사례 연구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후 및 푸드시스템 관련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

○ 다른 동맹(alliances), SDG 프로세스 및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촉진하여 관련 노력들을

조정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촉진함. 특히 지식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최신 디지털 진보의 개선을 통해 지식 격차를 메우기 위해 관련 글로벌 행사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홍보 등을 촉진함.

나) 전략적 파트너

○ 주요국

- 호주, 방글라데시, 벨리즈, 부탄, 비사우(Bissau),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덴마크,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EU,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독일, 가나, 기니, 아이티, 인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케냐, 키리바시,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루시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마셜 제도,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르완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스웨덴, 스위스, 상투메 프린시페, 동티모르, 터키, 투발루, UAE, 우간다, 영국, 우루과이, 미국, 미국, 짐바브웨 등

○ UN 기구 및 기타 기관

-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FP, FAO,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ICCAD, SHE Foundation, 로마클럽, 세계은행

5

국내외 농업·농식품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1. 국제기구 현황과 사례

1.1. OECD의 농업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총괄함.

- 1961년 출범한 OECD/DAC는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 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2월 가입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음.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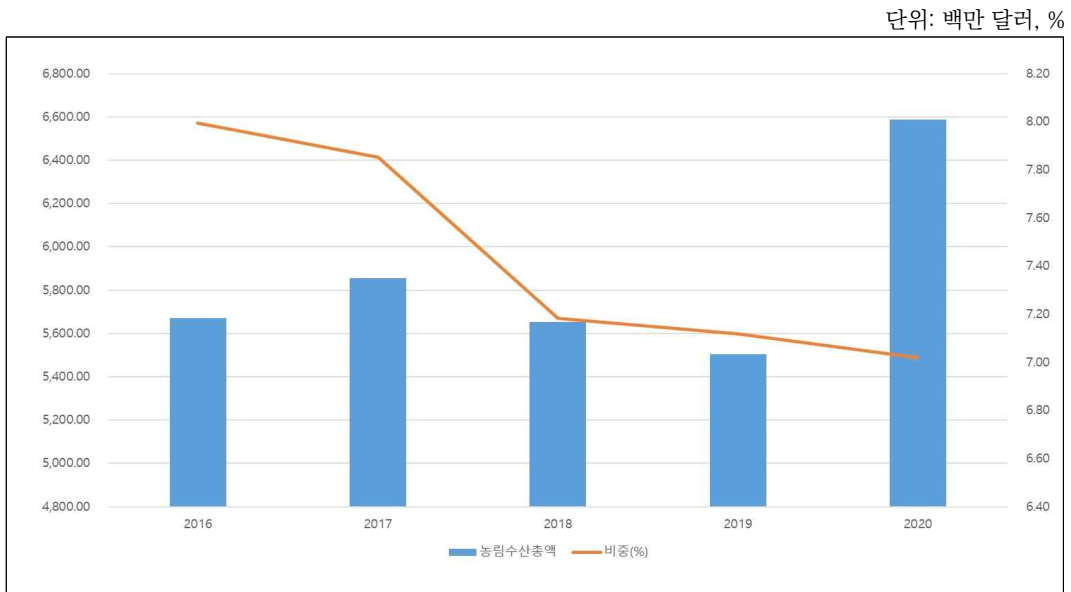
○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SDG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2020년까지 농림수

⁶¹⁾ 대한민국 ODA 통합 웹페이지(<https://www.odakorea.go.kr>, 검색일: 2022. 10. 1.)에서 인용함.

산 분야에 지원한 예산은 약 292억 7천 1백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액의 약 7~8%에 해당함. 특히 2020년 COVID-19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금액이 크게 증가함.⁶²⁾

○ OECD/DAC 회원국별 농림수산분야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이 55억 6천만 달러(전체 지원액 중 18.9%)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뒤를 독일(16%), 일본(13%), 프랑스(10%)가 따르고 있음. 우리나라는 7억 2천 1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지원액의 약 2.4%를 점유함.

〈그림 5-1〉 OECD의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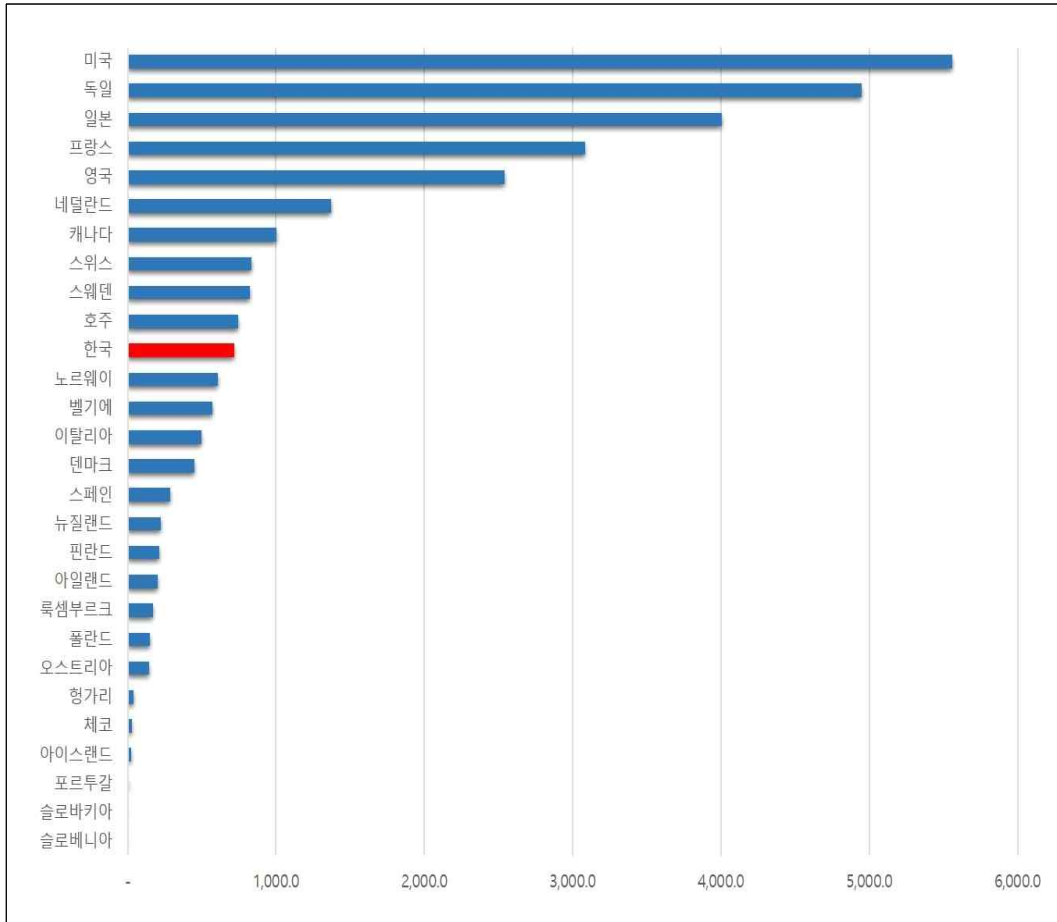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7.20.).

62) ODA를 총괄하는 OECD 통계(OECD DAC Database)에서는 세부야별로 목적코드(Purpose code)를 부여하고, 지원 예산의 통계자료를 제공함. 본 연구에서는 농업(311), 산림(312), 수산(313)업과 더불어 농촌개발(43040)까지 포함시켜 통상적으로 ODA 사업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통계를 수집함.

63) CRS 목적코드 310 및 43040의 합산액임(약정액 기준).

〈그림 5-2〉 OECD/DAC 국가별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⁶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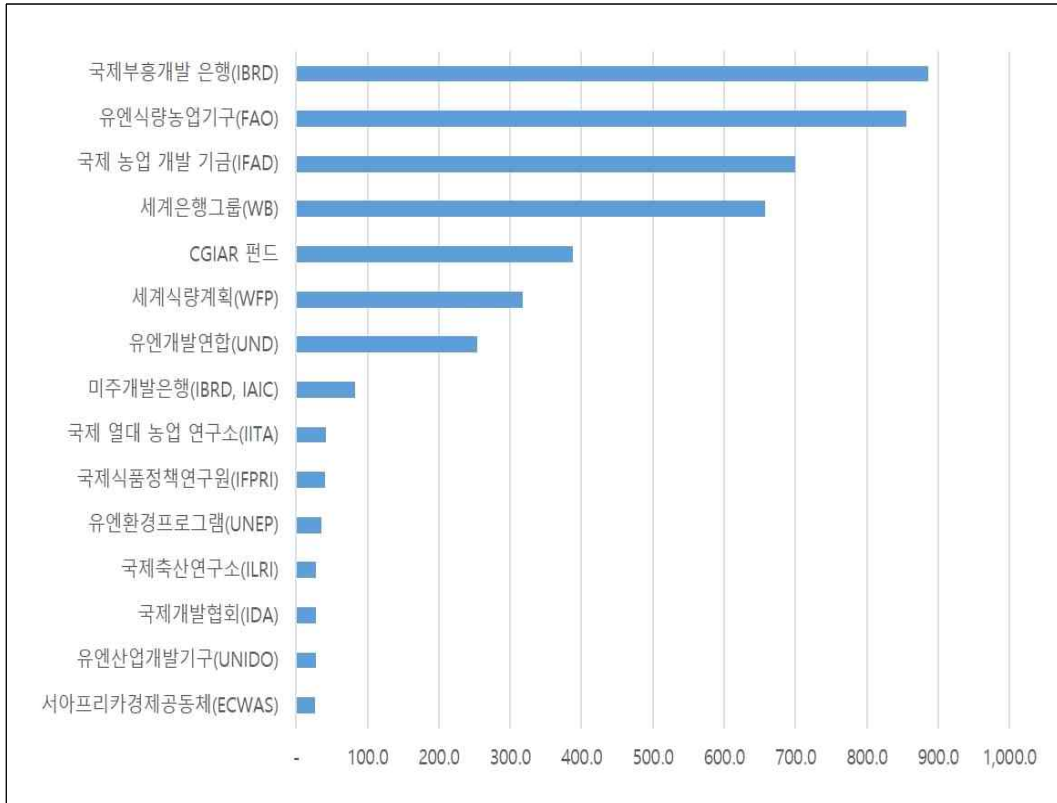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7.20.).

○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88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으로 FAO가 855백만 달러를 지원함.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은행그룹, CGIAR(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펀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64) CRS 목적코드 310 및 43040의 합산액임(약정액 기준).

〈그림 5-3〉 국제기구의 농림수산분야 지원 현황(2016-2020)⁶⁵⁾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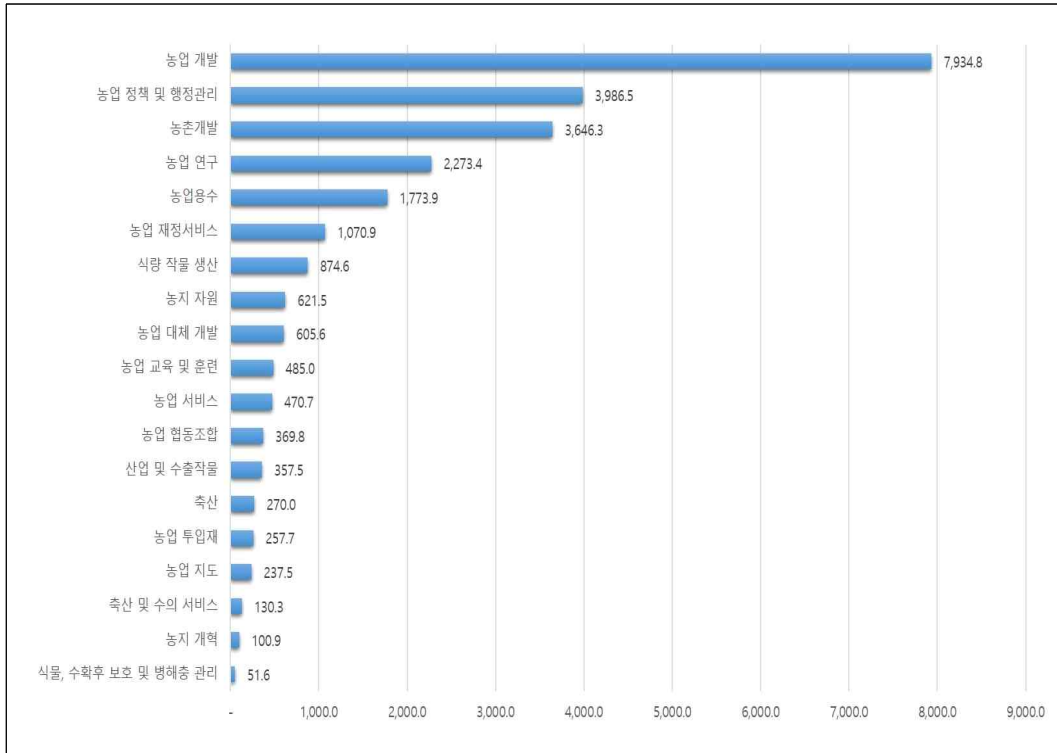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7.20.).

○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농업이 87%를 점유하며, 임업(9%), 수산업(4%) 순으로 비중이 큼. DAC 목적코드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개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 정책 및 행정관리,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용수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65) CRS 목적코드 310 및 43040의 합산액임(약정액 기준)

〈그림 5-4〉 OECD의 농업부문(311) 세부분야별 지원현황(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웹사이트(<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7.20.).

1.2. UN 식량농업기구(FAO) 지원 현황 및 전략

○ 농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FAO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인류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있어 충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FAO는 식량과 농업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 특히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기아와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FAO의 중기전략(Strategic Framework 2022-2031)은 ‘더 나은 생산(Better Production)’, ‘더 나은 영양(Better Nutrition)’, ‘더 나은 환경(Better Environment)’, ‘더 나은 삶(Better Life)’으로 대표되는 4B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음.

- FAO는 전 세계 133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195개(194개국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표 5-1〉 FAO의 4 Better 전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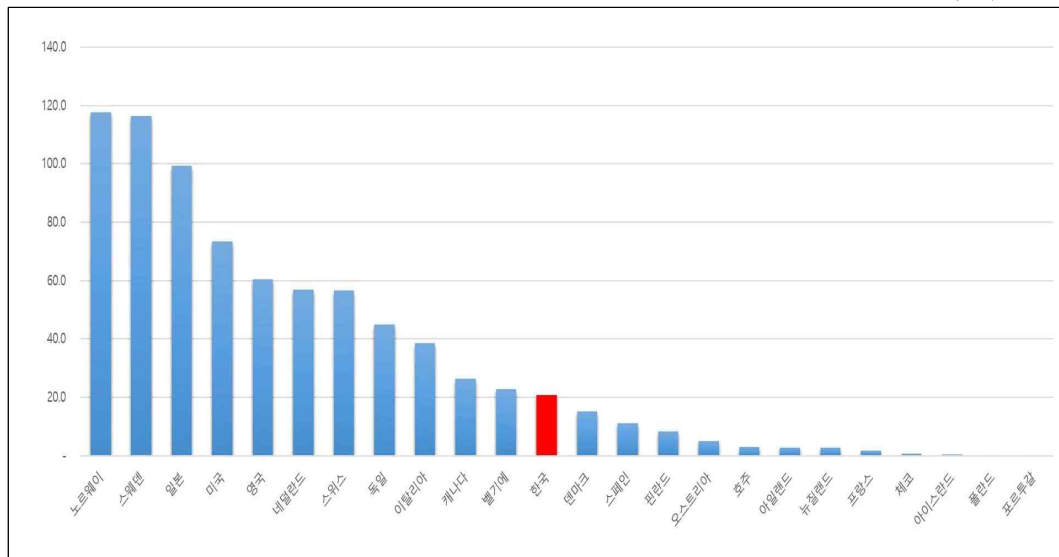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더 나은 생산 Better Production	지역, 권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식량공급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기후 및 환경에서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보장함.
더 나은 영양 Better Nutrition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가 있는 식품 홍보 및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양을 개선함.
더 나은 환경 Better Environment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호, 복원 및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감소, 재사용, 재활용, 잔류 관리)에 대응함.
더 나은 삶 Better Life	불평등(도시/농촌, 부자/빈국, 남성/여성)을 줄여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함.

자료: FAO 웹사이트(www.fao.org, 검색일: 2022.8.20.).

○ 2016~2020년 기간 동안 FAO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117.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 이어 스웨덴 116.3백만 달러, 일본 99.3백만 달러 미국 73.4백만 달러의 순으로 지원 규모가 큰 편임. 우리나라는 20.8백만 달러로 DAC 회원국 중에서 12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음.

〈그림 5-5〉 OECD/DAC 회원국가별 FAO의 농림수산분야 지원현황(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7.20.).

1.3.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현황과 주요 사례

1.3.1. 추진 현황

○ 세계식량계획(WFP)은 1961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으로, 전쟁과 내전, 자연재해 등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 투입되어 식량을 지원함. 비상 상황이 아닌 지역에서도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농촌 지역 개발협력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WFP의 5가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생계를 지원
- 심각한 기아 발생을 막고 재해 대비 혹은 완화를 위해 투자
- 분쟁이나 재해 발생 직후 또는 복구 과정에서 생명을 지키고, 상실된 생활터전 복구
- 만성적 기아와 영양부족 감소
- 해당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전략과 현지 식량 구입을 통해 기아 감소

○ 상기 전략적 목표에 따라 WFP는 긴급 지원(Emergency Operations), 구호 및 재건 지원(Prote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s), 개발 지원(Development Operations)과 특별 지원(Special Operations)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첫째,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전쟁, 지진, 홍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평가팀(Emergency Assessment Teams) 등 UN 산하 기구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함.

○ 둘째,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생산시설 및 삶의 터전을 재건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을 경우, 농경지를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해야 함. 따라서 긴급 지원 사업 이후,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을 2년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셋째,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빈곤지역 주민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 WFP 사업 가운데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 지원 사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주로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촌지역,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식량 부족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넷째, 특별 지원 사업은 긴급 지원 혹은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식량 지원 사업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주요 사업 대상은 물류시설과 인프라임.

1.3.2 추진 프로그램과 지원 사례: 학교급식 관련 지원

가) 추진 프로그램

○ SDGs의 2번째 목표(SDG2)인 기아종식('Zero Hunger')은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전 세계 식량 생산·분배·소비 방식을 점검하고,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함. SDG2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은 식량과 영양분야에서 주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WFP에 의해 선도됨.

- WFP는 기아종식을 위해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사업, 재난 위험 감소 사업,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량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함.

○ 기아종식에 관한 WFP의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이 학교급식사업(School Feeding)임. WFP의 학교급식사업은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지속적인

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WFP는 학교급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계속함. 2020년에 전 세계 1,500만 명의 학생들이 WFP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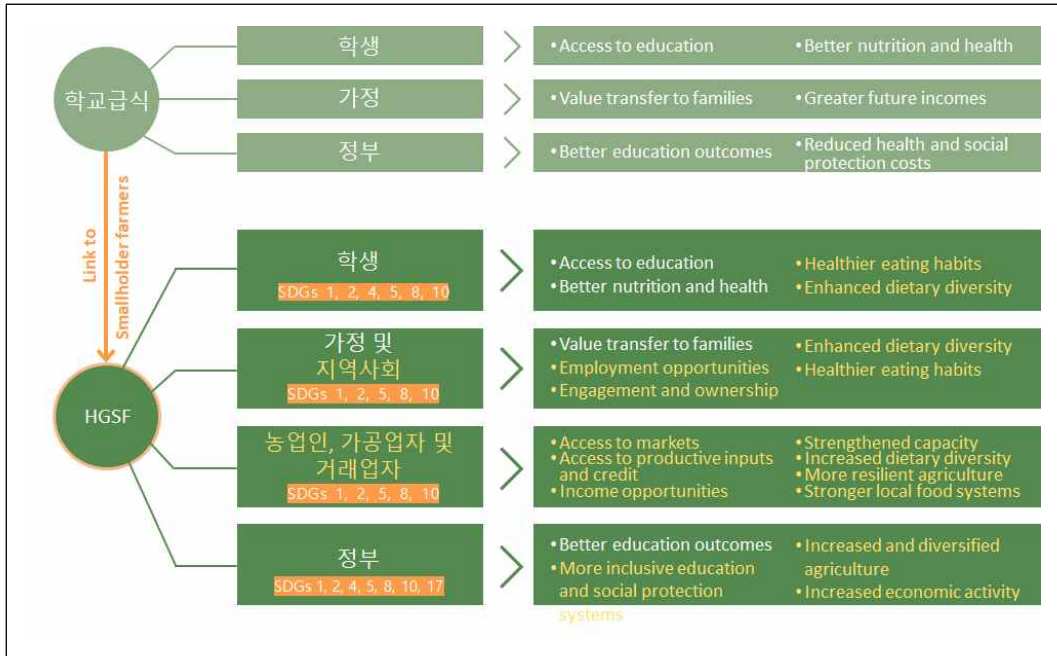
- 학교급식은 아침 또는 점심식사에 한해서 1~2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열량 비스킷과 같은 영양 강화 간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 WFP는 국가별 정부와 협력하여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가적으로 3,9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함.

○ WFP는 특히 지원대상 국가 정부와 함께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사업을 연계한 'Home Grown School Feeding'(HGSF)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소농과 학교를 연계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함. 동 사업은 건강·영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들의 가계 경제와 지역농업·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파급 영향이 큰 중요한 사업임.

○ HGSF를 통해 아이들은 지역에서 공급된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단에 익숙해지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음. 지역 소농들은 지속적인 소득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지역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푸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영양 자립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최근에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성과 개선, 식품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앱을 개발하기도 함.
- 과테말라 등에서 앱을 통해 지역 농민과 학교급식 간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5-6〉 HGSF 프로그램의 SDGs와의 연관성 및 부문별 파급 영향



자료: WFP 웹페이지 자료(<https://www.wfp.org>, 검색일: 2022. 9. 17.) 참조.

나) 주요 사례

① 지역 생산자 협업

○ (콜롬비아) 퀴노아는 남아메리카를 원산지로서 콜롬비아에서도 재배되고 있는 영양가가 높은 작물임. WFP는 퀴노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영양가 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콜롬비아 현지 퀴노아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 들과 협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균형 잡힌 급식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콜롬비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 (케냐) WFP는 1980년부터 케냐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케냐 정부(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함. 2009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이를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지원함.

- 2017년에는 현금 기반 지역 연계 학교급식프로그램을 개발함. WFP가 학교 은행 계

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학교가 신선식품을 현지에서 구매함.

○ (아이티)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로 식량불안정이 극심해짐. 식량불안정을 해결하고,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학교급식에서 수입식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을 통합함. WFP는 2015년에 지역 소농과 연계한 학교급식프로그램을 지원함.

○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WFP, 교육부, 사회개발부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 급식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소농 협동조합, 지역사회 협회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구입한 신선 농산물 및 계란과 같은 식품을 포함함.

- 2009년에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11,000명의 소농으로부터 18,000톤 이상의 옥수수과 콩을 매입함.

② 학교급식 관련 앱 활용

○ WFP는 개발도상국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소농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학교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앱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급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과테말라에서는 지역 소농들이 학교급식관리앱(School Feeding Management App: SFMA)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학교 급식 및 영양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창출 및 생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

○ WFP는 학교식단생성플랫폼(School Meal Planner Plus: SMP Plus)를 개발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을 맞춤형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부탄, 모잠비크,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 부탄은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품의 월별 요구량을 정량화하여 농민들이 사전에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소농이 농작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농

산물 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모잠비크, 스리랑카의 경우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을 개발하여 한정된 비용으로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부룬디에서는 ‘School Connect app’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출석 수준, 식사 소비량 및 식품 재고 목록을 디지털로 관리함으로써 식품 공급 계획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영양 섭취를 개선함.

2. 해외 주요국 현황과 사례

2.1. 미국

2.1.1. 국제개발처(USAID) 추진 현황과 사례⁶⁶⁾

가) 조직 구성과 목표

○ 미국은 국제개발처(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서 대외원조에 관한 업무를 전담함. USAID는 기능국(9개), 실(5개), 지역국(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USAID는 독립된 연방정부기관이나, 형식적으로 국무부 산하이며, 국무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활동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음.

○ USAID 조직 중에서 기능국은 부문별로 복원 및 식량안보, 인도적 지원, 분쟁예방 및 안정화, 민주주의 발전 및 혁신, 국제보건, 정책기획 및 학습, 대외원조, 입법홍보,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됨. 지역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유라시아, 중동, 중남미 및 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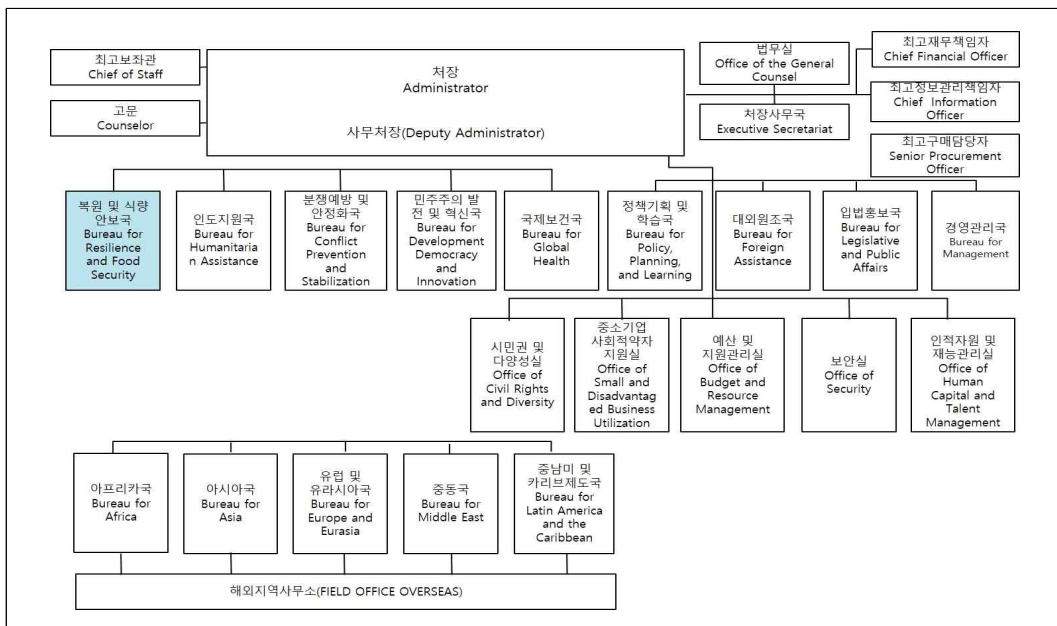
⁶⁶⁾ 전문가 위탁원고와 이효정·윤자영(2021)을 참조하여 작성함.

브제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해외에 총 87개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임.

○ USAID는 대의원조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확산을 통한 미국 외교정책상의 이익 실현,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 빈곤감소, 재난 복구 지원 등을 목표로 함. 또한 개발도상국의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를 변화시켜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미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대의원조를 추진함.
- USAID의 세부 활동 분야에는 농업 및 식량안보, 민주주의·인권 및 거버넌스,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환경·에너지·인프라,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국제보건, 인도주의적 지원, 혁신·기술·조사, 물 및 위생, 위기 및 분쟁지역 등이 있음. 농업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업 분야 지원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운영함.
- 개발도상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는 전염병 예방, 지진 대응, 농민의 생산 및 판매활동 지원 등이 해당됨.

〈그림 5-7〉 미국국제개발처(USAID) 조직도



자료: 이효정·윤자영(2021) 참조.

나) 주요 내용

① 농업 분야 지원 이니셔티브(Feed the Future)

- ‘Feed the Future’는 USAID의 대표적인 농업분야 이니셔티브임. 동 이니셔티브는 「세계식량안보법(The Global Food Security Act of 2016: GFSA)」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행동을 통해 세계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민간부문, 글로벌 과학 및 연구 단체, 공여 기관, 개발도상국 정부, 시민 사회 등이 참여함.⁶⁷⁾⁶⁸⁾
- ‘Feed the Future’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년·여성의 영양개선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중점 지원 대상국가는 아시아(방글라데시, 네팔), 아프리카(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중남미(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의 12개국임.

〈표 5-2〉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식량안보 전략

목표(Goal)	전 세계 빈곤, 기아, 영양결핍의 지속가능한 감소
전략목표 구분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중심의 경제성장	식품과 농업시스템의 강화와 생산과 경제적 이익 도모 시장과 무역에 접근성 강화와 확대 고용과 기업가정신 증진
전략목표 2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강화된 회복력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향상 사전예방을 통한 위험의 경감, 완화, 관리 역량 향상 적응력 향상과 충격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력 증진
전략목표 3 여성과 아동의 풍요로운 삶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의 소비 증진 직접적인 영양 개입 및 서비스의 활용 증진 가정 및 커뮤니티 환경의 위생 개선

자료: USAID(2022) 참조.

②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 추진 전략(Food for Peace)

- USAID의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Food for Peace: FFP) 프로그램은 식량안보를 개선하여 유지하고, 빈곤과 굶주림이 없고,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유지하며, 안전한 삶을 위

67) 이효정·윤자영(2021) 참조.

68) GFSA는 2023년까지 재승인된 상태임.

한 지원을 목표로 함. 또한 ‘영양안보’를 목표로 포함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의 안정적인 가용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영양, 위생 및 건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FFP는 SDG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SDG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SDG5(성 평등) 등의 3가지 목표를 핵심으로 삼고 있음.

- ‘Feed the Future’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영양, 회복력 및 식량 중심의 개발을 지원하는 ‘Feed the Future’의 비전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 FFP는 이전에 ‘식량불안정 감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를 새로이 하면서 이를 ‘식량안보를 개선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영양안보를 목표로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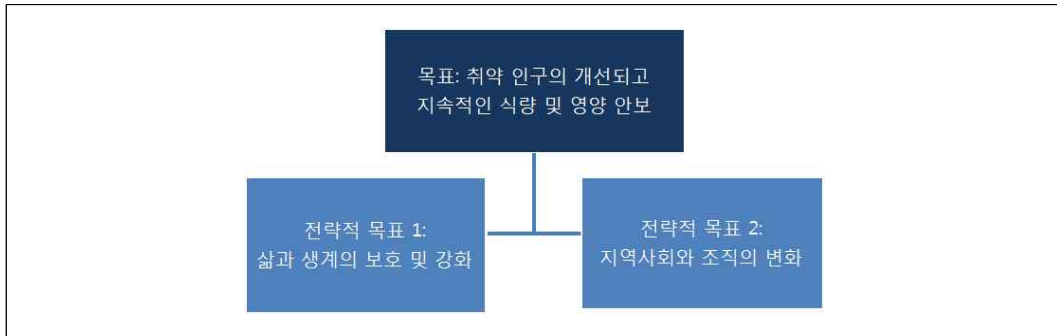
○ FFP는 현물 및 현금 기반의 식량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자원, 토지, 금융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계 자산을 보호하며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고,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취약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둬.

○ 특히 FFP는 양성평등과 포용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FFP 활동에서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모든 개발 활동에서 성 평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파트너 기관에서 현지 직원의 고용과 교육 시 성 평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음.

○ FFP는 식량 및 영양 안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삶과 생계의 보호 및 강화(Lives and Livelihood Protected and Enhanced)’, ‘지역사회와 조직의 변화(Communities and Institutions Transformed)’라는 두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본 전략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와 조직의 관점에서 식량 및 영양 안보의 기초를 설명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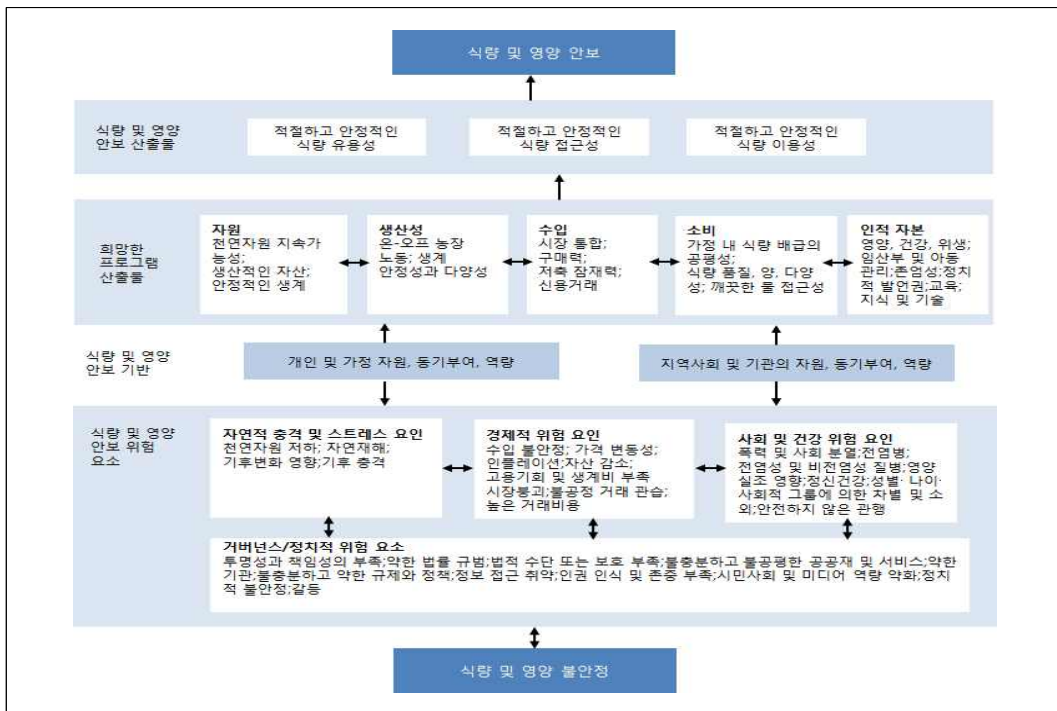
- 두 가지 전략 목표 중 전자는 삶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지원을 제공하는 현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그림 5-8〉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전략적 목표



자료: 이효정·윤자영(2021)에서 재인용.

〈그림 5-9〉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안보 프레임워크



자료: 이효정·윤자영(2021)에서 재인용.

2.1.2. USDA 추진 사업과 학교급식 프로그램 추진 사례

가) 사업 추진 개요

○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 해외 식량지원 프로젝트인 ‘McGovern-Dole Food

for Education Program'을 통해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의 교육, 아동 발달, 식량안보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및 모자 영양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농산물 기부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

- 'McGovern-Dole Food for Education Program'은 학생 등록률 증가, 학교급식을 통한 단기 기아 완화, 학생 건강 및 영양 개선, 문맹 퇴치,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소농의 역량 증대 및 성평 등을 목표로 함.
- 지속가능성을 프로그램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하여, 정부, 지역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후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비영리 자선단체, 협동조합, WFP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

나) 추진 사례: 코트디부아르 학교급식 프로그램

- USDA는 코트디부아르에서 학생의 문해율 향상, 건강 및 영양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함.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실시함.
- 1단계 사업을 통해 ① 학교 급식 제공을 통한 학생 등록 증가 및 단기 기아 완화, ② 국가 보건 및 영양 정책 프로그램, 지역사회 동원 및 회복력 지원, 위생시설 및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여 학생의 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 ③ 학교 교사를 위한 자료 및 역량 개발을 통한 아동의 문해력 향상과 교육의 질 개선, ④ 공급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소농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1단계 사업을 기준으로 613개 농촌 지역 초등학교의 125,000명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학교 급수장, 화장실 등의 시설을 건설·보수하고,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의 책무를 정부와 지역사회에 위임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둬.

2.2.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학교급식 프로젝트 사례

-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말라위 정부(GoM), 유럽연합(EU), GIZ가 참여하여 우선순위 및 정책 약속에 따라 말라위의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부족 문제 개선,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Afikepo(아피케포) 프로젝트).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기금, UNICEF, FAO, GIZ, WFP, EU, 말라위 정부가 참여함.

- Afikepo 프로젝트는 ① 대상 지역의 가임기 여성, 청소년기 소녀, 영유아에게 최적의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의 섭취를 늘리고 다양화, ② 대상 커뮤니티, 학습자 및 프로그램 개발 에이전트(PDA)의 향상된 영양 지식과 인식 및 위생 관행의 사용 증가, ③ 국가 및 지역 개발 계획 모니터링에 있어 영양 기여에 대한 다부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가 수준 정책 전파 등을 목표로 함.

- Afikepo 프로젝트는 2014년 시작된 EU 글로벌 영양행동계획(APN)과 2015년 말라위 국가영양위원회(NNC)에서 채택한 4개의 접근법에 따라 설계됨.
 - ① 영양안보와 개선된 모성, 영유아 수유 및 보살핌, ② 1차 의료 지원 및 치료 제공, ③ 영양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학습자, 전문가, 작업자 간의 최적의 모자 수유 및 보살핌을 위한 행동 변화, ④ 거버넌스, 인적 역량 강화, 연구,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임.

- 또한 Afikepo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정원을 마련하여,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 정원에서 일하면서 유기농 채소 원예 및 건강한 영양에 대한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신선한 채소를 학교 급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Afikepo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50개 학교 중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학교 정원을 조성함.

3. 국내 현황과 사례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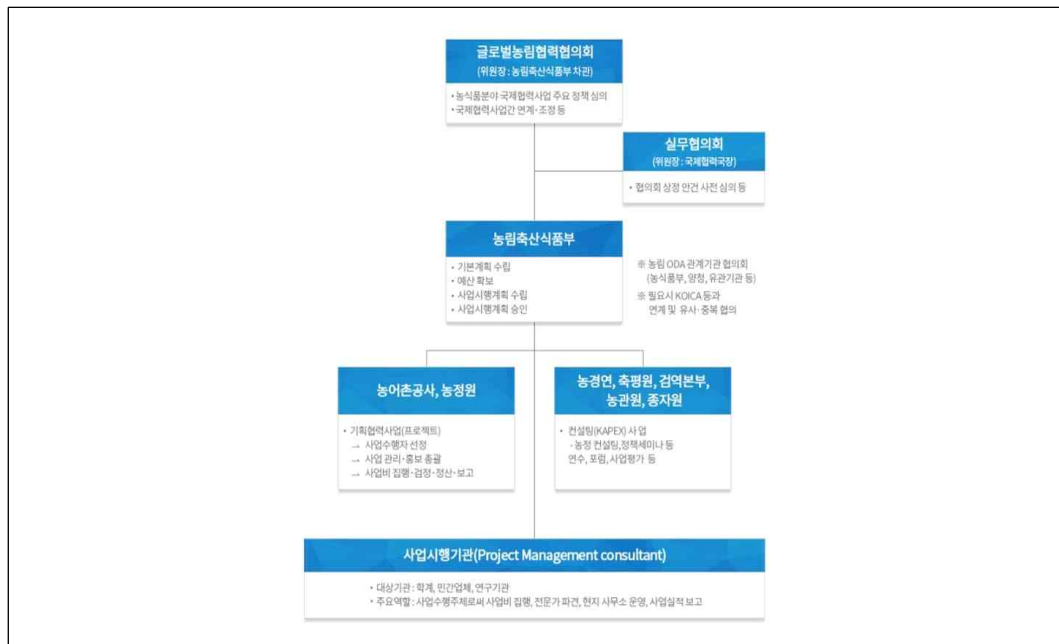
3.1. 정부 지원 현황과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3.1.1. ODA 추진체계와 지원 현황

가) 추진체계

- 농식품부의 ODA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외청인 농촌진흥청, 산림청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해외농업개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농업분야의 ODA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동 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논의와 신규 사업 심사 등을 진행함.

〈그림 5-10〉 농식품부의 ODA 추진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자료(<https://www.mafra.go.kr>, 검색일: 2022.8.20.).

69)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리함.

나) 지원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 다음으로 우리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⁷⁰⁾ 농식품부의 ODA 예산은 2006년 5억 원에서 2022년 1,053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9년부터 식량원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고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5-11〉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예산 변화 추이(2006-2022)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식품부 ODA의 목표는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농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제협력사업(ODA)과 해외농업개발으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됨.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ODA는 수원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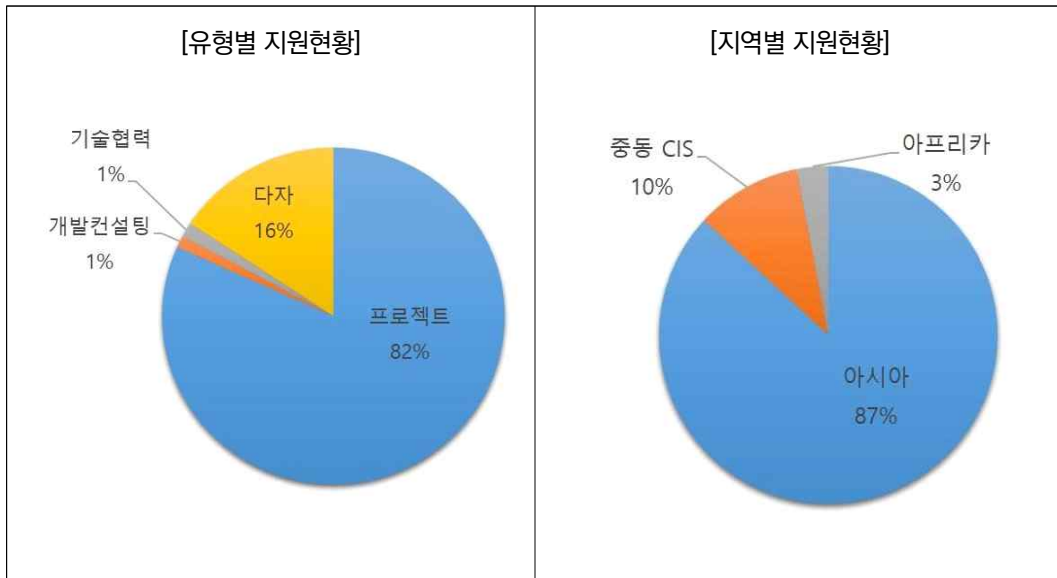
⁷⁰⁾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임.

기아종식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음. 식량원조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49.3%), 생산성 제고(29.1%), 행정 시스템 및 서비스(9.0%)의 순으로 지원함.

○ 농식품부의 양자협력사업(Bilateral cooperation)의 유형에는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이 있음. 예산의 82%는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으며, 16%의 예산은 다자성 양자사업으로 WFP, FAO, UNDP, ADB, IFAD/Grow Asia, GGGI, IRRI, ILRI, IFPRI 등 9개 기구와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프로젝트 사업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87%), 중동·CIS 국가(10%), 아프리카(3%)가 뒤를 잇고 있음.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은 없음.

○ 개발컨설팅은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KAPEX(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사업으로, 연간 3~5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조사, 초청연수, 워크숍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협력은 연수사업,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ODA 사업 평가,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5-12〉 농식품부 양자사업의 유형별·지역별 지원현황(2022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1.2. ODA 사업 추진 사례: 식량원조사업 중심⁷¹⁾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큼. 우리나라는 2018년에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매년 식량위기국을 지원하여 전 세계 난민과 이주민의 식량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FAC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구하고, 기아를 감소하며,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량원조협약(Food Aid Convention)은 1967년 조인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3년에 'Food Assistance Convention(FAC)'으로 발효됨.

○ 2021년 현재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우리나라 등 총 1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이 가장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6번째로 약정액 규모가 큰 편임(2018년 기준).

〈표 5-3〉 식량원조협약(FAC) 국가별 지원 약정액(201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국가명	지원 약정액	구분	국가명	지원 약정액
1	미국	2,200	9	덴마크	30
2	EU	428	10	스웨덴	25
3	캐나다	198	11	러시아	15
4	일본	92	12	스페인	12
5	호주	62	13	핀란드	7
6	대한민국	40	14	룩셈부르크	5
7	프랑스	40	15	오스트리아	2
8	스위스	36	16	슬로베니아	0.03
합 계		3,1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2.21.).

71) 이효정(2019)에서 인용하여 농식품부의 ODA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의 사례를 설명함.

- 회원국은 현금 또는 현물(곡물), 긴급구호 물품 등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식량 원조의 최소 80% 이상은 무상지원(grant)이어야 함. 다자간·정부간 기구·국제기구 등을 통해서도 공여가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WFP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매년 WFP에 예산을 지원하며, 주요 지원 대상 품목은 곡류, 쌀, 콩(2차 가공물 포함), 두류, 식용유, 유제품, 설탕, 소금, 과일 및 채소 등임. 지원 대상 국가는 OECD DAC의 수원국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국가들임.
- FAC의 제3조에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0조 4항에서는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식량원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준수 규정으로 ‘잉여농산물의 처분과 협의 의무의 원칙’과 FAC를 제시함.⁷²⁾⁷³⁾⁷⁴⁾ FAC와 FAO 규칙에 앞서 WTO 협정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해야함.
- 식량원조사업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이행 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추진되어 기존의 농식품부 지원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님.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50,000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 예멘에 가장 많은 18,000톤을 지원함. 다음으로 에티오피아(13,680톤), 케냐(9,500톤), 우간다(4,500톤), 시리아(3,000톤), 라오스(1,320톤)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음.

72) FAC 제3조에 의하면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미래의 WTO 협정상 의무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무와 이 협약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WTO 협상에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73)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에 의하면 농산물을 식량원조로 제공하거나 특혜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국제농산물 교역 또는 수원국의 농업생산을 위축시키는 것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명수, 2010).

74) FAC 제10조(WTO 농업협정 제10조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제4항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함. ㉠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며 ㉡ 금전화된 양국 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판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특별한 조건으로 제공됨.

〈표 5-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조 사업 현황 및 국가별 식량위기 현황

구분	수원국	식량위기 현황
중동	예멘	· '19년 기준 인구의 80% 가량이 24백만 명이 식량위기 · '20년 인간개발보고서 189개국 중 179위를 기록함 · 식량의 90%가 수입 식품으로 구성 * 최대 식량위기국가 7개 중 1개국
	시리아	· 오랜 내전으로 총인구의 46%인 9백만 명이 식량위기 · 20.8월 기준 실량민 6.7백만 명, 해외난민 5.6백만 명 * 세계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주 위기 ·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247% 상승
아프리카	케냐	· 가뭄으로 인해 3.4백만 명이 식량위기 · COVID-19로 도시 지역에 거주 중인 1.1백만 명이 식량 위기 · 남수단 유입 난민 40만 명 존재, 난민캠프 내 COVID-19 환자 발생으로 위기 심화
	에티오피아	· 가뭄, 홍수, 사막 메뚜기 출현 등 자연재해 심화 · COVID-19, 콜레라, 홍역 등의 전염병 발생 · 난민 유입 등으로 7백만 명 식량원조 필요 * 아프리카 국가 중 난민수용 2위(소말리아, 남수단 난민 73만 명)
	우간다	· 아프리카 최대 난민 수용 국가(남수단, 콩고 난민 1.4백만 명) · 5세 이하 영유아의 29% 발달 저해 상태, 53%는 빈혈을 앓고 있거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성장 수준 도달 불가할 것으로 전망 · '19년 세계기아지수 식량안보 심각 수준
아시아	라오스	·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44만 명(총 인구의 6%)이 식량원조 필요 · 인구의 23퍼센트가 빈곤 상태이며, '18년 인간개발지수 189개국 중 137위를 기록함
계	6개국	난민 및 강제이주민 등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3.5.)

〈표 5-5〉 농식품부의 쌀 식량원조 지원 실적

단위: 톤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멘	17,000	19,000	19,000	18,000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케냐	13,000	10,000	10,000	9,500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시리아		-		3,000
라오스		-		1,320
합계	50,000	50,000	50,000	5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3.5.)

3.2. 한국국제협력단 추진 현황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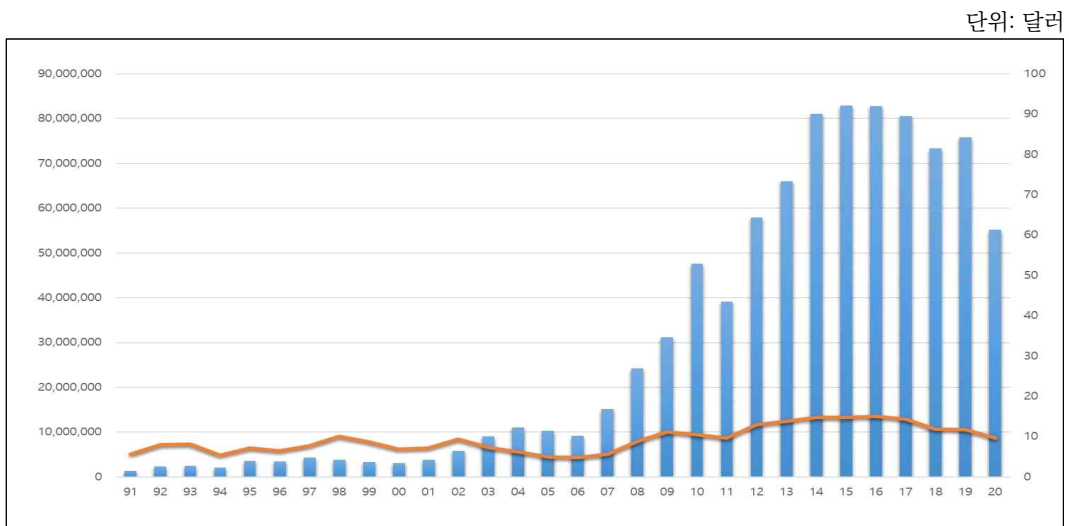
3.2.1. 지원 현황 및 전략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됨.

- KOICA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0년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ODA의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총 8억 9천 202만 달러를 지원해오고 있음. 농림수산 분야는 전체 KOICA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5-1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농림수산분야 지원액 변화추이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stat.koica.go.kr>, 검색일: 2022.8.15.)

- KOICA는 농촌개발을 포함해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에너지, 물, 교통 등의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농업분야는 '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 (2021-2025)'을 통해 사업을 기획함.

- 농촌개발 중기전략 하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의 전략목표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5-6〉 KOICA의 농촌개발 중기전략(2021-2025) 개요

전략목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1.1.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지원 프로그램
	1.2. 농림수산업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	3.1. 기후변화 대응 농촌 역량강화 프로그램
	3.2. 지속가능 산림경영 프로그램

자료: KOICA 웹페이지 자료(<https://www.koica.go.kr>, 검색일: 2022. 9. 12.).

3.2.2. 농업분야 추진 사례

○ KOICA의 농업분야 사업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으로, 사업의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짐. 우간다 사업사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술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구축 관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표 5-7〉 KOICA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개요

사업명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사업기간/사업비	2013~2017/267만불
사업 대상지역	우간다 캄팔라 구
사업수혜자	우간다 농림축산부 공무원 및 캄팔라 구 농민
사업 목적	농산물 품질제고와 수요확대, 시장성 확보를 통한 고용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주요 사업내용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시범운영까지 통합 지원하여 전략-운영-성과 확산의 삼박자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마케팅 전략 수립,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함.

자료: KOICA 내부자료.

○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는 인구의 7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수한 농업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4명당 1명(24.5%)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빈곤층이고 이들 중 8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음.⁷⁵⁾ 이에 우간다 정부는

75) 2010년 사업 기획 당시 기준임.

식량안보와 빈곤감소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

- 동 사업은 사업의 기획 당시 개발컨설팅 사업으로 설계되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농가공 시범센터 건립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KOICA와 사업수행기관의 합의하에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간다 측의 요구를 반영함.
- 우간다의 농업 분야 발전계획의 성과목표인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작물인 옥수수과 쌀을 대상으로 농가공 및 마케팅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은 우간다 정부의 전략보고서로 공식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2017년 6월). 또한 우간다 정부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옥수수와 쌀 수확 후 관리 및 가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단위 확산을 위해 2018~2022년간 113만 불의 정부예산 배정을 위한 근거로써 동 전략을 활용함.

〈표 5-8〉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단계	사업 내용
1차년도	기본설계조사(BDS)
2차년도	기초선 조사, 정책관리자 초청연수
3차년도	현지 관계자 워크숍
4차년도	시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마신디 옥수수, 진자 쌀), 진자(쌀)/마신디(옥수수) 농가공 시범센터 개소
5차년도	전략안 최종의견수렴 워크숍, 우간다 농림축산부 Top Policy Management(TPM) 회의에서 동 사업의 쌀/옥수수 전략 반영 승인 결정,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최종 전략서 공식 채택, 쌀 및 옥수수 전략 채택 행사 개최

자료: KOICA 내부자료

- 2개 지역(마신디, 진자)에 건립된 시범가공센터는 Producer(농민조직)-Processor(가공업자)-Public(정부) 간 Partnership(PPPP 모델)로 이해관계자를 조직해 지속성 구조를 확보함. 시범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현지 적용가능한 계량적 성과가 입증되고 전략의 확산이 용이했으며, 농민들이 소용 농기계 탈곡기 등을 사용해 노동시간 단축과 경작지 증가, 충분한 식량확보와 가용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2017년부터 KOICA에서 지원받은 설비가격의 50%를 시범센터를 이용하는 가공업자가 농민조합에 7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마신디 지역 옥수수 시

범센터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인근학교에 납품하는 등 PPPP 모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음.

〈표 5-9〉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의 주요 성과

사업 성과	기초선 조사 결과	종료선 조사 결과
운영효율성	5명의 직원이 1일 5톤 생산	3명 직원이 하루 12톤 생산, 300% 인상
생산효율성	가공과정에서의 탈립 손실률 15%	가공과정에서의 탈립 손실률 9%, 6% 절감
부산물 판매수익	1kg 당 1센트, 부산물(가루)을 사료로 판매	1kg 당 13센트, 부산물(가루) 품질개선으로 빵, 오트밀 가공판매, 수입 13배 증가
전기료	1톤 생산당 \$22	1톤 생산당 \$10, 55% 감소
인건비	월 \$192	월 \$137(30% 감소)
옥수수 가루 판매가격	1kg 당 44센트	1kg 당 55센트, 25% 증가

자료: KOICA 내부자료.

〈그림 5-14〉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의 시범가공센터



자료: KOICA 홍보실 자료.

3.2.3. ODA 사업 추진 사례: 학교급식 중심

○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을 실시하며, 이중 학교급식에 관한 사업은 KOICA의 개발협력사업(다자사업 및 다자성양자사업)을 통해서 WFP의 학교급식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KOICA의 학교급식 관련한 다자사업(국제기구 협력사업)에는 니카라과

(2018~2021년), 부탄(2019~2023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며, 다자성양자사업으로는 캄보디아(2020~2024년), 동티모르(2021~2025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KOICA 이외에 외교부의 경우 재정 격차가 가장 큰 기니, 르완다, 베냉 등이 직면한 심각한 식량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WFP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

○ 특히 KOICA는 WFP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은 HGSF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어, 학교 어린이와 현지 생산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있음. KOICA는 캄보디아에서 Kampong Thom, Kampong Chhnang, Pursat 등 3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⁷⁶⁾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에 WFP의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사업(HGSF)을 지원할 계획임.

⁷⁶⁾ 캄보디아 학교급식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WFP는 기존에는 국제 조달한 쌀, 오일, 콩, 소금 등을 학교급식에 지원함. 2013년에는 WFP가 캄보디아 MoEYS와 협력하여 HGSF 모델을 시범 운영하여, 채소, 고기, 생선, 계란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식단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와 농업을 지원함. 2015년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WFP와 NHGSFP(National HomeGrown School Feeding Program)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WFP의 운영 범위는 축소되고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28년까지 이러한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WFP 웹페이지, <https://www.wfp.org>, 검색일: 2022. 9. 29.).

6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방안

1. 정책 방향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OECD DAC 회원국에 정식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논의와 이행 과정에도 이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먹거리에 기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UN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대응은 ① 국내외 논의 및 정책 간 일관성,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지원, ③ 다층적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제사회의 논의·추진 방향과 우리나라 정책 간의 일관성을 추구해야함. 우리 정부는 UN의 푸드시스템 논의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식량·먹거리 정책을 추진함. 해외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원을 목표로 하여, 최상위 ODA 정책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밖에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내 식량·먹거리 정책 및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 관련 논의·추진 방향과의 교차점을 탐색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협력·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해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국내외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상당한 인력·조직, 예산 등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의 정책 경험과 비교우위,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파급 영향, 우리나라의 위상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선택·집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최종적으로 SDGs 달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다층적인 연계·협력에 기초하여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UN의 관련 논의와 조치들은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 등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요구함. 농업·농식품 부문 국제개발협력도 국내외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민간단체·조직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도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참여를 통해 추진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제고가 가능함.

2. 글로벌 푸드시스템 기여 방안과 과제

2.1. UN 실천연합 단계적 참여 확대와 차별적 대응

2.1.1. 실천연합 단계적 참여 확대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28개의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이 수립·운영되고 있음. 실천연합별로 대응하는 이슈·목표가 차별화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회원들 간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실천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농업·농식품 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UN의 푸드시스템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이루어짐. 향후 실천연합 가입과 이에 따른 실천들도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의 소관 업무임.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조직·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경우 가입 가능한 실천연합의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들 실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현황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한 실천연합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고려 사항)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정책 우선순위, 실천연합의 파급 영향과 운영 및 참여 현황, 우리 정부의 관심 분야 및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과 국내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연합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천연합 적정 참여 규모·범위)** 실천연합 참여 규모·범위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UN의 지속가능개발 논의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OECD DAC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5.3개의 실천연합에

참여하거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도 최소한 이들 국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실천연합의 참여 규모·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함.

- 참여 또는 검토 중인 실천연합 수는 미국이 12개로 가장 많으며, 이밖에 네덜란드(10개), 캐나다(9개), 프랑스(8개),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각 7개) 등의 순으로 참여 또는 관심을 보이는 실천연합 수가 많은 편임.

〈표 6-1〉 OECD DAC 주요 회원국의 실천연합 참여 규모

실천연합 참여 수	OECD DAC 회원국
10개 이상	미국, 네덜란드
5개 이상~10개 미만	덴마크, 영국, 일본, 핀란드, 독일,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5개 미만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체코, 슬로베니아

자료: 저자 작성.

○ **(가입 가능 실천연합)** 검토 결과 28개 실천연합 중에서 총 6개 실천연합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선정됨. ‘Nourish All People’,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의 3개 실천분야별로 각각 2개 실천연합이 선정됨. 이밖에 우리나라 주된 관심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가경로와의 연관성 및 환경·기후변화 관련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식품손실 실천연합과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 등 2개 실천연합에 대한 가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Nourish All People’: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 학교급식 실천연합, (식품손실 실천연합)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실천연합)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기후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 그러나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중에서 현재 구체적인 이행체계 및 운영계획 등이 제시된 실천연합은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등 2개 실천연합에

불과함.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들 2개 실천연합에 우선 참여하고, 기타 실천연합의 경우 이행체계와 운영계획이 마련된 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참여를 결정·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경우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중에서 가장 참여와 운영이 활발한 실천연합임. 우리 정부의 그간의 학교급식 정책 경험이 상당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며, SDGs와 광범위한 연관성을 가지고, 건강·영양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 일자리 등 다방면에 파급영향도 큰 편임.
-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은 미국 정부(USDA)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ODA 지원 사업에서도 중요성이 상당히 큰 정책 영역임.

〈그림 6-1〉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단계적 참여 및 검토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2.1.2. 실천연합별 대응 차별화⁷⁷⁾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됨. 그러나 실천연합별로 추진체계와 세부적인 운영 방식·내용 등은 다소 차이가 있어, 각각의 실천연합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실천연합별로 가입에 따라 ①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와 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② 개별실천연합의 운영방식·내용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참여 방식과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함.

가) 정책 효과와 방향을 고려한 대응

○ 실천연합별로 우리나라가 관련 이슈·실천을 주도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 수립·추진에 참고하는 등 참여에 따른 정책 효과와 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음.

- ① 우리나라가 논의·실천을 주도하여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연합, ② 우리나라 정책 수립·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실천연합, ③ 논의·실천의 주도적 참여와 정책 수립·추진에서의 참고가 모두 가능한 실천연합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연합은 **건강한 식이 실천연합과 학교급식 실천연합**임.

- 우리 정부는 그간 학교급식, 식생활·영양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한 식이 및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경우 건강·영양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경제, 일자리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정책 기조와 동일함.

⁷⁷⁾ 우선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6개 실천연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밖에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2개 실천연합(식품소실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연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함.

○ 둘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보다 도움이 되는 실천연합은 **농업 생태 실천연합**임.

- UN SDGs 수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생태, 기후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농생태학적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음. 국내 농업정책에서도 최근 농생태학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실천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정책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셋째, 우리나라 국내 정책 수립·추진에 참고하고, 동시에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연합은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등 3개 실천연합임.

- 지속가능한 생산성, 지역식품·지역 푸드시스템(로컬푸드), 기후변화 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슈이며,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지역식품(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시스템에 기초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경로에 이들 실천연합과 관련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 농업·농식품 정책에서 중요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우리나라는 그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제고와 기후 적응형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ODA사업을 지원함.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국내 정책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과 식품손실 실천연합**의 경우 이들 실천연합에서 다루지는 실천목표와 내용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대응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이들 실천연합에 대한 가입을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고,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전략들에서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실천연합과 식품손실 실천연합에는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의 환경·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일 수 있으며, 국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나) 운영방식·내용을 고려한 대응⁷⁸⁾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주요 이슈별로 마련됨. 실천연합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회원 간 네트워킹, 상호학습, 연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실천연합은 개별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분배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 아님.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가입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어, 실천연합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청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강제적인 의무 사항은 없음. 따라서 각국은 국가별 여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연합별 대응 범위·내용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모니터링·평가 또는 보고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학습, 정보 공유 등) 현재 이행 체계와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학교급식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의 경우 회원 간 상호학습, 연구/개발, 정보제공,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계·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연합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이들 실천연합과 관련된 비교적 오랜 정책 경험을 축적하였음. 따라서 회원 간 상호 학습, 정보 공유 등을 통한

⁷⁸⁾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이외에 대부분의 실천연합들이 아직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실천연합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커뮤니티 웹페이지(<https://foodsystems.community>, 검색일: 2022. 10. 28.)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지식, 경험, 모범사례 교환은 단기간에 대응이 가능한 사항임.

- 해외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관련한 정책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농업 생산성 관련한 국내 정책과 그간의 ODA 지원 경험 등도 공유 가능함.

○ **(회의·행사 참여, 연례 보고 등)**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의 경우 격년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이밖에 회원들이 실천연합 웹사이트에 게시될 ‘주요 성공 및 교훈에 대한 연례 보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항임.

○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실천연합별로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실천연합 가입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개발)** 그러나 학교급식 실천연합, 농업생태 실천연합,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 연구 추진은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의·연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접근·대응이 필요함.

〈표 6-2〉 실천연합 목표 이행 수단과 방식

실천영역	실천연합	(상호) 학습	연구/개발	정보제공	정보공유/네트워킹	회의/행사	모니터링 평가/보고	홍보/확산
Nourish All People	건강한 식이	●					●	
	학교급식		●	●	●		●	
	식품손실	●			●		●	●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		●				●	
	글로벌 지속가능 축산	●		●	●		●	
	지속가능한 생산성	●	●	●	●	● (격년 개최)	● (연례보고포함)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지역식품 공급사슬				●		●	
	기후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			●	●	●	●	●

주: 현재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 실천연합은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실천연합에 불과함. 기타 실천연합의 경우 개략적인 운영 방향과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추후 관련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2.2.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2.2.1. ODA 지원 확대와 사업 다양화

가) 지원 예산 확대

○ 농업·농식품 분야 ODA는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식품 관련 이슈·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개발도상국에서 농업·농촌의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및 기타 다방면에서 갖는 중요성이 상당함. 특히 COVID-19 이후 개발도상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식량, 경제·산업 등의 어려움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음.

- 개발도상국 인구의 상당 비중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기아, 식량불안정에 시달리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 2021년에 기아에 직면한 인구가 2019년 대비 약 1억 5천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식량불안정 상태에 처한 인구도 거의 3억 5천만 명이 증가함. 또한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 국가단위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도상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ODA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ODA예산의 증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에 ODA 예산이 4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 810억 원(식량원조 제외 3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이후 2021년에 1,006억 원(503억 원), 2022년에는 1,056억 원(53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ODA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편임.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예산은 정부 부처 중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다음으로 큰 편임.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국가 간 분쟁, COVID-19 팬

데믹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식품 관련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큼.

- 2021년 ODA 지원 예산은 28개 OECD DAC 회원국과 비교할 경우 덴마크에 이어 15위 수준이며, 총 국민소득 대비 ODA 예산 비율이 0.16%에 불과하여 전체 DAC 회원국 중에서 25위로 낮은 편임.⁷⁹⁾
- 정부부처별로 ODA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정부부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편임.

나) 지원 사업 다양화

○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와 개발도상국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비중이 큰 편임. 국가 간 분쟁, COVID-19 등으로 취약국가의 기아 문제와 식량 위기가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긴급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ODA 지원 내역을 보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49.3%를 점유하고 있음. 다음으로 생산성 제고(29.1%), 행정 시스템 및 서비스(9.0%) 순으로 비중이 큰 편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ODA 지원은 수원국의 긴급한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체적인 식량 공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

○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 예산을 확대할 계획임.⁸⁰⁾ 2023년에

79) OECD DAC 회원국의 총 국민소득 대비 ODA 예산 비율은 평균 0.33%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함. 또한 OECD DAC 회원국의 국민 1인당 ODA 지원액은 평균 165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55달러 수준으로,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임(통계청 e-나라지표 웹페이지,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22. 11. 15.) 참조.

80)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046>, 검색일: 2022. 11. 9.).

는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크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을 크게 증가할 계획임. 특히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확대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에도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식량의 필요와 농업 생산성에 관한 ODA 수요는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식량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를 제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농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수원국의 식량 가용성(availability) 향상 지원도 식량안보의 일부 요소만을 고려한 것임.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분야를 고려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따라 기존의 식량원조와 농업 생산성 제고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수원국들의 근본적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에 의한 가용성 확보와 더불어 접근성(access), 활용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 등이 확보되어야 함.

2.2.2. 개발도상국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ODA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 소득 증가, 기후탄력적(기후변화 대응) 농업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이들 사업들은 UN푸드시스템의 5개 실천경로 중에서 주로 실천경로 3(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과 실천경로 4(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실천경로 5(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에 해당하며, 4개 실천분야 중에서는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과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d(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와 관련성이 높은 편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의 일환으로 2023년에 총 47개 양자사업

과 다자성 양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47개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은 38개, 신규사업은 9개로 신규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신규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양자사업(기획협력), 4개 사업은 다자성 양자사업임.

- 지원 방식에 따라 양자사업이 33개 사업, 다자성 양자사업이 14개로 양자사업이 다자성 양자사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편이나, 예산액은 오히려 다자성 양자사업(64,189백만 원)이 양자사업(27,502백만 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편임.
- 양자 사업 중에서 기획협력 사업이 29개 사업(계속사업 24개, 신규사업 5개, 예산 26,348백만 원), 개발컨설팅(KAPEX)이 4개 사업(계속사업 4개, 예산 1,070백만 원)임.

○ 2023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존 사업과 추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며, 이에 따라 관련된 UN 푸드시스템 실천경로와 실천분야도 유사함. 다만 2023년에 다자성 양자사업(프로그램(양자))을 통해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ODA 사업과 차별성이 있음.

-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UN 푸드시스템 5대 실천경로 중에서 실천경로 1(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ensure access to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all)), 실천분야 중에서 실천분야1(‘Nourish All People(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과 관련됨. 실천연합 중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표 6-3〉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중 신규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국	사업기간	관련 기구	
양자 사업	기획 협력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수자원관리 및 농업용수지원사업	라오스(비엔티안주)	'23-'27	
		농가정보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필리핀	'23-'26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3단계 협력	인도네시아	'23-'24	
		씨감자 생산 및 증식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	'23-'27	
		관개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가나 (아크라주)	'23-'27	
다자성 양자사업		기후탄력적 쌀 수확후 처리기술 적용 및 시장접근성 강화사업	기니	'23-'25	WFP
		소농을 위한 혁신적 토지소유 안정망 구축 사업	네팔	'23-'26	UNHabitat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취약농 역량강화 사업	엘살바도르	'23-'26	GGGI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지원사업	소말리아, 기니, 라오스	'23-'25	WF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참여 현황과 해외 주요국 국가경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을 포함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국가경로에서 농업생산·경쟁력 등을 포함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푸드시스템 전반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국가는 국가경로에서 건강·영양, 식량보장, 식품안전, 식생활·영양교육 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관심과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

-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식품손실·폐기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컸으며, OECD 국가들에 비해 로컬푸드 등을 포함한 지역농업·지역 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었음.

○ 실천연합 참여 현황을 보면 농업 생산성 등 농업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UN의 실천경로·실천분야 이외에도 실천경로 1(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과 실천분야 1(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아종식, 학교급식 등의 실천연합에 대한 관심·참여가 큰 편임. 또한 실천경로 5(취약성·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와 실천분야 4(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 구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도 비교적 활발함.

- 국가경로에 식품손실·폐기에 관한 이슈가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손실 실천연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ODA 중점협력국은 1개국(인도네시아)에 불과함.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사업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건강·영양, 식량보장, 식품안전, 식생활·영양교육 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사업은 많지 않으며, ODA 중점협력국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학교급식, 지역식품 공급사슬 실천연합의 주요 내용들과 관련된 협력 사업도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존 사업 이외에 ODA 중점협력국의 관심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2.2.3. 기존사업과 연계 및 통합적 접근 실시

- 푸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식품산업, 소비·영양·건강, 소득·고용 및 시장·공공기반 등의 상호 작용과 이를 둘러싼 보건, 생태·기후, 경제, 과학 및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푸드시스템 상에서 직면한 문제를 단일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푸드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소와 이해관계자 간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2년에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도상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형·패키지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함.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도 이러한 국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즉 개발도상국 ODA 지원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으로 이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다수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ODA 중점협력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추후 가입할 실천연합의 이행 목표와의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예컨대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사업’에서 추진해오던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 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춘 생산단계 활동(농업기술 역량강화, 인프라 개선, 생산성 증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지역 푸드시스템의 틀 속에서 기존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업을 학교급식과 연결할 경우 지역의 푸드시스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편익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과 영양·건강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됨.

<글상자 6-1> 농업·농식품 ODA 지원 사업 개발(예시 1):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지역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하고, 학교에 조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지까지 모든 가치사슬의 단계별 개입(intervention)을 고려해야함. 그러나 이보다 선행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수원국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농업인과 학교급식 시스템을 연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KSP와 같은 정책컨설팅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추진할 수 있음.⁸¹⁾

- 협력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관련 정책 담당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실행하고, 한국 측 전문가와 공동으로 정책 개발

구분	내용
사업명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유형	개발컨설팅(KSP)
사업 주요내용	수원국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
사업수혜자	수원국 농업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
산출물(Output)	정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과(Outcome)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목표(Goal)	SDG 2(식량안보), SDG 16(법률 및 정책, 제도개선)
국내 협력파트너(사업수행기관)	대학, 정책연구소

자료: 전문가 위탁원고 참조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6-2> 농업·농식품 ODA 지원 사업 개발(예시 2):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치사슬연계 및 영양개선

지원사업

■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기술 전문가,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학교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학교의 급식시설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교육), 지역 농업인이 학교에 직접 납품하거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 전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현장에서 농민, 학교,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역량을 지닌 NGO가 적합한 사업수행기관이 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사업명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치사슬연계 및 영양개선 지원사업
사업유형	프로젝트
사업 주요내용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지원
산출물(Output)	사업대상지 학교 급식시설 구축 학교급식 담당 영양교사 역량강화 지역농민 생산 및 판매 역량강화 훈련
성과(Outcome)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목표(Goal)	SDG 2(영양개선), SDG 4(교육)
협력파트너(사업수행기관)	NGO

자료: 전문가 위탁원고 참조하여 저자 작성.

2.2.4.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개발도상국이 ODA 지원을 통해 구축된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반(계기)을 유지하기 위

81) KSP(Knowledge Sharing Programme)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임(KSP 홈페이지, <https://www.ksp.go.kr>, 검색일: 2022.11.15.).

해서는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성원들의 자생적인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ODA 지원 사업을 확대·다양화하여 푸드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보다 다양한 현지 이해관계자(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요·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푸드시스템 단계별·영역별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DA 사업을 통한 관련 정책·제도 마련, 시설·설비 및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이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 및 시스템 상의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관련 인적 자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농업 생산·경쟁력, 식량 공급 측면 이외에도 학교급식, 지역식품(지역 푸드시스템),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건강·영양 등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도상국들이 이들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관련인)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식·경험과 기술 등이 요구됨. 향후 주요 분야·이슈별로 다양한 연수사업, 기술협력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 조달·공급 시스템 구축·관리, 급식 및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기타 생산 이후 급식에 제공되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간의 학교급식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음. 또한 개발도상국의 학교급식 정책·제도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별로 별도로 식재료 수·발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보편화되고 있음. 또한 식재료 식품 안전성 검사를 비롯한 급식 안전·품질 관리 등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컬푸드와 연계한 공공·학교급식이 생산자 조직화, 공급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의 보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 이밖에 학교급식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동반되어야 함.

2.3.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2.3.1. 협력적 거버넌스와 민간 파트너십 구축

가)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활성화

- 푸드시스템의 개념이 확장되고 복잡해지면서, 푸드시스템 상의 다양한 문제·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 이슈 대응 과정에서 참여, 조정,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수준·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국제, 국가 및 지역 단위별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기여는 ①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 참여, ② 개발도상국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 ③ 지속가능한 국내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프로그램, 기타 실천들을 통해 이루어짐.
- **(국제사회 협력 거버넌스 적극 참여)** 첫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은 UN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논의와 실천, 회원국, 국제기구 등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UN의 푸드시스템 관련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이 푸드시스템 관련한 주요 이슈별로 국제사회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천연합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유관기관 간 협의체 마련)** 둘째, 푸드시스템은 농업·식품산업, 소비·영양·건강, 소득·고용 및 시장·공공기반 등의 상호 작용과 이를 둘러싼 보건, 생태·기후, 경제, 과학 및 행정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 작동함. 이에 따라 국내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농식품은 물론 기타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UN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논의와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보건·복지, 교육, 환경, 외교, 식품안전, 기술 등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과 푸드시스템에 관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푸드시스템 대응·기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부처 간 협의체 이외에도 농림업 유관기관이 주도하는 협의체의 역할도 중요함.

- 예컨대, 개발도상국 ODA 지원을 통한 푸드시스템의 전환도 농업·농식품에 대한 한정된 지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환경, 보건, 복지, 교육, 과학, 기타 다양한 영역·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농업·농식품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함. 허장 외(2020)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중대형 협력 사업을 발굴, 기획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민관 협의체 마련 및 지속 운영)** 셋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연계·협력이 필요함.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향후 국내외 정책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2021년에 개최했던 국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3년에 SDG 정상회의(SDG Summit 2023)이 개최될 예정이며, UN 사무총장 주재로 푸드시스템 관련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2021년에 UN의 요청으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전에 국가별로 민간과 공공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국내 논의를 개최함.

나)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 국내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응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함.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참여 주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SDG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UN은 SDGs 달성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에도 다양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함.⁸²⁾
-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국내 민간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내외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에 참여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식품 분야 ODA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야 함.

○ **(정부-학계 파트너십)** 첫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은 상호학습, 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을 통한 각국의 지식·경험 및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응을 하고자 함. 이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분석,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함. 아울러 실천연합은 물론 각국의 ODA 지원과 국내 푸드시스템 관련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정책·프로그램 및 기준 등의 개발·평가, 기술지원 등이 요청되고 있어 대학·연구기관 등 학계의 참여가 필수적임.

-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에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 등 학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경우 런던보건대학원(LSHTM)을 중심으로 국가 학술기관과의 연계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실천연합별로 이행 목표와 관련 이슈 및 SDGs에 대한 기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모니터링·평가를 위해서도 대학·연구기관과의 연

⁸²⁾ 조선미디어 웹페이지(“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하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5267>, 검색일: 2022. 11.9.) 참조.

계·협력이 요구됨.

- 미국(USDA, USAID)의 경우 자국의 주요 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연구개발(R&D) 역량을 지원하는데 개발도상국의 학자, 실행가들을 참여시켜 양측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민간기업 파트너십)** 둘째,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내외 대응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지속가능경영(ESG)이 강조되고 있음.⁸³⁾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실제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실천연합 등 이후의 후속조치에 해외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등의 주요국의 경우 ODA 지원을 민간기업의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KOICA는 기업의 CRS 활동 및 비즈니스 전략과 개도국의 개발 수요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형 민관협력을 추구함.
- 최근 주요 DAC 회원국들은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추세가 두드러짐. 일본은 농업수산성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일본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함(허장 외 2020).

○ **(정부-시민단체 파트너십)** 셋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대응에는 푸드시스템 관련한 다양한 영역·분야에서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개발·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정부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과 개발도상국 ODA 지원 사업의 확대·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⁸³⁾ CRS(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이며,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함.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푸드시스템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ODA 지원에도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강점(유연성, 전문성,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민간의 인적자원, 지적자산, 기술, 사업역량, 재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참여형 개발 원조를 추구함.⁸⁴⁾ 개발도상국 현지 네트워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NGO 단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ODA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임. 2015년 기준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3.2. 전담 인력·조직 마련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각국 정부에 대한 UN의 요구가 단순히 실천연합에 대한 참여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정책 추진, 개발도상국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함. 특히 푸드시스템이 생산부터 소비·폐기단계까지 다양한 시스템·요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작동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움 수밖에 없음.

- 농업·농식품 분야 ODA 지원도 기존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개선에서 보다 확장하여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국제사회를 포함한 해외에서의 대응 및 국내 푸드시스템 관련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푸드

⁸⁴⁾ KOICA 웹페이지(<https://www.koica.go.kr>, 검색일: 2022. 11. 28.), ODA 정보포털 웹페이지(<https://www.oda.go.kr>, 검색일: 2022. 11. 28.) 자료 참조.

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UN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특히, 실천연합을 포함한 UN의 푸드시스템 관련한 정상회의 이후의 각국의 대응 조치와 이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와 보고가 요청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과 SDGs 달성에 관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큼.

2.4. 국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보

- UN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 상호 연계·협력을 촉구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UN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비전·목표를 담은 다양한 국내외 정책·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정책·사업이 현실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이해와 인식이 뒷받침되고, 국내외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여는 국제적으로는 UN 푸드시스템 실천연합과 실천연합별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 농업·농식품 분야 ODA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임.
-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는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의 푸드시스템 전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이해는 물론, 국내 푸드시스템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의 범주에서 지속가능성이 갖는 의미·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책 수립·추진을 목표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24)). 그러나 이러한 식생활교육이 주로 국내 농업·환경 등의 범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푸드시스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국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성과도 달성함. 그러나 2030년까지 국내 푸드시스템의 전환과 SDGs(K-SDGs)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관련 정책·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함. 따라서 국내 푸드시스템 정책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지속가능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이 실시되고, 민관이 같이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함.

○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과 SDGs 달성을 위해서는 UN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 논의와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와 ODA 등을 통한 취약국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이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이후 국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외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해외 정책·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련 정책·사업에 공감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들은 SDGs 목표 달성 기간이 2030년까지여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ODA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예산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수적임.

- 2021년 국무조정실 조사에 의하면 국민이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⁸⁵⁾ 그러나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이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COVID-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ODA 지원과 규모 확대에 대해 이전에 비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 비해 ODA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감소함. 특히 향후 경제·사회의 중심축이 될 MZ세대는 ODA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음.⁸⁶⁾

⁸⁵⁾ 국무조정실(2021).

⁸⁶⁾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와 Z세대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함.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1.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 김병률·이명기·김명환·한석호·전익수·허정희·노호영. 2009.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글로벌 개방경제하의 「국가식품시스템」 전략-』. C2009-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2.21. “우리 쌀 5만톤을 활용한 식량원조 대상국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3.5.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6개 식량위기국 난민, 이주민에 식량 지원 지속”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6. 30.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내년 예산 4조 5000억원으로 확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046>>.
검색일: 2022. 11. 9.
- 이효정. 2019.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나라의 식량지원(Food Assistance) 사업 사례와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 국제개발협력 14(1): 79-96.
- 이효정·윤자영. 2021. “미국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시사점”. 세계농업, 244: 39-60.
- 조선미디어. 2018. 12. 5. “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하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5267>>. 검색일: 2022. 11. 9.
- 허장 외. 2020.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C2020-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영모 외. 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vol. 145.
- 황윤재·김경필·최재현. 2018.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R8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윤재·박성진·최재현. 202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C2021-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OICA 내부자료.
- KOICA 홍보실 자료.
- WFP 내부자료.
- FAO. 2018. 『Sustainable food systems—Concept and framework』.
- FAO. 2020. 『Migrant workers and the COVID-19 pandemic』. Rome.
-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2.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epurpos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to make healthy diets more affordable』. Rome: FAO.
- HLPE. 2017. 『Nutrition and food systems』. A report by the High Level Panel of Experts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Rome.
 Joachim von Braun, Kaosar Afsana, Louise Otilie Fresco, Mohamed Hassan, Maximo
 Torero. 2021. “Food system concepts and definitions for science and political
 action” *Natur Food* 2: 748-750

OECD. 2022. 『The Short and Winding Road to 2030: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OECD Publishing, Paris.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USAID. 2022. 『U.S. Government Global Food Security Strategy』.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oooya1105/222799891728>>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

미국 USDA 홈페이지, <<https://www.usda.gov>>

지속가능발전 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학교급식 실천연합 홈페이지, <<https://schoolmealscoalition.org>>

FAO 홈페이지, <www.fao.org>.

FAO SDG 웹페이지, <<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stat.koica.go.kr>>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KSP 홈페이지, <<https://www.ksp.go.kr>>

ODA 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oda.go.kr>>

OECD Statistics 홈페이지, <<https://stats.oecd.org>>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 <<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국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홈페이지,
 <<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FoodSystemsSummit>>

UN 푸드시스템 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s://foodsystems.community>>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

USDA SPG 실천연합 홈페이지, <<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spg-coalition>>

WFP 홈페이지, <<https://www.wfp.org>>